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3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6월 10일(음력 5월 18일) 수요일(주간)

라오스에 '공생 청소년센터' 건립

지구촌공생회, 라오스 미래 초석 놓기 활발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라오스의 미래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지구촌공생회는 3월 16일 기공식을 가진 데 이어 7월 31일까지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시 싸이타니구 던눈마을에 '공생 청소년센터(Good Hands Youth Center Laos)'를 건립한다.

1인당 GDP가 400달러에도 못 미치는 동남아 최빈국 라오스에서 자녀교육은 먼 나라 이야기. 싸이타니구에는 현재 3000여 학생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노동시장에 내몰려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에 가더라도 재학생 10명 중 한, 두명 만이 교과서를 갖고 있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게다가 태국, 중국, 베트남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한 라오스의 지리적 특성으로 외국문화가 넘쳐 청소년들이 민족정체성을 잃는 사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이러한 라오스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을 통해 라오스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생 청소년센터'에는 크게 △도서관 △외국어 교육실 △라오스 문화 교육실로 구성된다.

모국어 서적의 절대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 어린이 서적을 선정, 라오스어 번역작업을 실시하며, 번역된 도서는 지구촌공생회 라오스 지부가 지원하는 각 초등학교 도서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어·영어 등 외국어 교육, 노래와 율동, 단체게임 등 다양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라오스 어린이들의 꿈을 계발할 계획이다.

한편, 라오스 현지에는 지구촌공생회가 2004년 11월 첫 해외사업으로 시작한 공생유치원을 비롯해 3월 24일 완공된 도서관이 자리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은평새길 평창터널 수행 환경 침해 우려

서울시 발표 후 환경단체 일제히 반발… 화계사·옥천암 인근 포함돼

서울시가 서울 은평 뉴타운 등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북한산과 북악산 관통도로 건설계획이 사찰 수행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5월 11일 은평구-종로구(은평새길), 종로구-성북구(평창터널)를 연계하는 2개의 도로를 민간투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10년 착공해 2013년 개통을 목표로 한 간선도로 1축 '은평새길'은 노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부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은평뉴타운에서 부암동 하림각까지 길이 5.7㎞, 왕복 4차로 구간 대부분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지나가는 1축 계획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당시 사패산터널 논란을 상기시킨다.

2축 '평창터널'은 신영삼거리에서 성북동길까지 왕복 4차로 2.89㎞로 현재 서울시 공고를 통해 사업자 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다. 3축 '중앙간선도로'는 수유동 화계사 인근에서 가회동 감사원까지로 역시 왕복 4차로 6.8㎞구간에 걸쳐져 있다. 3축 계획안은 현재 서울시 내부 검토 중으로 건설계획 발표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0년 하반기 착공해 2013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이들 사업은 390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GS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돼,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 단체들은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시민의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서울시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부동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은평새길'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사패산터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허용되는 마지막 터널이라고 공언했다"며 국립공원 사수 의지도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 민자사업팀은 "북한산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부분은 논밭으로 현재도 개발이 된 상태로 문제될 것이 없다. 홍은동 옥천암을 비롯한 지역 사찰 또한 터널로 지나기 때문에 수행환경 파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인구 밀집지역을 지나가는 터널은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침식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자연공원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인근 주민 환경권도 침해할 수 있다. 노선 공사 진행시 인근 사찰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먼저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천암 주지 정범 스님은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 개발정책 전반에 큰 오류가 있다. 현재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개발을 밀어붙이고 상하수도와 도로가 필요하니 다시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식은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 및 천성산 터널 공사 당시를 들어 정부 추진 사업의 경우 시공계획이 완료된 이후에는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불교계 재산권과 환경파괴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기획과 논의과정, 사업자선정, 시공 등 전반에 걸쳐 충분한 협의과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되새겨 보는 사패산 터널의 교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난 완화, 수도권 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착공됐다. 1993~2001년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단계인 일산~퇴계원 사이 36㎞ 공사가 1996~2006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사패산 터널 공사와 관련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합의주체들은 2002년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에 들어갔으나 터널 공사는 중단됐다. 이듬해 불교계와 환경단체 대표로 조계종이, 사업시행자를 대표해 건설교통부가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2003년 4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위원회는 우회노선, 문화재 평가 등의 합의절차에 들어갔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정부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정부는 개별사찰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방법을 동원하는 동시에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여론 확보에 주력, 찬성 여론이 형성되자, 2003년 12월 공사를 재개했다. 2007년 12월 사패산 터널 완공 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새 연재 '탐욕의 경제학'에서 '자족의 경제학'으로
13면 허달의 '불교와 코칭'



희망의 씨앗이 되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은 6월 3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의료비 지원금 7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상임이사 대오 스님(사진)은 "이 지원금이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원한다"며 지원금 전달과 함께 신생아실 중환자실을 찾아 입원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렸다. 박재완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14 도업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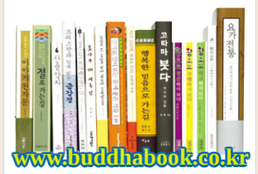
인터뷰 ▶8 세민 스님

법구경

이 세상에 태어나
보람된 일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배
용도:복장의식, 상량식,불사 영기천도
문의 02)722-1850



기축년(올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황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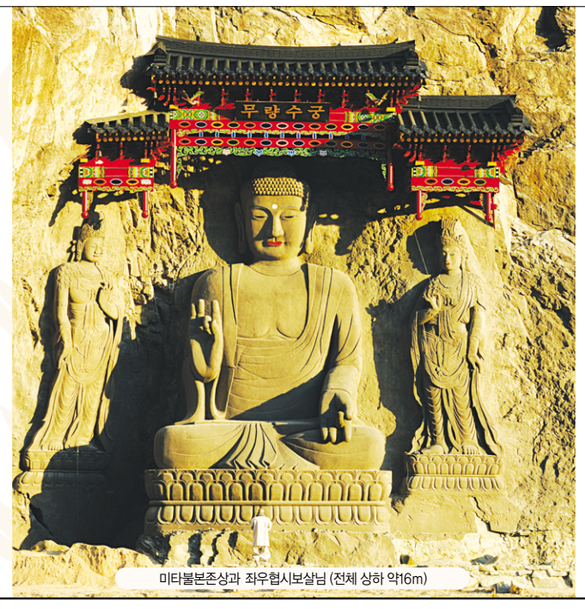
천태산 통천도량 무량수궁 마애아미타불점안대법회 및 산사음악회. 만등불사

天台山 通天道場 無量壽宮 磨崖阿彌陀佛點眼大法會 및 山寺音樂會. 萬燈佛事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보살님 전에 국태민안과 불교중흥을 기원 드립니다. 다가오는 윤5월6일(양력 6월 28일) 오전 11시, 천태산 통천도량 무량수궁에서 마애아미타불점안대법회 및 만등불사를 봉행하오니 전국의 불자님들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금생에 선근공덕으로 무량대복을 누리시고 누세에 쌓인 업장에서 해탈 열반 낙을 성취하옵고 선망부모조상영가님들의 극락왕생 발원하시옵기를 마애아미타불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제불보살과 팔부신장이 옹호하고 제방의 선지식과 고승석덕들이 증명하시는 아미타영험도량으로서 사바의 고해에서 고통 받는 유정무정의 일체중생들의 안식처가 되고 무명업장을 해탈하여 열반을 성취하는 정토도량인 천태산 통천도량 무량수궁 마애아미타불점안대법회 및 만등불사에 동참 발원하여 소원성취 하시옵기를 합장하옵니다.

불기 2553(2009)년 6월

일 시 : 불기 2553년(2009) 음력 윤 5월 6일 (양 6월 28일)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 경남 양산시 원동면 1003번지 천태산 천태사
식 순 : 1부 - 점안식 오전 10시 / 2부 - 법요식 오전 11시
3부 - 산사음악회 12시 (사회 : 마당놀이 인간문화재 김종업)
연락처 : 055)382-5515



미타불본존상과 좌우협시보살님 (전체 상하 약16m)

천태사와 아미타불 불사

옛날부터 천태산은 천성산, 영축산과 함께 양산의 3대 명산으로 이름난 곳일 뿐 아니라 천태산 천태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 창건 사찰로서 지방문화재 제387호 아미타불 좌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천태산상 독수선정 나반존자 기도제일 영험 기도도량으로서 근세에도 경보 대휘 큰스님 등 고승대덕이 이곳 도량에 기도 및 법화산림을 한 간경도량이었습니다. 천태산은 양산 8경의 하나로서, 천태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낙조는 필설로써 형언할 수 없는 장관입니다. 소납이 이곳에 인연의 발길이 닿아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기도의 원력발원으로 가람을 복원 중수하고 도량을 가꾸어 오던 중, 5년 전 아미타불이 강림하여 일체중생의 정토도량임을 현몽하였습니다. 마애아미타불 조성원력을 세우고 5년여에 걸쳐서 기도정진하면서 신심 있는 불자님들의 정성과 소납의 각고정진 끝에 윤 5월 6일 점안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애아미타불 점안대법회 및 만등불사
봉행위원장 천태사 주지 천산 진우 합장
www.chuntaesa.com
만등불사 1인 1등 1만원
(우체국 310037-02-001951 예금주 김광회)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buddhapia.com

'바보'가 아름다운 까닭

지역주의 타파와 서민중심의 경제, 남북의 평화공존을 지향한 정치개혁을 어렵게 실천했지만, 퇴임후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에 휘말리자 온몸으로 항거한 故 노무현 前대통령. 당신의 수많은 별명 중에 바보가 가장 마음에 든다던 그가 서거(5월 23일)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바보 대통령'을 잊지 못하고 있다.

"눈앞의 이해관계로 판단하니까 이기적인 행동만 나오고…, 어쨌든 그냥 바보하는 게 좋아요."

생전의 육성 그대로 '바보 노무현'이란 문구가 방송과 인터넷을 도배하고 이제는 추모의 분위기도 식어가고 있지만, '나도 바보처럼 살겠다'고 발원한 국민이 적지 않다.

이러한 '바보 신드롬'은 2월 16일 선종한 또 다른 바보, 故 김수환 추기경이 불러일으킨 나눔과 봉사의 열풍에 이은 두 번째다. 국민들이 이처럼 '바보'에 목말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반증이다.

어느 종교 보다 깊은 애도를 표하고 추모 열기에 휩싸인 불교, 특히 선종에서는 전통적으로 분별심과 알음알이가 치성한 지해종사(知解宗師) 보다는 바보처럼 무심한 도인[無心道人]을 존중해 왔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당나라 때의 한산(寒山)과 습득(拾得)이다. 뒷날 한산은 문수보살, 습득은 보현보살의 화현으로 추앙됐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언행을 미치광이로 생각하고 멸시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험한 세상에서 바보로 살아가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한산이 습득에게 물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비웃고 깔보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속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습득이 대답했다."참고 양보하고 내버려두고 회피하고 견디어 내고 그를 공경하고 그와 따지지 않으면, 몇 해 후에는 그들이 그대를 보게 되리라."

백척의 절벽 위에서 한 걸음 더 내딛기 전, '삶과 죽음이 모두 한 조각 자연'이니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유언한 바보 대통령. 세속의 관점에서는 비운의 정치가이겠지만, 생사가 둘이 아닌 도리를 체득하고 끝까지 동체대비의 교훈을 국민에게 남긴 그는 우리 시대의 보살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저자거리에서 남몰래 보살행을 실천하다 간 무수한 도인들처럼 숨이 넘어갈 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

"자연공원법 개악 반대"

조계종 본말사 주지 통도사서 7월 2일 결의대회

조계종 스님들이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자연공원법 개악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법장)은 최근 "6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하던 본말사주지연수를 7월 1~2일 양산 통도사에서 통합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이번 본말사주지연수 일정 변경은 종단 중요사안인 자연공원법에 대해 종단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함"이라면서 "본말사주지연수 마지막날인 2일 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서 조계종 스님들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연공원법 개정과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과 관련해 종단의 요구를 강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장적스님 · 총무원 기획실장)는 6월 3일 문화유산지역 보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장적 스님은 "현 정부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있다"며 "자연공원법과 전통사찰법 등 다중 규제돼 있는 사찰관련 법령을 (가칭)문화재보호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이 종단의 취지"라고 말했다.

부위원장 현응 스님은 "본말사주지결의대회는 (자연생태계 보존 위주의) 국가정책에 의해 삼보정재의 자주권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를 그치고자 계획됐다"며 "청와대의 정책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이례적으로 4일 이명박 대통령 초정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 불참했다. 지관 스님의 불참은 대정부 항의 집회 성격이 강한 본말사주지 결의대회와 함께 조계종이 정부에 갖고 있는 불신의 폭을 가늠케 한다.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는 지관 스님을 대신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사표 '반려'

"임기말 레임덕 시작됐나" 우려 자아내

조계종 총무원 부 · 실장 스님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다.

최근 "기획실이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과정에서 총무원장스님과 부장스님들에게 허위보고한 것이 밝혀져 원장스님이 대노했다"는 소문이 있은 후, 6월 3일 기획실장 장적스님을 비롯한 부 · 실장 스님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5일 개최한 종무간담회에서 이번 부 · 실장 스님들의 일괄사표에 대해 모두 반려했다.

허위보고 의혹 등 이번 사태의 발단으로 지목돼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기획실장 장적 스님 사표까지 반려됐다.

부 · 실장 스님들의 전체 사표 반려는 밖으로는 자연공원법 개정 등 대정부 업무가 산적해 있고, 안으로는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을 막으려는 지관 스님의 결단으로 해석된다. 또, 총무원장 임기말 레임덕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도 이해된다.

교계에서는 부 · 실장 스님들의 사표가 반려됐지만, 총무원장 스님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이 여전하다.

조계종 총무원이 이번 사태는 봉합했지만 후유증까지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계종은 사건의 발단이 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전통사찰문화연구원' 관련 조항을 삭제 조치시켰다.

조동섭 기자

제18세 종정에 혜초 스님 재추대

태고종, 6월 1일 원로회의서 만장일치



태고종정 혜초스님.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일우)는 6월 1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제11회 원로회의를 열고 태고종 제18세 종정으로 현 종정인 혜초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이날 종정추대 회의를 마친 후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은 "종정예하의 재추대를 계기로 종단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 전 종도가 대동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혜초 대종사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부원장, 총무원장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수행자로 추앙받고 있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는 원로의원 23명중 19명이 참석했으며, 중앙종회 5선(7 · 8 · 9 · 10 · 11대) 의원이며 전남 금둔사 주지인 지허 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로이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김성우 기자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령' 지지"

대중결사, 지지성명 발표

"대중결사는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을 지지하며, 종단의 승려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일체의 사항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는 6월 2일, 조계종이 최근 입법예고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에 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대중결사 회원스님들은 성명서에서 "종단의 새로운 변화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에 따라 승려노후복지기금 적립과 이를 통한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단의 계획에 대해 큰 기대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결사 스님들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수행자의 출가정신을 천명하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중결사는 종단의 승려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일체의 사항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어린이 청소년 신도증 나와

조계종 "종단 최초로 전용 신도증 제작"



어린이 신도증.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조계종 신도증이 발급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6월 2일, "어린이 · 청소년 집중포교 3년차를 맞아 종단 최초로 어린이 · 청소년 전용 신도증을 제작 발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 청소년 신도증은 지난 4월부터 발급중인 성인용 새 신도증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첫 발급은 7월 11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 전진대회에서 이뤄진다.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에서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한 어린이청소년에 한해 6월 12일까지 통합접수할 수 있다. (02)22011-1903

이상언 기자

마곡사 '금품 수수' 심리 연기

마곡사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한 심리가 연기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은 5월 27일 제49차 심판부를 개정했다.

이날 심판부는 마곡사 주지 법용스님을 비롯해 대광 · 대일 · 대관스님이 신청한 연기요청을 수용해 심리를 연기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안양 수리사 재산을 매각하면서 종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성견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3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또 제주 관음사와의 채무관계로 징계회부된 시령 · 현공스님에 대해 각각 제적과 멸빈을, 타종단과의 이중승적으로 징계회부된 일공 스님은 공권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동섭 기자

"불교의례 연구로 부처님 본래 정신 살릴 것"

청매의례문화연구원 사단법인 설립 허가

5월 25일 청매의례문화연구원이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청매의례문화연구원(원장 미등 · 조계종 기획국장, 이하 연구원)은 법인 허가를 시작으로 대중적 불교의례 연구에 매진할 포부를 밝혔다.



미등 스님.

미등 스님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인데, 수행은 의례로 구성돼 있다"며 "불가(佛家)에서는 새벽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 화장실 가는 동 안 도 어느 순 간 의례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미등 스님은 "불사 위주의 의례만 의례로 인식되는 풍토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의례의 정신과 사상을 살리는 것"이라며 "의례의 대중성만 확보되면 포교는 저절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불교의례의 의미와 상징구조 등을 밝히는 한편, 불교의례를 목록화해 대중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경봉대종사 제27주기 추모법회

귀의 삼보하옵니다.
청정납자로 수행가풍을 진작시키고
한국불교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기신 경봉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신지 올해로 27주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극락호국선원 경봉문도회에서는 커다란 나무처럼 대중을 자애로 감싸며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베푸셨던 경봉대종사의 뜻을 기리는 추모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귀한 발걸음 하시어 큰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53(2009)년 6월 19일 (음 5.27) 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무량수전
내 용 | 경봉대종사 27주기 추모법회
2009학년도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문 의 | (055) 382-7083

극락호국선원장 명 정 경봉문도회장 원 산 신도회장 정홍준 합장

2009년도 경봉장학회 선발공고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는 2009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박 사 과 정	2명
석 사 과 정	4명
학 사 과 정	30명
통 도 사 강 원	8명
선 원	3개소
율 원	1개소

경봉대종사 제27주기 추모법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봉행되오니, 선발된 장학생은 추모법회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 이사장 원 명

경봉문도회
제5회 정기 총회

추모법회 봉행 후 오후1시
극락암 무량수전에서
열립니다.



봉하마을과 정토원은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도 추모물결 여전


봉하 정토원에 마련된 노무현 前 대통령 분향소에 참배하는 시민들.

노무현 前통령의 서거로 깊은 슬픔에 잠겼던 봉하마을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6월 4일, 추모 인파가 수백 미터를 줄지어 기다리던 마을 어귀에는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현수막들만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길 양 가장자리에 세워졌던 만장 2000여 개도 수거됐다. 고인에게 마지막 작별인사와 헌화를 하고자 기다리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분향소에는 뒤늦게 조문을 온 수십여 명이 모여 있을 뿐이다.

농가에서는 본격적으로 모내기와 보리 베기가 이뤄지는 '망종'즈음.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들녘에서는 트랙터 소리가 울려퍼진다. 1일까지만 해도 텅 비었던 논에는 모판이 빼곡히 심어졌다.

2일부터 노 前 대통령이 서거한 5월 23일 오후 중단했던 생가 복원공사가 십여 일 만에 재개됐다. 추모 기간 동안 굳게 잠겼던 현장에는 인부와 공사차량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골조 작업 후 남은 자재 정리 작업으로 공사의 재개를 알렸다.

그러나 추모 물결마저 가라앉지는 않았다.

6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 일대를 수놓았던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한 추모글과 그림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전달됐다. 이날 오전 추모글과 그림을 트럭 2대에 나눠 실은 200여 봉사자는 운반 및 뒷정리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야 서울로 돌아갔다.

노 前대통령의 유골이 안치된 정토원에는 검은 상복 대신 등산복과 평상복을 입은 추모객들이 늘어났다. 오후 5~6시 퇴근 시간 무렵 봉화산 등산로와 봉하마을, 정토원에 이르는 코스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몰려오던 자원봉사자들도 썰물처럼 빠졌다. 추모기간 동안 큰 힘이 돼주던 봉사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

한 자원봉사자는 "먼 길 오신 방문객들에게 여전히 매일 세 끼씩 밥과 빵, 물 등을 무료 공양해드리는데 추모객이 끊이질 않으니 자원봉사 일손이 부족해서 계속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과 정토원 신도로 구성된 봉사단 및 스님 봉사단, 노무현 정부 시절 핵심 측근 몇 명만 남아 정토원을 지키고 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정토원 내에 작은 추모각 지을 생각"

정토원장 선진규 법사



노 前 대통령 서거 10여 일 만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정토원장 선진규 법사(사진)를 만났다. 오랜 지기를 먼저 보내는 슬픔과 그간 누적된 피로로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선 법사는 지금도 눈 감으면 어린 시절의 노 前 대통령이 절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아른거려 그분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다. "노 前 대통령에게 정토원과 봉화산은 몸과 마음이 자란 고향이고, 사자바위는 '부처님바위'라 불릴 정도로 정기가 좋으니, 그분이 산의 좋은 기운을 독차지해 다시 없을 훌륭한 분으로 성장했다"며 고인을 회상했다.

선 법사는 이어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서 틈틈이 찾아오다가 임기가 끝난 후에는 매일 올라오고, 멀리서 손님이 오면 모시고 다니면서 봉화산 자랑을 하고 다닐 만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다"고 말했다.

이제 영결식을 모두 마치고, 49재 중 2재를 지낸 선 법사는 "오랜 세월 같은 추억을 많이 간직한 고인이 한 세상 회향하는 이 순간에 내가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49재가 끝날 때까지 정성스레 재를 올린 후, 왕이 세상을 떠나면 100재를 지냈다는 옛 문헌의 기록에 따라 서울에서 나머지 51재를 올리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토원 경내에 작은 추모각을 지어 먼 훗날 노 前 대통령을 그리워하며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도 조심스레 갖고 있다"고 했다. 선 법사는 전국에서 찾아와 추모하고 마음으로 함께해준 전 국민과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거듭 밝혔다.

"정부 쇄신" 시국선언 잇따라

불교인권위·기독자교수협 등


6월 5일 조계사에서 열린 노무현 前 대통령 2재에 참석한 한명숙 前 총리와 김병준 前 비서실장.

노 前 대통령 서거 이후 MB정부 내각 개편과 대통령 담화 등 정국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종교 · 학계도 정부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인권위(위원장 진관)는 6월 4일 성명 발표에 이어 9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1차 불교계 지도자 108 시국선언'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 공개사과 △법무부장관 등 책임자 처벌 △현 내각 총사퇴 및 야당 포함 거국내각 구성 △6 · 15 공동선언 및 10 · 4 평화선언 준수 천명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MB정부는 지난 1여년의 기간동안 민주주의 · 인권 · 환경 · 대북관계 등 모든 문제점이 불거졌고, 정치보복으로 前 대통령까지 죽음에 이르렀다"며 "국민 요구를 수용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김성은)는 6월 3일 '최근 남북 긴장고조와 현시국에 대한 입장' 시국성명서를 통해 "남북관계 악화를 비롯해 시민에 대한 경찰 과잉진압 등 현 시국을 등한시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대교수진들의 시국성명발표를 시작으로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까지 동국대 · 연세대 · 고려대 등 다수의 대학들의 시국선언문 발표와 시국대회가 이어지는 등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정부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영화제·심포지엄 등 행사 다채

참여불교재가연대 창립 10주년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박동건, 이하 재가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6월 15~16일 오후 7시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는 '회원과 함께하는 사랑방 영화제'에서 타키타 요지로 감독의 '굿바이'가 상영된다. 우연히 납관도우미가 된 오케스트라 첼리스트와 베태랑 염문사의 이야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추모열기를 되짚고, 동양적 생사관에 대해 조명한다.

20일 오후 2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종교권력의 시대, 불교의 상상력'을 주제로 종교와 권력의 상관관계, 종교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불교의 새로운 역할이 모색된다.

강인철 한신대 교수, 박맹수 원광대 교수, 백찬홍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각 종교 대표발제를 진행하며, 조계종 종회의원 정범 스님, 조은수 서울대교수,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또 27일 오전 10시 동국대 만해광장에서는 10주년 기념 회원 체육대회가 열린다. 체육대회에는 불교아카데미 리더스포럼 졸업생을 비롯해, 재가연대 회원 및 관계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재가연대는 "지난 1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겠다"며 "사회에 신뢰받는 청정교단이 되도록 비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인재양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민원즉심관 임용 취소하라"

종교평화위, "종교편향 인사 임명 문제"

민원즉심관제는 민원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즉심관은 5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이다. 국내 첫 민원즉심관인 전용태 성시화운동본부장의 임명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 손안식)는 6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용태 민원즉심관의 임용 취소를 주장했다.

종평위는 "안산시가 당초 마련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현재도 시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민원즉심관을 임명한 것은 법적인 실수"라고 밝혔다.

전용태 장로는 과거 춘천지검장 재직 당시 '춘천을 성시화 모델로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인바 있으며, 지난해 6월 27일에는 '안산시 성시화를 위한 지도자기도회'에서 "성시화운동을 통해 안산시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인물.

종평위는 이에 대해 "성시화운동 이사장인 전용태 장로는 2009인천국제성시엑스포 상임준비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등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특정 종교 선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선교단체 이사장의 임용은 종교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범불교도대책위는 6월 6~7일 은해사 불교대학에서 '종교평화 임파워먼트 과정-종교인권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 평화의 종 타종



국내 최대 범종인 '세계 평화의 종(1만관 · 사진)' 타종식이 5월 26일 화천 평화의 종 공원에서 열렸다. 타종식에는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고르바초프 前 소련 대통령, 투투 대주교와 13개국 19명의 대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국내 최대 범종제작사인 성종사(대표 원광식 ·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에서 제작된 '세계 평화의 종'은 전 세계 30개국에서 기증한 탄피와 종을 녹여 제작한 무게 37.5t, 직경 2.76m, 높이 4.67m의 범종이다.

김성우 기자

"개발원칙 따른 보도 행태 정정"

지율 스님, 언론 보도 비판


주요 일간지의 천성산 터널공사 관련 오보를 설명하는 지율 스님.

천성산 피해액을 172배 부풀린 각 언론사의 확대 오보들에 대한 정정을 이끌어 낸 지율 스님이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를 공식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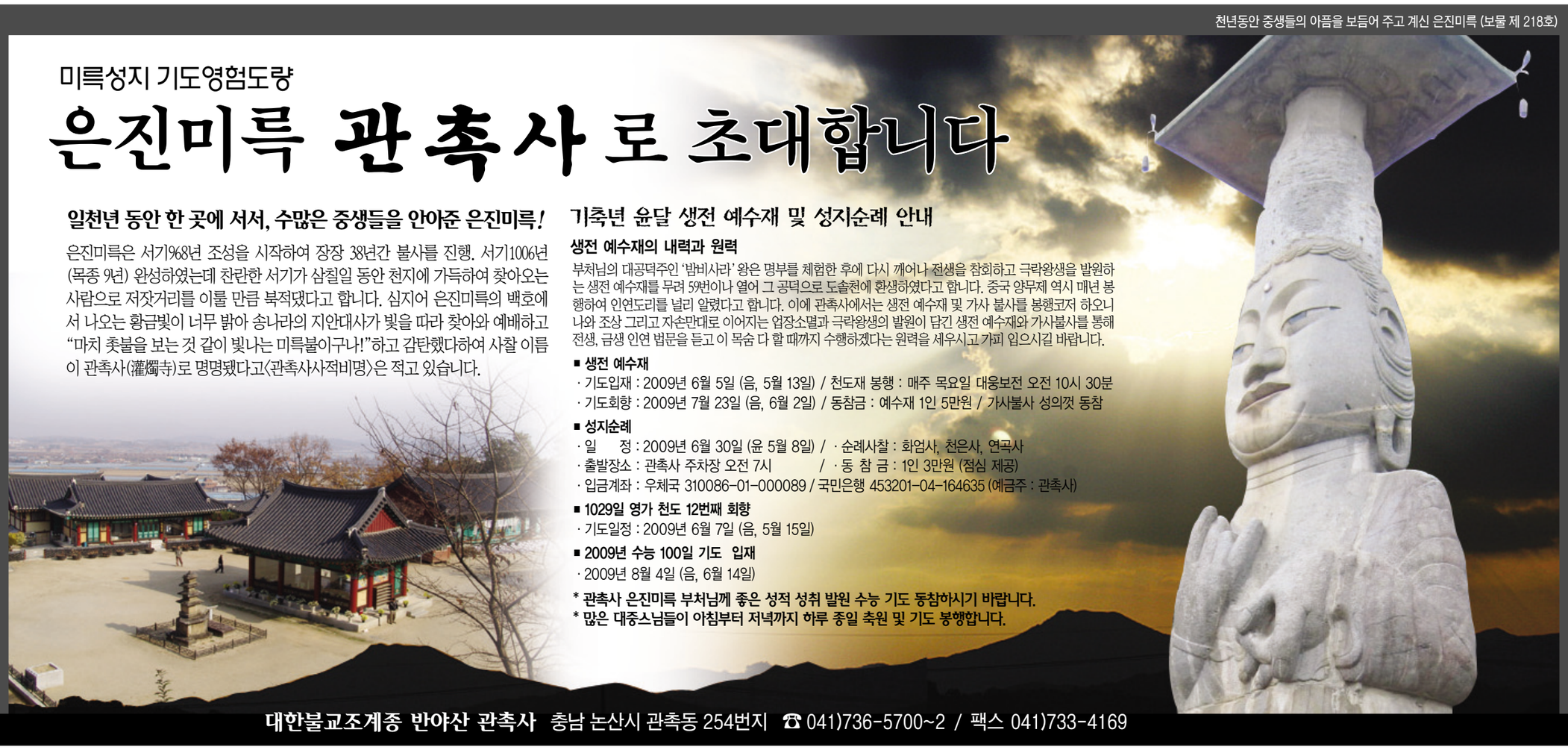
지율 스님은 6월 5일 총무원 1층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언론중재위를 통해 조선, 중앙, 문화일보로 부터 정정 및 사과 결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2조5000억이라는 손실보도를 145억으로 정정하는 데 2년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 수치가 정정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율 스님은 대법원의 천성산 공사 관련 재판과 별개로, 145억에서 2조5000억으로 손실액을 부풀린 각 언론사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해왔다. 이미 일부 언론은 정정보도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 지율 스님 유죄판결이 나자 이를 다루며 다시금 오보한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의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 사설을 비롯해 유력 일간지들은 환경운동의 악영향과 쇠퇴 등을 집중 기사화한 바 있다.

지율 스님은 판결 당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유명 일간지들이 일제히 기사와 사설을 실었더라. 판결문을 본 후 오도된 기사들을 바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율 스님은 "법원에 계류 중인 조선, 동아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환경운동 폄하와 개발원칙에 의한 보도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골라 가는 재미가 있다

골라먹는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취향따라 골라가는 재미가 더해진 전국 사찰 템플스테이도 있다.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전국 100여개의 사찰에서 다채로운 템플스테이 일정이 발표됐다. 김제 금산사, 해남 대흥사, 장성 백양사, 고창 선운사 등에서는 '전통차 만들기' '발효차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 어린이를 위한 한문학당, 선무도 등의 전통사찰문화프로그램과 산행, 참선 등이 눈에 띈다.
망설이지 말고 올 여름은 마음에 맞는 템플스테이를 찾아 삶의 무게를 덜어보자.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어린이 프로그램

사찰명	전화번호	프로그램	일정	대상
강원 삼운사	033-241-1330	천태어린이 템플스테이	7월 일(2일간)	8~19세
강원 삼화사	033-534-7676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8월 6일(4일간)	초등학생
경기 보광사	031-948-7700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월 24일(3일간)	초등학생
경기 봉인사	031-574-5585	어린이 템플스쿨	7월 30일(3일간)	어린이
경기 용주사	031-239-9391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세상	7월 24일(3일간)	어린이
경기 육지장사	02-352-6406	가족과 함께하는 교감캠프	8월 22일(2일간)	초,중학생
경기 흥국사	02-381-7970	나누는 기쁨 여름불교학교	7월 25일(3일간)	3~6학년
경남 성주사	055-262-0108	보리수학교	7월 24일(3일간)	초등학생
경남 쌍계사	055-883-1901	자연과 하나되는 부처님세상	7월 24일(3일간)	7~13세
경남 옥천사	055-672-0100	어린이수련회	7월 29일(3일간)	8~13세
경남 표충사	055-352-1150	어린이 사명당	8월 10일(8일간)	초,중학생
경북 고운사	054-833-2324	소나무 향기와 더불어~	7월 24일(3일간)	초등학생
경북 골굴사	054-744-1689	화랑 청소년 수련회	7~8월	초,중학생
경북 기림사	054-744-2292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월 30일(3일간)	초등학생
경북 도리사	054-474-3737	여름불교학교	7월 25일(3일간)	9~13세
경북 직지사	054-436-6084	신나는 여름 부처님과 함께	7월 28일(3일간)	어린이
광주 무각사	062-383-0107	자연속의 나! 우주속의 나!	7월 27일(3일간)	9세~13세
부산 운수사	051-313-3300	산사 놀이터	7월 25일(1일간)	초등학생
부산 홍법사	051-508-0345	자연과 함께하는 부처님세상	7월 28일(3일간)	초등학생
서울 금선사	02-395-9955	한문학당	8월 7일(7일간)	3~6학년
서울 진관사	02-388-7999	부처님과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	7월 25일(3일간)	3~6학년
전남 대흥사	061-535-5775	제11회 어린이 숲속마을	7월 26일(3일간)	초등학생
전남 미황사	061-533-3521	한문학당	8월 6일(8일간)	5~6학년
전남 송광사	061-755-0107	참나를 찾아서	8월 5일(3일간)	3~6년
전남 심향사	061-334-2880	청련비천(푸른연꽃 하늘날다)	8월 1일(4일간)	누구나
전남 천은사	061-781-4800	불교환경연대와 함께하는 생태학교	8월 7일(3일간)	8~13세
전남 화엄사	061-782-7600	어린이불교학교	7월 26일(3일간)	3~6학년
전북 금산사	063-548-4440	청소년여름불교학교	7월 31일(3일간)	10세이상
충남 마곡사	041-841-6226	여름수련회	7월 31일(3일간)	초등학생
충남 부석사	041-662-3824	한문학당	7월 26일(7일간)	4~6학년
충남 수덕사	041-337-0173	선, 예절불교서당	8월 6일(3일간)	초등학생

여름수련회

사찰명	전화번호	프로그램	일정	대상
강원 구룡사	033-732-4800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7월 28일(4일간)	20세이상
강원 백담사	033-462-5565	소중한 참 나와의 대화T.s	7월 8일(3일간)	누구나
강원 법흥사	033-375-9173	여름수련회	8월 5일(3일간)	누구나
강원 월정사	033-339-6606	나를 찾으러 가는 길	8월 3일(4일간)	20세 이상
경기 봉인사	031-574-5585	선정과 지혜계발	7월 10일(10일간)	누구나
경기 용주사	031-239-9391	만남, 화합, 나눔	8월 14일(3일간)	청소년
경기 육지장사	031-871-0101	여름수련	7월 30일(4일간)	누구나
경기 전등사	032-937-0025	尋心(심심)풀이	8월 10일(4일간)	성인
경기 흥국사	02-381-7970	내안에 나를 찾아서	7월 32일(3일간)	성인
경남 쌍계사	055-883-1901	선(禪) · 다(茶) · 음(音)	8월 2일(4일간)	성인
경남 통도사	055-384-8380	감사하는 삶 행복한 만남	8월 13일(4일간)	성인
경남 표충사	055-352-1150	대나무 숲 참선	8월 1일(4일간)	20세 이상
경북 고운사	054-833-2324	참나의 발견	8월 2일(4일간)	20세 이상
경북 골굴사	054-744-1689	움직이는 선의 숨결		누구나
경북 은해사	054-335-3318	야호! 은빛바다를 날아라	8월 7일(3일간)	누구나
경북 직지사	054-436-6084	위빠사나 수행명상	7월 31일(7일간)	성인
대구 동화사	053-982-0223	여름 수련회	7월 31일(3일간)	성인
서울 길상사	02-3672-5945	주말템플스테이	매주말	일반인
서울 진관사	02-359-8410	마음 나누기	8월 6일(3일간)	17세 이상
전남 대흥사	061-535-5775	참선수련회	8월 8일(5일간)	10~13세
전남 미황사	061-533-3521	참사람의 향기	8월 15일(8일간)	20~65세
전남 백양사	061-392-7502	참사람 참선 수련회	8월 22일(8일간)	성인
전남 송광사	061-755-0107	참나를 찾아서	8월 1일(3일간)	중고생
전남 유마사	061-374-0050	이 길 위에서	8월 7일(3일간)	20세 이상
전남 화엄사	061-782-7600	여름 선수련회	7월 16일(4일간)	20세 이상
전북 금산사	063-548-4440	禪, 나를깨치다	8월 14일(7일간)	19세 이상
전북 실상사	063-636-3191	여름 수련회	8월 12일(4일간)	성인
충남 갑사	041-857-8981	진리를 찾아서	7월 27일(3일간)	초, 중학생
충남 마곡사	041-841-56226	몸짓, 언어, 마음정화	8월 21일(3일간)	누구나
충남 부석사	041-662-3824	청소년을 위한 참선수행	8월 4일(2일간)	중1~고3
충남 서광사	041-664-2001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	7월 27일(3일간)	중·고등학생
충남 수덕사	041-337-0173	선 수련회	8월 13일(4일간)	누구나
충남 영평사	041-857-1854	나를 깨닫는 명상	8월 10일(2일간)	누구나
충북 보탑사	043-533-6865	나는 지금!	7월 25일(2일간)	초~고등학생

2004년 시작해 세 번째 회향
덕양선원 다라니 10만독 성취 법회


덕양선원장 법상 스님(가운데)과 대다라니 10만독 성취 불자들.

신묘장구대다라니 전문 수행 도량 일산인 덕양선원(선원장 법상)에서 다라니 10만독 성취 제3차 법회가 봉행됐다. 대다라니 수행기를 모은 <기도의 힘>(우리글 刊) 출판기념회를 겸한 법회에는 대다라니 10만 독을 성취한 20여 불자 등 300여 신도가 동참해 용맹정진을 찬탄했다.

이날 선원장 법상 스님은 "2004년 9월 대다라니 독송수행을 시작한 이래 2007년 7월, 2008년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10만독 성취 법회를 회향한 불자님들의 열정과 정진의 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이러한 수행의 공덕을 군법당 및 공주교도소 후원과 경전 등 법보시로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수행담을 발표한 지음 김지선(25) 불자는 "무당이 되고자 신내림굿까지 했던 제가 대다라니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은 스님과 법우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이라며 "더욱 정진해 자성(自性)을 깨달아 삼보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발원했다.

2014년 100만독 회향을 목표로 정진중인 덕양선원에서는 이미 100만 독을 성취한 신도가 네 명이나 있다. 매주 목요일 오전 정진과 금요일 철야정진과 함께 정기법회(음 7일), 약사재일(음 8일), 초하루법회, 지장법회(음 18일) 때도 대다라니 108독 정진을 하고 있다. (02)3216-1118 **김성우 기자**

혜광불자회 대웅전 불사 '난항'
자금부족이 걸림돌

시각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기도도량 대웅전 불사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혜광시각장애인불자회(회장 김부봉, 이하 혜광불자회)는 10여 년 전 춘천시 오지에 가건물 수행공간을 마련하고 용맹정진 수행정진으로 시각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혜광불자회는 시각장애인 복지타운 불사를 발원하고 지난 10년간 바자회, 일일찻집 등으로 모금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올해 춘천시 남산면 일대에 만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대웅전 불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자금부족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 짓고 있는 수행도량은 후천성 실명자들에게 교육 및 직업알선, 무의탁 장애인 생활시설, 점자 경전 보급 등으로 복지사업에 주력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의지처이자 수행정진 기도도량이 될 전망이다.

전창응 상임법사는 "대부분의 장애인 시설은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불자 시각장애인들에게 수행정진을 할 공간 마련에 많은 불자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 민 은 행 006-01-0654588 (033)261-0667

이상언 기자

순국선열 호국영령 추모 잇따라
포교사단 묘비닦기 · 봉원사 영산재 시연 등

호국 · 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행사를 잇따라 개최했다.

조계종 서울경기 포교사단 환경팀(팀장 정의순)은 현충일에 앞서 5월 24일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용사묘지 헌화교체작업과 묘비닦기 청소'를 했다.

현충일에는 서울 신촌 **봉원사**(주지 일운)에서 영산재(靈山齋) 시연회가 거행됐다. 특히 올해는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을 추모하는 천도재가 함께 봉행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경기포교사단과 생명환경자연보호실천회 회원들이 현충원 묘비를 닦고 있다.

범패와작법무보존회(이사장 능화)도 같은 날 인천 현충탑 광장에서 무형문화재 전승공연의 일환으로 현충재를 봉행했다.

이어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도 '순국선열을 위한 합동 천도재'를 봉행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도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제19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개최해 호국영령의 잊혀진 넋을 기렸다.

서울 **은평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는 11일 서울 진관사에서 400여 사원연합회 스님, 노재동 은평구청장, 은평구청불심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민족통일불교경남협의회(회장 청화)는 13일 '제3회 한국전쟁 양산시 합동 위령 천도재'를 광주 신광사(주지 경주)는 19일 '순국선열 호국영령 추모재'를 통해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빌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죽음 생각하면 삶에 충실해져"
맹란자씨 특강

"삶 또한 자연이 아닌가?"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이 아닌 중국 철학자 육상산의 마지막 어구다.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이에게 과연 죽음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자신에 삶에 만족하며 존엄하게 죽을 수 있을까?

불교여성개발원(이사장 이은영) 웰다잉운동본부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영결식을 거행한 5월 29일 수필가 맹란자씨 초청특강을 열었다. <삶을 기억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저자인 맹란자씨는 특강에서 120명의 정치, 역사, 철학, 예술가 들의 죽음의 순간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소개하며 불자로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맹란자씨는 "죽음을 생각하면 삶에 충실해진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며 몰두하다가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며 "산다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아는 것으로 늙어가는 시간동안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죽음을 받아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노 前 대통령의 애도하는 것에 대해 맹란자씨는 "죄를 묻더라도 도덕적이 명예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언 기자

파라미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가 2009년도 청소년주간 기념 유공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1996년 설립 이후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증진과 바른 심성 계발에 대한 공적으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주간인 5월 넷째주 청소년 건전 육성과 보호 및 복지 분야 등에 표창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제4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오후5시 까지)

▶개 강: 매주 월요일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200만원
▶특 전: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현재 접수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여성, 부처를 말하다 ①

"출재가 함께 할 새 대승불교 운동 필요해"

강 사 : 도법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일 시 : 2009년 5월 29일
주 제 : 여성, 부처를 말하다
장 소 : 서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교육장
주 최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宋中印度三藏求那跋陀羅譯
如來眞實義功德章第一
如是我聞。一時佛住舍衛國祇樹給孤獨園。
時波斯匿王及末利夫人。信法未久共相謂言
勝鬘夫人是我之女。聰慧利根通敏易悟。
若見佛者必速解法心得無疑。宜時遣信發其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성을 교단에 받아들임으로써 깨달음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었다. 이러한 전통은 인도사회에 변혁을 유도했고, 이후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며 한국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불교는 한국 여성의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을 해내었던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오늘날 여성을 교단 내에서 소외시킨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 평등정신 하에 다시 재조명돼야 할 일이다. 불교의 균형 있는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 행복의 시작은 부처님 근본정신의 실천에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5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도법 스님과 함께 하는 '여성, <승만경>을 말하다' 강연을 연다. 도법 스님과 함께 여성과 불교의 관계를 재정립해보자.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마련한 강연회에서 여성 불자들이 밝게 웃고 있다.

불교는 이 세상 존재들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그 존재들을 빛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종교입니다. 그 존재들이 스스로 빛나게 하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를 비롯해 불교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승만경>을 공부한 적도 없고, 여래장 사상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왜곡된 불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개인을 벗어나 공식적인 체제에서 버젓이 이러한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조차 힘듭니다.

재가불자가 주인공이 된 경전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남성 재가자인 유마 거사가 주인공인 <유마경>과 여성 재가자가 주인공인 <승만경>입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승만경>을 통해 지금까지 평가절하 받아왔던 불교교단 내에서의 여성을 재조명하고,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한국불교는 여성 불자가 아니면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성 불자들이 승만 부인과 같은 역할로 깨어나 정법을 실천해야합니다. 여성 불자들이 이 역할을 하지 않고는 한국불교 오늘과 미래의 일을 풀어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불교는 그동안 출가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출가와 재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변의 많은 불자들은 불교는 알면 알수록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해외 유명대학을 나온 스님들도 불교는 만만치 않다고 토로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친근감을 느끼는 종교만이 살아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여실지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보고, 존재의 실상을 사실대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나무둥지 밑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는 나무가 존재하기 위한 태양과 달과 바람 등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땅속을 보면 흙과 미생물 등 온 그루가 다 참여해서 나무와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만 본다면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을 보면 실상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중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가르침을 귀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실지견은 이와 같이 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고 귀 있는 자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바로 지금 여기 현실에서 이뤄집니다. 10년 뒤 이뤄지거나 다른 곳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도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현실에서 이뤄지는데 왜 불합리하다고 의심을 하게 됩니까.

저는 불교를 어려워 할 이유도, 의심해야 할 이유도, 좌절 · 절망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특히 여성 불자들은 불교를 접하는 데 있어 모두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오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얘기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좌불와를 해야 한다. 3000배, 만 배를 하지 않으면 접할 수조차 없다. 중생은 모르고 깊은 경지에 가야 알 수 있다. 현재 불교는 사람들을 바보 멍청이로 보고 있습니다.

왜 경전이 만들어졌겠습니까. 부처님이 왜 법문했겠습니까. 부처가 된 사람들만 알아들으라고 만들어진 불교가 아닙니다. 중생들을 잘 이해시켜 깨달음에까지 가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10년 장좌불와 해야 알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이 한국불교에서 생활화 돼 있습니다. 이것을 깨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부숴가며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겁이 없어야 합니다. 상식과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삼고, 서로를 스승으로 삼고, 지금 함께 이해 할 수 있도록 경전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축제가 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셔서 하신말씀은 '천상천하유아독존'입니다.

보통 부처님의 출가는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해 출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반 대중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깨닫기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그 인생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천상천하유아독존'입니다. 즉, '유아독존'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도법 스님은 강연회에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불자들의 자각을 주문했다. 이날 첫 강연회를 시작으로 강연회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열린다.

'승만경' 통해 평가절하됐던 여성 재조명 · 새 역할 모색
"귀 있는 자 듣고, 눈 있는 자 보라"던 불법, 현실서 이뤄져

천상천하유아독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지금 여기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국가보다도 종교보다도 인연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 '나'입니다.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만큼 다른 너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귀한 존재이고, 너는 너에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무엇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기 때문에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야합니다. 자기 삶은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입니다. 그물의 그물코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 인생의 이웃이요 내 인생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불일불이(自他不一不二)를 말씀하셨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보십시오. 양손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둘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용맹 정진해야 알 수 있습니까. 불교는 이런 것입니다. 본래부처는 본래면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엄경>과 <법화경>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본래부처를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부처입니다. 부처답게 살면 됩니다. 본래부처이면서 다시 부처되려고 하는 것을 심우도에서는 소타고 소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업은 아기 3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업은 아기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100년을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기 찾는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아! 내가 소를 타고 있구나' '내가 아기를 업고 있구나' 깨닫고 행하면 됩니다. 절과 독경, 장좌불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이를 선사들은 '세수하면서 코만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있어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마시면 살아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자도 여자도 차이가 없습니다.

목말라 물을 마시면 10년 뒤 효과가 날까요, 지금 실현될까요. 바로 증명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첫 강의라 서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승만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승만 부인의 부모님인 파사익 왕과 말리부인은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도독원에 머무르고 계실 때 편지로 부처님의 공덕을 전했습니다.

승만 부인은 편지를 받고 "내가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일찍이 없는 것이니, 이처럼 진실한 분이라면 마땅히 공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처님 얘기만 듣고서도 감동한 것입니다. 우리 불교신자들은 스스로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신라 선덕여왕은 승만 보살의 원력으로 당시 삶을 산 인물입니다. 한국여성불교계가 승만 보살 운동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부처님 일천팔십분의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 전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62만원 상당)는 상담 후 일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 375,000원씩 분납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한 분 한 분 수작업으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이웃 종교 RELIGION

지구촌교회 8035명 장기기증 서약

하루만에 한 단체서 열린 캠페인 중 최고기록

한 교회의 장기기증예배에서 8035명이 동시에 장기기증 서약을 해 눈길을 끈다.

경기도 수지에 있는 지구촌교회(담임목사 이동원)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5월 31일 경기도 분당·수지 성전에서 장기기증 예배를 열었다.

이 날 예배에서는 지구촌교회 교인 1만6000여 명이 참석해 장기기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예배에 참석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 목사)는 "8035명이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한 기록은 본부 창립이래로 단일 단체에서 하루 만에 펼쳐진 캠페인 중 최고의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장기기증에 온가족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 받았다"며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구촌교회가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구촌교회 관계자는 "평소부터 사회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구촌교회는 특별히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자 장기기증 예배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동원 목사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해 하나님께서 지구촌교회에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작은 나눔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이 될 것이다. 복음과 함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지구촌교회의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1년 전 장기기증 예배를 열어 1200여 명에 달하는 교인들을 장기기증에 동참시켜 우리나라 교회의 장기기증 캠페인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이나은 기자

"'존엄사' 아직은 시기상조"

가톨릭 생명위원회 강론자료서 밝혀

5월 21일 법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가 입장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명위원회는 6월 3일 '존엄사'와 '존엄사법 제정' 논란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정리해 교구 사제들에게 강론자료로 배포했다. 이 자료는 미사 강론 등을 통해 신자들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마련됐다.

염수정 주교는 사제들에게 강론자료를 배포하는 공문에서 "'존엄사'라는 용어는 환자가 고통없이 존엄과 품위를 지니고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미화된 이미지를 풍기지만 실제로는 '안락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교회는 이 용어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 주교는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법' 제정은 용어가 정확히 정리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위적인 생명단축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차단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월 19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존엄사법 입법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위원장 장봉훈 주교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나은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불교계는?

'자본·의지·홍보' 부족… 인프라 구축해야

재가서비스 만족도 높고, 시설서비스는 집에서 가까워야 인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1년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시행 1년 만에 수급자들의 기능 상태를 크게 호전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그 동안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수급자들에게 갱신신청접수를 받아 조사·판정한 결과 등급하향(상태호전)23.9%, 변동 없음 66.4%, 등급상향 9.7%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안착이 돼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 불교계 복지현장에서는 어떻게 자리잡고 있을까?


교계 요양원의 한 요양보호사가 입소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부담 경감 위해 시설 선호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88.7%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각각의 만족도를 따졌을 때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다.

진각복지재단이 수탁운영중인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의 홍희자 과장은 "건보공단에서는 높은 만족도의 결과를 두고 제도의 도입이 긍정적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재가서비스의 성과에 치중한 것 같다"며 "많은 보호자들이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에 어르신들을 모시면 좋겠다는 민원제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의 시행으로 요양시설들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만 해도 시설 수가 부족해 대상자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요양시설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다.

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시설서비스가 공급돼야 하는데 요보호 대상자를 따라가지도 못할 뿐 더러 시설위치가 편중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시설은 48개 시군구에서 59개소에 불과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시설이용자도 편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6개 광역시에 있는 요양시설은 정원을 채우면서 평균적으로 수용가능 인원의 100%가 넘는 대기자 수가 있으나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불교 요양시설 전체 5%

2009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요양시설은 1877개로 집계됐는데 이중 종교시설이 576개, 비종교시설이 1301개였다. 현재 불교계 요양시설은 93개로 종교계 시설 비율로 따지면 16%, 전체 시설비율 중 5%에 불과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에 모실 수 있는 대상 노인은 2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60%가 재가 시설을, 40%가 생활시설을 이용하는데 약 9만 2000명의 노인이 생활시설에 입소해야 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재 불교계 시설 수용가능인원은 약 4700여 명, 3800여 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이 93곳 중 28개 시설 만이 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수용가능 인원을 다 채우고 있었다. 이는 실제 이용자들이 외곽의 요양시설보다 교통이 편리한 시설을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요양, 접근성 최우선 요소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은 입소시설을 선택할 때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건보공단은 "수급자는 입소시설 선택요건 중 시설의 환경상태보다 내 집과 가까운 곳의 요양시설을 선호하며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종교 여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급자가 생활권내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설이 부족한 서울·부산 지역 등 광역시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할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불교계 다각적 노인복지 절실

불교계는 이용자와 어르신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의 관계자는 "접근성을 고려해 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단을 초월해 복지포교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찰에서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선정해 건물을 매입,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포교활동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자본이 부족해 시설설립 및 운영이 어렵다면 신도회나 포교사를 중심으로 봉사단을 조직해 재가방문요양서비스(재가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아직 까지 복지를 전공해 복지를 포교로 인식한 스님들이 많지 않다"며 "교계 전체내의 의지부족, 정부의 시행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고령화 사회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을 맞으며, 수급자와 시설관련자들에게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불교계도 고령화사회 노인복지포교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Tip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 수발제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급여대상자 선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겨 1~3등급을 정한다.

경희의료원 불교실 개원

6월 5일 약사여래불 점안식과 함께 개원식 봉행

불심으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의 약해진 마음을 달래고 회복의지를 달래기 위한 경희의료원 불교실(법사 견허)이 개원됐다.

6월 5일 경희의료원 동관 5층에서 약사여래불 점안식과 함께 개원식이 봉행됐다.

개원식에는 연화사 주지 묘장스님, 경희의료원 관계자 및 봉사자 등 7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에 이어 경희의료원 사회복지회에 불우환자를 돕기 위한 자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불교실은 2007년부터 연화사(주지 묘장)에 자비원을 설립하고 조계종 복지재단의 간병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종교적 지지와 서비스, 간병봉사 등으로 신뢰를 쌓아 개원하게 됐다.

묘장 스님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경희의료원의 배려로 불교실 개원이 가능했다"며 "환자들의 쾌유를 위해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견허 스님은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교실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02) 962-6186

이상언 기자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과 최강의 양택 발복법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참나(여래장)의 즉각적인 발현법 완성!

수 천 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20년간의 시행착오와 숱한 임상을 통해 마침내 누구나 즉각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전신에 경락이 일거에 타통된다.

각종 암을 비롯한 당뇨, 고·저혈압, 아토피, 목·허리디스크, 척추측만, 자가면역질환 등등 거의 모든 난치성질환들이 단시일에 근치된다. 담석마저도 녹아서 소멸된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마음과 영혼의 장애가 치유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등의 심적 장애가 말끔히 해소된다. 특히 빙의, 귀접, 지박령 등등의 현상은 번잡한 절차 없이 원천적으로 해결된다.

참나(여래장)가 발현되면 최강의 양택발복능력자가 된다.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체험으로 증명된다.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본성을 관하는 비법!

부조화로 고통받는 존재의 구성요소들을 규명하고 조정하여 조화로운 상태로 환원하는 비법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1:1 방식으로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 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자살영가천도재(무료)

우리 곁을 스스로 떠난 노무현대통령님. 연애인들 및 기업인 그 외 많은 분들, OECD중 일등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은 누구의 책임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업이 많아 다음 생에도 과보는 계속 이어 집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여법한 스님의 법력에 의한 천도와 유족님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자살한 영가님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살위기자라도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창건한 사찰 '묵언마을'에서는 한 많고 불쌍한 자살영가 천도를 다음과 같이 무료 봉행하오니 자살영가와 인연이 있는 분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종교에 관계없이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많은 동참 서원합니다.

일 시 : 불기 2553년(2009년) 6월 27일 10시 30분 ~ 14시까지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1
주 최 : 한국불교태고종 묵언마을
집 전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상진스님
신 청 : 031) 672-3108. 카페(다음.네이버) "묵언마을"

buddhanews.com

'깨달음은 인식의 전환' 주장 제기

아태불교문화연구원 '불교의 인식과 언어' 국제학술대회… 라직 교수 '주목'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새벽별을 보는 순간, 정각(正覺)을 이뤘다고 한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요체는 과연 무엇일까? 중생이 곧 부처였다는 자각, 유아독존한 줄 알았던 존재가 상의상관한 연기(緣起)로 얽혀 있더라는 자각이 아니었을까? 한 마음 돌려 중생이 부처되는 자리,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하나된 자리를 바로 본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식의 전환'이었다.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 했다. 부처는 중생이 탈바꿈해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인식이 자성의 인식으로 완전 회귀한 존재일 뿐이다.

아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법산)이 5월 30일 동국대에서 '불교의 인식과 언어'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깨달음은 인식의 전환'이란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는 홀스트 라직 교수(오스트리아 비엔나대)를 비롯해 파리말 파틸(미국 하버드대), 맥가리티 앤드류 박사(호주 시드니대) 등 불교인식학 관련 해외석학들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홀스트 라직 교수는 주제발표 '현대불교학계에서의 불교인식론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발표했다.

라직 교수는 "불교인식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이타행의 보살도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서 인식과 논증을 수행과 연관지어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이라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5월 30일 아태불교문화연구원이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및 토론하는 홀스트 라직 비엔나대 교수(가운데)와 최종남 교수(왼쪽), 황순일 교수.

홀스트 라직 교수는 불교인식논리학파의 소의 논서인 <집량론(集量論)>과 저자 진나(Dignaga, 480~540)에 주목했다.

라직 교수는 "<집량론>이 저술되지 않았다면 인식논리학파의 전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거나, 애초에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극찬했다.

진나는 인도, 티베트 인식논리학자들에게 추앙받는 학자다. 진나는 어릴 적 친구였던 왕자를 만나 왕국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산속에서 금욕 생활을 하며, 오전에는 탁발을 했고, 오후에는 100여 권에 달하는 논서를 저술했던 인물이다. 그는 인식 가능한 대상을 자상(自相)과 공상(共相)으로 분류했다. 진나의 사상은 인식과 논증의 대주제에 따라 <집량론>에 집약됐다.

<집량론>의 저술 목적은 귀경게로 축약된다.

"바른 인식의 현신(現身)이시고, [모든] 중생의 요익을 바라시며, 스승이시고, 선서이시며, 구호자이신 부처님께 예경드리며, 바른 인식수단을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논서들에] 산재한 내 이론들을 집대성하기 위해 <집량론>을 저술하고자 한다."

이어 홀스트 라직 교수는 "진나는 인식과 논증의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함에 있어 '자신을 위한 추론'과 '타인을 위한 추론'으로 증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직 교수는 "비엔나대의 불교인식학 연구는 에리히 프라우발너에 의해 시작됐다"면서 "프라우발너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문헌 비평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비엔나대에는 프라우발너의 제자로 아포하론을 티베트역에서 완역해 낸 슈타인켈러 등 불교인식논리학에 관한 석학들이 있다.

파리말 파틸 교수는 '불교의 인식과 수행'을 발표했다. 파틸 교수는 "불교인식론자들의 견해가 수행에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파라밀 파틸 교수는 "진나를 계승한 법칭(Dharmakirti, 600~660)은 인도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사"라고 말했다.

파틸 교수는 "법칭은 <양결택론(量決擇論)>과 <집량론>의 주석서인 <양평석(量評釋)>등을 저술했다"며 "특히 <양결택론>은 유용한 것을 얻고, 유용하지 않은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 올바른 인식인지 알아야 함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저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라밀 파틸 교수는 "불교인식론자들의 연구는 종교적 추론과 철학적 분석을 위한 하나의 모범을 제시했다"며 "이 모범에 의거해 이성적인 사람은 언젠가는 일체지자(一切知者)가 돼 법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틸 교수는 "철학적 분석은 불교적 수행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맥가리티 앤드류 박사(호주 시드니대)는 '적호의 아포하론: 새로운 학설인가? 법칭 이론의 재해석인가?'를 발표했다.

앤드류 박사는 "불교의 아포하 논자들과 대론자 사이의 논쟁은 아포하론에 국한되지 않고 '타자(anya)'에 대한 규정 등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통일신라 마애미륵불의상 발견

문명대 東大 명예교수 "고석사서 확인"

일본강점기 석고가 입혀져 감춰졌던 통일신라시대 마애미륵불의상(倚像: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특히 발견된 마애미륵불의상은 현존 유일의 통일신라시대 미륵불의상으로 알려지면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6월 4일 "포항 고석사 보광전 마애불상의 석고를 제거한 후 살펴본 결과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마애미륵불의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명예교수는 "이번 고석사 미륵불의상은 고신라 1구(삼화령 미륵세존), 고려시대(법주사 마애미륵불)에 이은 3번째 미륵불의상일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유일한 미륵불의상으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문명대 명예교수는 이번 마애미륵불의상의 역사적 의의 등과 관련해 13일 오후 2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02)3673-3426 조동섭 기자



문명대 명예교수가 새로 발견한 포항 고석사 보광전 마애불상.

정운 스님 등 4명에 연구비 전달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6월 9일 오후 2시 서울 부암동 W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정운 스님, 이필원 박사(동국대 강사), 양승이 박사(방통대 강사), 표정옥 박사(서강대 강사) 4인에게 총 1400만원의 연구비가 전달됐다.

학술회의에서는 △조사선 성립에 대한 소고(정운 스님)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시문학의 전개형태 연구(양승이 박사) △불교축제가 현대사회에 함의하는 문화기호학적 의미와 대중성(표정옥 박사) △숫타니파타에 나타난 번뇌론과 수행론 고찰(이필원 박사)이 발표됐다. (02)734-9653 조동섭 기자

'요가학연구' 발간 한국요가학회

한국요가학회(회장 김순금)는 최근, 재창립 4년 만에 학술지 <요가학연구>를 발간했다.

책에는 '관찰하는 자기에 관한 고찰-심리학, 요가, 의식연구 접점의 모색' '하타요가쁘라디삐까 제3장 무드라의 국역과 주해' '인도철학과 해탈의 관계를 둘러싼 한 논쟁' '요가심리학의 개념과 전망' '일본의 요가학연구-현황과 연구목록' 등 논문이 게재됐다.

또 엔도 코우 교수(일본 아아치분쿄대)의 '요가의 신비체험과 지식'과 쿠모이 쇼젠 교수(일본 오타니대)의 '요가학파와 불교의 교섭' 등 해외학자들의 논문이 수록됐다.

조동섭 기자

"원효 사상 당시 유행 사상 집산물"

김원명 교수 한국불교학회서 주장

무애행으로 불교대중화에 앞장섰던 인물, <대승기신론> 등의 다수의 저술로 한국불교학의 독창성을 드높인 선지식. 성사(聖師)로 추앙받는 원효 스님의 사상이 당시 유행하던 사상 등을 수용해 이뤄낸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는 5월 30일 동국대에서 제49회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원명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주제발표 '원효 사유틀의 고유한 유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원효가 노장사상에 능통했다'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원효 스님은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불교철학자로서의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원명 교수는 "원효가 고대 한국말을 썼다는 사실로 볼 때 원효는 당시의 문화전통을 경험하며 살았다"며 "원효는 (노장사상 이외에도) 전통사상을 포용적인 자세에서 수용하는 등 이교 사상에 대해 열린 자세를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가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추대제와 선거제를 비교 · 연구한 결과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도솔계곡 등 명승 지정 예고

문화재청, 미황사 일원 등 6개소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6월 1일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등 6개소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은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고창 선운사 도솔천 내원궁과 도솔암 등 불교관련 문화재가 분포돼 있다. 선운산은 도솔산이라고도 했는데 둘 다 불도를 닦는 산이라는 의미다.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은 달마산 능선의 바위와 미황사가 남해의 섬과 어우러진 경승지다. 달마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자리 잡은 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 창건된 고찰(古刹)이다.

이날 문화재청이 명승 지정예고한 6개소는 2008년 광주, 전라도 지역의 명승자원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무주구천동 파회, 수심대 일원' '담양 식영정 일원' '담양 명옥헌 원림'도 지정예고했다. 조동섭 기자

"마음은 어떻게 움직일까?"

밝은사람들 6월 13일 학술연찬회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一切唯心造)'고 한다. 마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일까?

존재하는 듯 하지만 잡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마음을 주제로 학술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은 6월 1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초기 및 상좌부불교-미산 스님 △유식불교-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선불교-윤원철 서울대 교수 △서양철학-최화 경희대 교수 △정신의학-김종주 라깡정신분석연구소장 △인지과학-이정모 성균관대 박사 등 전문가들이 각각의 주제발표를 통해 마음의 작용에 대해 조명한다.

한편, 학술연찬회 발표자료집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운주사 刊)는 시중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02)926-8361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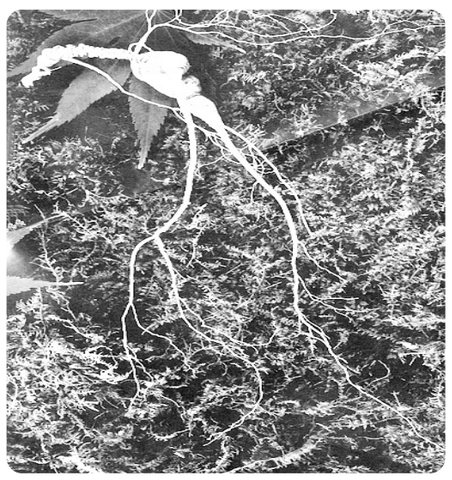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 마 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1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 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7월 10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일주문



생명나눔 소명교육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6월 11~12일 법련사 교육관에서 교계 복지현장가를 대상으로 소명교육을 실시한다. (02)734-8050



법주사 삼천대불 봉안식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6월 8일 법주사 경내에서 삼천대불 봉안 및 미륵대불 개금불사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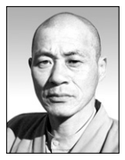
법흥사 약사여래불 점안법회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7월 19일 법흥사 제2보궁에서 약사여래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33)374-9177



백고좌법회 회향 보살계 수계법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6월 11일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을 계사로 백고좌법회 회향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53)766-3747



낙동강 수륙고혼 방생 천도법회

대구 달성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5월 30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산사음악회와 함께, 제2차 낙동강 수륙고혼 방생 천도법회를 열었다.



회당학원 개방이사 효심 정사 선임

진각종 행원심인당 주교 효심 정사는 5월 22일 회당학원 제377회 임시이사회에서 개방이사에 선임됐다.



금강대, 파구불대와 학술교류협정

천태종립 금강대 성낙승 총장은 6월 2일 타이완(臺灣) 파구(法鼓)불교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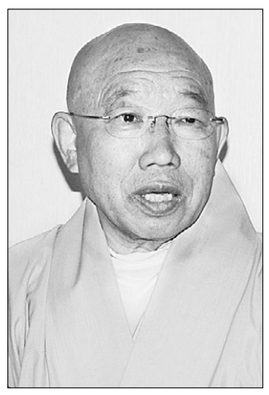
도와주세요 재생불량성 빈혈, 유나

초등학교 4학년인 유나는 2001년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멍도 잘 들고 코피도 자주 쏟아내 여느 아이들처럼 맘껏 뛰어놀지 못한다.

유나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다행히도 유나와 맞는 유전자 조직형을 가진 조혈모세포기증희망등록자가 우리나라에 7명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잠깐, 기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치료비만 4000만원 이상 든다. 생계보조금 70만원과 엄마의 수입 50만원으로 간신히 생활하는 유나네 가족에겐 버겁기만 하다. (02)734-8050 후원계좌 :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한국불교 1번지 위상 다지기에 총력"

취임 1주년 맞은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조계사 부채 74억원 중 지난 1년간 38억원을 상환했습니다. 불자님들의 이해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사진)이 6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사찰운영 계획을 밝혔다.

"조계사 주지로 부임할 당시 부지매입과 불사 등으로 적체된 부채로 사찰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의 간곡한 당부도 있어 재임 중 부채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추진해왔습니다."

취임 후 스님은 49재를 일곱 번 지내는 343일 조상천도법회를 봉행해 사중부채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계사가 영가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거셌다.

세민 스님은 먼저 신도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스님은 "영가천도는 죽은 이만 위하는 게 아니다. 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산 사람도 염불 등으로 수행하고,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등 큰 공부가 된다"며 "토지 매입 등으로 사중부채가 많다. 이것부터 해결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스님의 간절한 원력에 신도들도 마음을 보탰다.

지난 1년간 조계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343일 조상천도법회 등으로 도량에는 하루종일 기도와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10년 조계사 창건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8각10층 부처님사리탑 조성불사와 사적비 건립불사가 추진돼 7월 중 회향을 앞두고 있다.

작년 한해 불자들의 평상심을 뒤흔들었던 종교편향문제를 비롯해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등 대사회적인 문제와 종단의 각종 법회와 행사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국불교 1번지'에 걸맞는 위상을 갖춰왔다.

현재 조계사에는 대웅전 1700위 영구위패봉안 불사가 진행중이다.

6월 5일 1차 343일 조상천도법회 회향에 이어 7월 17일부터는 2차 343일 조상천도법회도 봉행된다.

세민 스님은 "1차 법화산림 천도법회에 이어 2차 천도법회는 화엄산림이 봉행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취임인사에서 사부대중에 밝힌 약속을 지키려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1년만큼 앞으로의 1년도 조계사의 안정과 위상 제고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어르신 요구 맞춰 발전해야"

서울노인복지센터 제4대 관장 가섭 스님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기존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6월 1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가섭 스님(사진)이 제4대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기존에 서울시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실버문화벨트 구축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착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연계해 진행하는 실버문화벨트 사업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허리우드 극장, 탑골 · 종묘공원에 이르는 지역에 마련되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비롯, 각종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상담센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 등이 형성된다.

가섭 스님은 "고령화사회를 살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에 맞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도 복지 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일문 스님이 일궈놓은 실버문화벨트 사업확장에 힘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 광주 불국사 주지인 가섭 스님은 2005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수료 후 서울구치소 교화위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인사 조계종 총무원은 6월 2일 호법과장에 호법부 상임감찰 법상 스님을, 불교신문 편집국장(권한대행)에 김선두 인터넷기획팀장을 각각 임명했다.

"자비행 만이 불교 살립니다"

광진구민대상 수상 법경 스님



"희생 없는 보상은 없습니다. 대가 없는 자비행 만이 불교를 살립니다."

6월 1일 '제14회 광진구민대상' 사회복지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법경 스님(능인정사 주지 · 사진)은 "많은 사찰들이 스스로 지역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며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40만 지역구민의 모범이 되는 광진인에게 주어지는 이 상을 스님이 수상하게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스님은 해마다 양로원, 경로당, 소년소녀가장 등에 쌀 500포대를 보내왔다. 1988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보낸 쌀은 만 포대를 넘는다. 겨울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승려로서 연탄 배달 등도 마다하지 않았다.

강산이 두 번 바뀐다는 20년 세월에도 지속된 스님의 발심은 어떤 연유일까.

스님은 "1986년 능인정사 개원 전에 폐결핵 4기 판정을 받고 많이 아팠다. 그 힘겨운 고비를 넘기니 동체대비가 와 닿았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후 절 불사보다 어려운 이웃돕기에 나섰다. 능인정사는 작은 포교당에 불과하지만 광진구민의 마음에는 으뜸가는 사찰이다.

큰 병을 앓았던 스님은 2005년부터는 건국대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를 맡아 환우들에게도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능인정사 새벽 예불 후 스님은 아침 7시부터 병원으로 가 중환자실 등을 돌며 환자들의 마음병까지 어루만지고 있다. 이러한 스님의 노력으로 능인정사는 1995년 성동구민대상과 2004년 서울시 봉사대상 등도 수상했다.

신도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 스님은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포교"라고 재차 강조했다.

스님이 받은 사회복지 대상과 더불어 이 날 오후 능인정사 신도 8명이 광진구청장 표창을 받아 기쁨을 더했다. 노덕현 기자

동성 스님 자비나눔 기금 삼천만원 전달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동성 스님은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에 불교신문사 50주년 선화전 수익금 3000만원을 자비나눔 기금으로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목인갤러리서 원담 스님 선시화전 개최



수덕사 서울 포교당 대륜사(주지 일연)는 6월 3~9일 서울 목인갤러리에서 '원담 스님 추모1주기 기념 선시화전'을 개최했다. 4일 기념식에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 환희대 월성 스님, 동국대 김대열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사 청년회 창립 32주년 체육대회



조계사 청년회(회장 김영선)는 5월 31일 서울교동초교에서 창립32주년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300여 회원과 가족들은 족구, 발야구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화합의 장을 펼쳤다. 이상언 기자

영산재보존회 노 前 대통령 위한 진혼재 올려



성각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은 5월 3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시민분향소에서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원혼을 달래는 진혼재를 올렸다. 시민 3000여 명이 고인의 넋을 기렸다. 노덕현 기자

이병욱 환경차관 운문사서 '녹색성장' 강연



환경부 이병욱 차관은 6월 4일 청도 운문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 대구 지방환경청 이상팔 청장등 스님 200여 명이 운문사 생태보전을 논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FAX 032)349-0665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소는 http://www.yuma119.com 입니다.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 식 제 공

종도모집 안 내

대한불교 선밀종

밀(密)로서 점수(漸修)하고 선(禪)으로 돈수(頓修)를 하며 대중불교를 지향하는 본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중진 간부스님 및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식품사업부 지사 및 대리점 모집
국제 / 국내 특허제품 다수 보유. 건강식품 및 음료사업 유 경험자

출판사업부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스님 및 사부대중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주)자운 식품사업부
www.jawoonfood.co.kr
053)311-2675.2676

대한불교선밀종 총무원
전화 053)311-2677 / 010-3134-8484 / FAX 053)311-2634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번지 (2-3층)





고요한 시간 속의 동화사

세월도 잠시 쉬어가네 뭇생명이 시름 놓으니

태양이 뜨겁다. 전각들마다 짙은 그림자가 매달리고, 법당에서 나온 행자는 향냄새를 남기고 지나간다.
봉서루 앞 느티나무는 넉넉하게 그늘을 드리우고, 그늘 끝에서는 솔바람이 불어온다.
그 옛날, 겨울에 오동나무 꽃이 피었다는 동화사다.

금당선원 앞에 선다. 부서진 석탑 끝에서 떨어져나간 시간들이 선원 문 앞을 지키고,
보물이 된 당간지주 꼭대기엔 문자로 남지 못한 세월들이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다.

빛깔 고운 산새 한 마리가 물가로 내려와 마른 목을 적신다.
포행 하던 스님도 물가로 내려와 연못 속의 물고기와 눈을 맞춘다.
내려놓은 스님의 시선이 물고기가 만든 작은 파문을 따라 사라지고,
목을 적신 산새는 숲으로 돌아간다.

고요한 시간이 흐른다. 해탈교 위의 두 스님은 아득해질 시간 속을 걷고,
해탈교 밑엔 소원 담긴 동전들이 아쉽게 반짝이고 있다.
법당 앞에 남기고 간 행자의 향냄새가 솔바람에 날아가고,
느티나무 그늘에서 쉬던 행자는 다시 법당으로 간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동화사는…

493년(신라 소지왕 15년) 극달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라 부르다가 832년(신라 흥덕왕 7) 심지대사가 중창할 때 오동나무가 겨울에 상서롭게 꽃을 피웠다해 동화사라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여덟 번의 중창을 거듭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각들은 조선 영조 때 지은 것이다. 6점의 보물 문화재가 있으며, 1992년 완성된 약사통일대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동사리함 등을 복장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관세음보살’ 일심 염불로 청정 생활”

부산 삼광사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결제… 3년간 30여 사찰서 기도

대한불교천태종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2011년까지 천태종 전국 사찰에서 릴레이로 이어지는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의 결제식이 부산 삼광사(주지 화산)에서 봉행했다.

삼광사는 6월 1일 오전 10시 삼광사 지관전에서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결제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는 1만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지관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봉행사, 청법가, 정산 총무원장 법문, 발원문, 관음정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화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에 연화개니라’는 법어처럼 일심청정 마음 청정이야말로 역대 제불조사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자 불교의 기본적 철학이며 수행의 요체”라며 “백만독 정진 백일기도로 모두가 불성의 꽃을 피워 자신은 물론 세상을 밝히고 이롭게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결제식이 1만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6월 1일 부산 삼광사에서 봉행됐다.

이번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는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이 되는 2011년 12월까지 부산 삼광사를 시작으로 서울, 대구, 대전, 인천, 울산 등 전국 천태종 사찰 30여 곳에서 릴레이로 시행될 예정이다.

삼광사는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월~토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시행한다.

100만독 관음주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매일 5시간 수행을 기준으로 약 100일이 소요되며, 동참한 모든 불자에게는 천태종 종정스님이 증명하는 수료증을 지급한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100만독 관음주송’을 하다 보면 내공과 외공이 쌓여 마음의 경계가 새롭게 열리고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헤쳐 나갈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노 前 대통령 ‘추모 열기’

통도사 · 범어사 · 정토원 등 49재 봉행

부산 · 경남 지역 각 사찰에서 앞다퉈 분향소를 마련해 노무현 前 대통령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지역 장벽을 넘고자 가시밭길을 걸었던 노 前 대통령의 고향이었던 부산의 각 사찰은 분향소를 마련하고, 49재를 봉행하며 추모하는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된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정토원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노무현 前 대통령의 49재를 봉행하며, 집전은 김해불교사원연합회(회장 지현)가 맡는다. 3재부터 대덕스님의 초청 추모법문을 준비 중이며, 7월 10일 회향법회에는 대중이 동참할 수 있는 대규모 법석을 준비 중이다.

부산 포교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법도량(의장 심산)은 전 회원 사찰에서 릴레이로 49재를 올린다. 6월 5일 오후 7시 대광명사(주지 목종)를 시작으로 3재 혜원정사(주지 원허), 4재 홍법사(주지 심산), 5재 수도사(주지 일철), 6재 동명불원(주지 정산) 등의 차례로 이어지며, 막재는 지장재일로 전법도량 전 회원사찰에서 동시에 올려질 예정이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생전예수재와 함께 노 前 대통령의 49재를 함께 올린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와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 하동 쌍계사(조실 고산)는 7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49재를 지낸다.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만불전에서 6월 25일까지 노 前 대통령의 영정과 위패를 함께 모시고 49재를 봉행한다.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5월 24일 추모법회에서 법어를 통해 “고인의 말씀처럼 우리 생명은 자연의 일부이며 궁극에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며 “연꽃처럼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서 갖가지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기원하자”고 설했다. 박지원 기자

낙동가족축제 6월 13일 열려

진각복지재단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은 6월 13일 제11회 낙동가족축제를 개최한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가족의 행복한 화합을 위해 매년 실시된 이번 축제는 1부 ‘그림 · 글짓기 대회’, 2부 ‘도전! 독서퀴즈 골든벨’ 순으로 진행된다.

1부 ‘그림 · 글짓기 대회’에는 오전 9시부터 지역 내 유치원생 · 초등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다. 우수작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으로 선정하고 총 70만원 상당의 부상을 시상한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참가자 전원에 기념품을 제공한다. 2부 ‘도전! 독서퀴즈 골든벨’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초등 4~6학년 100여 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독서퀴즈 출제도서는 <15소년 표류기> <반딧불이의 무덤> 등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발해 총 3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051)271-0560 박지원 기자

“귀한 인연 맺어 미래 지도자 양성”

14년 전통 ‘일념장학회’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공식 설립

부처님을 기르는 마야부인들의 모임 ‘일념장학회’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에 공식 설립되면서 제2의 도약을 맞이했다.

(재)일념장학회는 14년간 승가대학 및 종립학교 재학생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해온 비영리단체로, 지난 4월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에 같은 이름의 일념장학회를 설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4월 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 2층에서 열린 ‘동국대 경주캠퍼스 일념장학회’ 설립회의에서 일념장학회 이영채 이사장,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부 운영규칙과 장학금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앞줄 가운데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 우측이 이영채 일념장학회 이사장.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학내에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념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일념장학회는 장학기금 마련 및 장학생 선발권을 갖고, 성적이 우수한 스님과 불자 장학생들을 후원하게 된다.

설립 3개월째를 맞은 현재 약 1억3000만원의 장학기금이 모였으며, 첫해 장학기금 2억원을 목표로 후원자 찾기에 나섰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대외협력단 관계자는 “큰 뜻과 정성으로 보내주신 기금들은 동국대학교의 미래발전에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많은 성원을 당부했다.

일념장학회 이대원행 이사장은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 불성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레는데 여기에 일념장학회가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단순한 장학금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불연을 맺어주고,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끌 스님 한 분을 키우고 있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분들이 장학기금 마련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념장학회에 후원한 기부금 전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054)770-2100 박지원 기자

“중도로 나아가기를 서원…”

차득근 교수, 부산 교불련 7대 회장 취임

부산광역시 교수불자연합회의 제7대 회장으로 차득근 교수(동의대학교)가 선출됐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차득근 교수(동의대학교 · 왼쪽)가 前 회장 하만경 교수(부경대학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부산 교수불자연합회는 5월 29일 오후 6시 코모도호텔 2층 해마루 홀에서 열린 제7대 회장 이 · 취임식에서 전임회장 하만경 교수(부경대학교)에 이어 차득근 교수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차득근 교수는 취임사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은 이때 제7대 회장 일을 맡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어깨가 무겁다”며 “모든 상(相)이 상(相) 아님을 여실히 보고 양변에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서원한 불교정법의 선도자인 전 회원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2년 임기 간 사업목표로 △각 대학 교수불자회의 긴밀한 협조관계 확립 △불교학생회 적극 지원 △불교 관련 학문활동의 출로 모색 △집중수련법회의 정례화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 미룡사 주지 정각 스님 및 역대 부산 교수불자련 회장 및 임원진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안내



[장한빛 仙師]
-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암등 난치병 공동연구
-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 과정 교수역임
- 애타게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 23년이란 오랜 세월 속에서 마침내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습니다. 의학의 본고장 독일에서(EastWest Alternative medical center) 세계최강, 최고수 의술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제는 5000년 단군역사이래 東西洋의 의학교과서를 새로써야 할 때입니다.
• 그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분야별 최고수(선지식)들을 만나 醫道와 仁術을 깨우쳤고,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수백 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와 난치성희귀병 (파킨슨, 아토피, 간질, 치매 등) 환자를 상대로 고귀한 임상체험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비법을 축적해 왔습니다.
• 群盲撫象이요 管中窺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만의 잣대로 虛空을 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最高手라고 생각되어 한수 배우려고 찾아갔다가 돈과 시간만 허비한 채, 괘씸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씁쓸한 지난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名實공히 세계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최상의 活人기술임을 세상에 알리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수해드리고져 합니다.
• 교육기간동안 각자가 모시고온 환자를(어떠한 난치, 고질, 희귀병 환자도 관계없음) 대상으로 實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단기간 내 완벽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전수교육 일정을 5박6일간으로 최대한 축소, 단축하여 시간과 재화의 낭비를 줄이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침술, 교정법, 경혈 등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완전 초보자부터 침술 등 대체의학 전통의술 30년 大家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전수 가능 하도록 복잡한 이론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기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 본 전수교육을 수료한 분들에게는“제 3의학 아카데미”평생회원증을 발급하여 정기적인 학술모임을 통해 각자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더욱 체계화 된 완벽한 활인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학술적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 昨今의 우리나라 대체의학 전통 민중 의술의 현주소를 바라볼 때, 재야의료인의 한사람으로 비애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개인의 의술과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해도 현행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법상 저촉이 되면 엄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운영의 妙를 잘 살리시어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 본 활인비법은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弟者 세계최강, 최고수 활인비법전수/ 宇宙命理思想, 秘方침술正骨整体 등 자연의학,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주경야독하면서 醫通君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구합니다.

전수교육 내용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1〉正骨整體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2〉正血淸血 :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3〉正氣(通經活絡) : 전신의 氣가 疏通해야 無病長壽 (氣塞則死)

▶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 修練院 (전등사인접)
▶ 교육기간 : 5기 _ 6월 15일~ 6월 20일 [5박6일] (선착순 12명)
6기 _ 7월 6일~ 7월 10일 [5박6일] 〃
▶ 전수교육비 : 200만원 (숙식제공) 농협) 136-12-537835 (예금주:김재정)
1, 2, 3, 4기 수료생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최 : 제 3의학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후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 지원센타 (피부, 비만, 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지부설립문의)

시간을 낼수 없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의사, 한의사 및 스님, 목사님들을 위한 주말반(매주 토 13시~ 일 17시) 교육을 별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 6월 20일(토) ~ 21(일) 선착순 12명

안내 문의 www.HANVIT.tv 전국대표 ☎ 1588-7638

내과적영역 초, 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턱관절장애, 백내장, 아토피, 건선 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물혹 (파킨슨,루게릭은 임상중)
※ 10년~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10회의 시술로 사라집니다.

외과적영역 경추디스크,허리디스크,안면마비,모든 종류의 두통, 삼차신경통,좌골신경통,골반통,항강통,어깨결림,오십견,테니스,골프엘보우,수족마비,척추관협착증,강직성척추염,3.4기골다공증,하지무력증,통풍,류마티스,퇴행성무릎관절염, 악성무좀,중풍후유증,뇌성마비,생리통,채머리증,수전증,족저통,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20년 이상 된 묵은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즉시 90%이상 사라집니다.

•참가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상담환영) 물리치료사, 중의사, 침, 뜸, 부항사혈요법사, 수기치료사(지압, 카이로프락틱, 추나요법)등 재야의료인, 氣치료사, 스님, 목사님, 태권도,합기도,체육관,수련원, 단식원,의료기홍보관 운영자등 웰빙 건강사업 종사자, 대체의학 및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

"차나 한 잔 마시게" 다례연 열려

화순 쌍봉사, 조주 · 철감 선사에 차 공양… "큰스승 가풍 이어 정진"

조주 선사와 철감 선사의 '차나 한잔 마시게(喫茶去)'의 법연을 나누기 위한 다례연이 열렸다.

화순 쌍봉사(주지 영제)는 6월 2일 철감 선사와 조주 스님의 영정이 모셔진 호성전(護聖殿) 앞에서 차(茶)를 공양하는 다례제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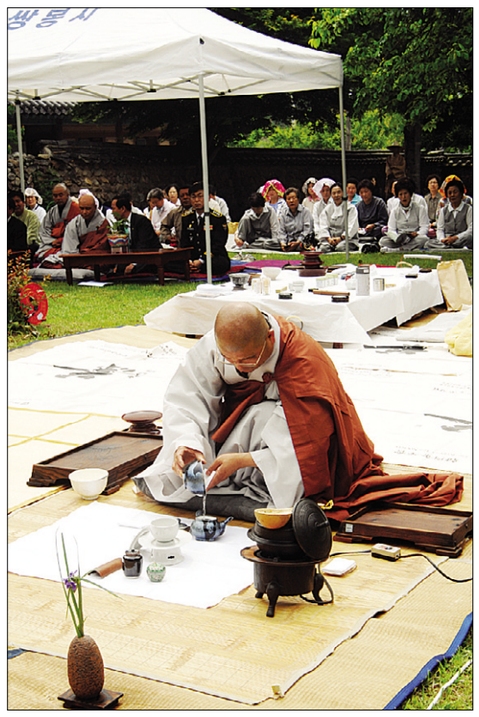
행사에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석정원 원장 선혜 스님을 비롯해 전완준 화순군수, 홍이식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성채 화순경찰서장, 정찬주 작가와 신도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영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쌍봉사는 예로부터 호남 불교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유서 깊은 사찰"이라며 "큰스님의 덕을 숭상하고, 차연을 베푸는 다례제를 통해 부처님의 참뜻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송광사 방장스님이 두 큰 스승의 영정을 모신 것에 대해 칭찬을 해주었다"며 "큰스승들의 가풍을 쌍봉사에서 이어받아 더욱 정진하는 사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격려사에 앞서 정찬주 작가는 다례제의 취지와 철감 선사 행장을 소개했다.

정 작가는 "다례제는 고승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차를 올리고, 차를 나눠 마시는 행사"라며 "특히 철감 선사께서 중국의 남전 선사 회상에서 정진하실 때, 누가 불법을 물으면 '차나 한 잔 마시게'라고 대답했던 조주 선사와 함께 공부한 인연을 되새기며, 귀국 후 호남에서 법연을 펴신 큰 공덕에 감사하고자 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6월 2일 화순 쌍봉사에서 봉행된 다례제에서 석정원 원장 선혜 스님이 행다를 하는 모습.

법요식에 이은 헌공의식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차인인 선혜 스님의 행다로 대웅전 부처님과 철감 선사, 조주 선사 순으로 헌공, 다게, 퇴공음다(음복)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호성전에 모셔진 철감 선사는 신라 헌덕왕 7년(815)에 서울에서 출생, 18세에 김제 귀신사에서 출가해, 28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남전 선사의 제자가 됐다.

철감 선사의 스승인 남전 선사는 제자들이 "불법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평상심이도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유명한 선지식이다.

철감 선사는 스승에게서 "나의 법인(法印)이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하고 인가를 받고 50세에 귀국, 신라 경문왕의 청을 받아들여 이곳 화순 쌍봉사에 내려와 후학을 지도했다. 이후 스님은 경문왕 8년(868)에 71세로 열반에 들 때까지 쌍봉사에 주석했다. 쌍봉사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도로 손꼽히는 철감선사 부도(국보 제57호)가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성 조사 탄신

죽림정사서 봉찬법회



백용성조사탄생성지 전북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5월 31일 용성 진종조사 탄신 제146회 봉찬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원두 스님, 대흥 · 지유 스님, 정토회 회주 법륜 스님, 유수 스님, 환희 스님 등 30여 스님들과 (사)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김상두 이사장,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한명옥 회장을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법회에서 도문 스님은 "용성조사의 5대 수행을 통해 진실한 본성을 깨달아 성불인연을 지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죽림정사는 봉찬법회에 앞서 조사전인 용성교육관에 봉안된 7여래불 69조사 7대사의 다례제를 함께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권도 수련하는 템플스테이

무주 안국사 6월 13~14 · 20~21일

템플스테이가 국민적 휴양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를 접목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무주 안국사(주지 도안)는 6월 13~14일, 20~21일 2차례에 걸쳐 제2회 태권도 수련과 함께하는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제13회 반딧불 축제의 하나로 안국사와 무주군이 함께 마련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잊혀진 전통문화의 향훈과 자연과 하나된 마음을 통해 본래 내 모습을 찾고자 마련됐다.

'태권도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는 적상산 안국사에서 태권도 수련은 물론 사찰예절과 예불, 참선, 명상, 발우공양 등의 불교문화체험과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적상산사고 견학 등 역사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국내외 태권도인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산사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박2일 진행되는 '태권도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의 참가비는 1인당 2만5000원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제13회 무주반딧불축제 반딧불이 생태관과 반디랜드 입장료 50%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태권도 도복은 무상대여할 수 있다. (063)322-6162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포교사단, 예비포교사 연수교육

전북포교사단(단장 김진수)은 5월 31일 전북불교회관에서 2009년 예비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33명의 대상자중 26명이 동참한 이날 연수는 5월 10일 '사회복지의 이해' '사찰문화해설' 강의에 이어 강홍원 포교사단장, 양성홍 전 단장 등이 강사로 나서 스피치 교육과 포교방법론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북포교사단은 예비포교사들에게 매월 각 1회 이상의 사회봉사활동과 사찰봉사활동, 염불봉사활동, 자체의식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예비포교사들은 9월 정식으로 포교사 품수를 받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파견까지

고창복지관, 원광보은의집 등과 취업연계협약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운영하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6월 1일 사회복지법인 한울안에서 고창원광보은의집, 고창효도의집과 함께 요양보호사 취업연계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 교육수료자 고용확약, 현장실무교육 및 강사파견, 인력양성교육과정 정보 공유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 협약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도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2009년 지역고용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고창지역 내 실직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여성 100명에게 무료로 교육의 기회를 주며 교육후에는 취업을 연계하는 원스탑(ONE-STOP) 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무공 스님은 "앞으로 지역 내 더 많은 요양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활기찬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은민양 추모법회

지난 4월 불교학생회의 현수막 작업을 하다 사망한 故 김은민(조선대 미술학과)양의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환)는 5월 30일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에서 '대불련 김은민 법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 스님과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 스님을 비롯해 故 김은민 법우의 가족 그리고 대불련 회원과 동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북포교사단 김진수 단장

익산불교 야전사령관… 포교시스템 구축하고파

30만 익산시민 가운데 개신교 신자는 1/3인 10만 명이 넘는다. 게다가 익산은 원불교의 본산이다. 개신교 신자들과 원불교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익산 지역에서 불교활성화와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사진)을 김 단장의 건설회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진수 단장은 "1년 365일중 200일을 불교 관련 일을 하며 지낸다"고 말하는 일꾼이다. 익산지역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곳이면 늘 어김없이 나타나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 야전사령관 같은 존재이다.

김 단장의 포교에 대한 원력과 활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북 포교사단장 소임 외에도 익산관음사 일요법회, 군산 교도소 법회, 군법당, 이리불교대학,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등 김 단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포교현장 뿐만 아니라 익산 지역 사찰의 어려움을 살피고 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익산지역의 불교행사에 관청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그의 도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교도소 교화도 빠지지 않는다. 김진수 단장은 1990년 군산교도소 교정교화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군산교도소 법회를 시작했다. 20여 년 세월이 지났지만 매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불자 재소자들의 교화활동에 매달려 있다. 재소자들이 기술을 익혀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정비 교육 등에 힘써왔다.

김 단장이 1995년 수상한 법무부장관 표창은 그의 열정과 업적을 가늠케 한다.

김진수 단장은 군포교에도 빠지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 김 단장을 만나려면 "군법당에나 가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 젊은 불자장병들을 위해 법회를 연 것도 20년이 넘는다. 군 불자 장병들에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혹은 큰 형처럼 장병들을 대하기 때문에 김 단장이 방문하는 날이면 법당은 장병들로 가득 메워진다.

"불자라면 불교를 바로 알고 실천해야 진정한 불자입니다."

김진수 단장을 이끈 힘은 이 소신이었다. 1990년 당시 관음사 주지인 일화 스님과 관음사에 이리불교대학을 개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도 이리불교대학의 부학장 소임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 또 신도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음사 주지 덕림스님과 함께 매주 일요법회를 주관해 불자들의 양적 질적으로 성숙된 신행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

불사에도 빠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불사한 관음사 건물이 낡아 불자들이 불편해하자 관음사 법당 신축불사에 집행위원장으로 화주역할을 자처해 현재의 3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2001년 조계종에서 수여하는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 단장은 2008년부터 전북 포교사단을 맡아 전북 지역 곳곳의 포교현장을 누비고 있다.

"익산불교의 포교1번지로 삼을 관음사 불교회관을 건립해 불교유치원, 어린이집, 불교장례예식장을 설립하고, 불교문화강좌를 개설해 익산 시민들에게 불교가 자연스럽게 접근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원력을 세우고 쉼 없이 정진해 온 김진수 단장은 전북 지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과 같은 보배로운 원력보살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상품설명
다완 이란? 다완(茶碗, tea bowl)은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잔 또는 사발을 의미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大20,000원/中10,000원/小5,000원


둥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흰꽃접시
판매가 45,000원


다완(완-10)
판매가 60,000원


다완(완-8)
판매가 100,000원


다완(완-5)
판매가 6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大 40,000원 / 小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大 60,000원 / 小 40,000원


벚찌화병
大 100,000원 / 小 80,000원


보리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 e장터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검색하세요.

‘법’ 이 하나여서 예와 지금도 둘이 아니다

⑭ 월정사, 근원에서 희망을 긷다



전나무 숲 속의 월정사 부도밭(왼쪽)과 상원사 한암 · 탄허 · 만화 스님 부도 및 탑비.

전나무 숲 속 부도밭 거닐며 ‘침묵의 설법’ 들어

한암 · 탄허 스님 탑비엔 재가제자들 이름 즐비… 정진 도량의 면모 보여

지장암 성진 스님 부도 연꽃 모양으로 조성 ‘특이’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서 들이 마시는 초여름 아침 바람은 단맛을 냅니다. 박하사탕을 다 먹고도 오랫동안 입안이 시원하듯 전나무 숲길에서 마시는 바람은 한참이나 머리를 선선하게 합니다. 그 단맛은 팔각구층탑 모서리에 달린 풍경을 뒤흔드는 바람에도 스미어 있습니다.

탄허 스님의 호방한 서권기가 묻어나는 현판과 주련으로 장엄된 적광전에 들어섭니다. 왼쪽 문 옆 영단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사진을 중앙에 모시고 하얀 국화꽃이 둘러져 있습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가 받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월정사 부도밭(강원도문화재자료 제42호)은 상원사 방향으로 500m 쯤 올라가면 길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전나무 숲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부도밭입니다. 높이가 2m를 넘는 커다란 석종도 있고 키가 낮은 석종, 균형을 잃고 삐뚜름하게 서 있는 석종도 있습니다. 최근에 모신 살결이 뽀얀 팔각원당형의 부도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월정사 부도밭은 예와 지금의 스님들이 함께 모여 시공을 초월한 법담을 나누는 지대방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법담은 귀로 들을 수 없으니, 부도밭은 고요 이전의 고요속에 잠겨 있을 뿐입니다. 포르르 날아가는 산새의 날개 소리도 순식간에 고요 속으로 스며버리고 투둑 떨어지는 전나무 마른 가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닥에 뒹굽니다. 월정사 부도밭은 고요의 잔치마당입니다.

부도밭은 4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윗단의 오른쪽에는 키가 2m를 넘는 웅장한 석종이 4기나 이어져 있습니다. 옆으로 작은 빗돌받침이 이끼를 뒤집어쓰고 있는데 석종의 몸통에서도 주인의 이름을 판독할 수 없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스님들의 사리(영골)를 모신 것으로 짐작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웅장한 석종을 조성할 정도면 당대의 큰스님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개산조 자장 율사(590~?) 시대 이후로 월정사의 역사가 그리 자세히 전하지 않으니 옛 부도의 주인들을 알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한국전쟁을 맞아 온 도량이 화마를 피하지 못했으니 그 경황없는 가운데 누가 ‘역사’를 챙겼겠습니까?

부도밭은 바람에 뜯기고 비에 씻기며 이름 자국마저 잃어버린 옛 부도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끼 서린 옛 부도들이 아무 말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도밭은 웅장한 설법전입니다. 월정사 부도밭도 오랜 석종들에서 울려 퍼지는 법향이 그윽하기만 합니다.

상단의 중간과 왼쪽에는 높게 쌓은 기단위에 큼직한 석종을 올려 모신 부도가 왼쪽에 탑비를 대동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석종과 탑비는 보문당 현로(玄路) 대선사의 것이고 그 옆은 혜원당 희섭 대화상이 주인입니다. 희섭(喜燮, 1922~1993)대화상의 탑비는 2000년에 세웠는데 지관 스님이 찬했습니다. 희섭 스님은 일제의 교육을 거부하고 한학을 배우다가 탁발승을 만나 불교에 뜻을 두게 됐습니다. 36세에 집을 나와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다가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친견하고 보문당 현로 스님의 상좌로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탄허 스님으로부터 경을 배우고 한암 스님에게는 선풍을 이어받았다는 내용들이 탑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도 옛 석종들이 즐비한데 서은당(西隱堂) 해봉당(海峯堂) 묵암당(墨巖堂) 등의 이름이 보이지만 어떤 분들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단에도 왼쪽으로부터 이름 모를 석종들이 5기나 이어져 있고 그 옆에는 이 부도밭에서 가장 큰 석종이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뒤편에 ‘선종인허당대사(禪宗印虛堂大師)’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특이하게도 석종의 몸돌 전체에 글씨를 새겼던 흔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흔적인지 총알자국도 몇 군데 보입니다. 아, 이 거대한 석종은 온 몸에 주인의 한 생애를 문신해 있었지만 바람에게 한 톨씩 몸을 뜯기고 씻기며 그 내력을 다 잃어 버렸던 것입니다. 거기 총탄을 맞는 아픔까지 안으로 삭히며 부도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와 지금이 둘이 아닌 것은 ‘법’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랫단의 오른쪽에는 높다란 기단위에 윗부분이 움푹한 모양의 석종이 덩그렇게 모셔져 있는데 몸돌에는 ‘지암대종사탑(智庵大宗師塔)’ 옆의 탑비에는 ‘지암대종사사리탑비’라는 글씨가 활달하게 쓰여 있습니다. 비명을 지은 탄허 스님의 글씨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암당 종욱(鐘郁, 1884~1969) 스님은 13세에 강릉 명주사로 출가 했으며 명진학교에서 공부 한 일, 3 · 1운동 참가와 27결사대 조직 등 각종 독립운동에 힘쓴 일, 상해 임시정부 요인 등으로 활동하다가 옥고를 치른 일, 월정사 주지로서의 업적 등이 탑비에 적혀 있습니다.

“내 차라리 하루라도 계를 지니고 죽을지언정, 백년을 파계하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

1400여 년 전 왕(선덕여왕)의 부름을 사양하며 자장 율사가 보였던 결기 어린 한 마디입니다.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三春)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

1925년 서울 봉은사 주지로 있던 한암(漢岩, 1876~1951) 스님이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달마의 심장을 도려내려는 금강석 같은 의지로 상원사로 향하며 했던 말입니다. 한암 스님은 그로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27년간 한 번도 오대산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와중에 상원사를 소각하러 올라온 국군 앞에서 “나는 부처님의 제자요. 법당을 지키는 것은 나의 도리니 어서 불을 지르시오”하며 법당을 지킨 한암 스님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김제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신동 소리를 들으며 한학을 익히다가 인생의 궁극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길이 없어 한암 스님과 3년 여 동안 편지를 주고받다가 마침내 도포와 갓을 벗어 던지고 상원사로 달려와 먹물옷을 입은 탄허(呑虛 1913~1983) 스님. 세속에서 사서삼경을 익히고 탄허 스님의 무릎 아래로 출가해 상원사에서 사교를 배운 뒤 입선해 서래밀지를 참구한 만화당 희찬(喜讚 1919~1983) 스님은 전쟁중에도 피난을 가지 않고 한암 스님을 끝까지 시봉해 ‘좌탈입망(坐脫立亡)’을 지켜본 효법손입니다.



자장 율사의 개산 이래 근현대 한국불교사에 우뚝한 걸승들이 오대산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도량은 상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상원사 오르는 길 오른쪽 언덕에 한암 스님과 탄허, 만화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암 스님의 부도는 팔갈원당형을 기본으로 했지만 지대석은 연꽃잎을 응용한 장구모양으로 둥글게 조형했습니다. 몸돌은 위로 길이를 살린 원형이며 옥개석은 비교적 경사가 급합니다. 탑비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문으로 만든 것으로 제자인 탄허 스님이 지은 비문이 가득합니다. ‘선사속성방씨 온양인야’로 시작되는 이 비는 1959년에 세워졌습니다. 2000년 일타 스님이 찬한 비문을 담은 새로운 비가 건립돼 부도 왼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새로 세운 탑비는 일타 스님이 탄허 스님의 비문과 기타의 자료를 종합해 찬했으나 비명은 탄허 스님의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탄허 스님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전형적으로 이은 양식입니다. 스승의 탑비보다 크지는 않지만 우람한 탑비에는 일세를 풍미한 대강백의 살림살이가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각성(覺性) 스님이 찬한 비문의 끝 문도질(門徒秩)을 훑어보다가 ‘재가상좌’ 항목에서 서우담 김지견 구자선 전창열 명호근 윤창화 송찬우 등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보니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탑비에는 제법 많은 재가제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두 선지식의 회상이 그만큼 넓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겠습니다.

세 걸승의 부도와 탑비가 있는 부도밭 뒤로 또 하나의 부도밭이 있습니다. 텃밭처럼 작은 땅에 잡초와 들풀이 무성한데 위가 뾰족하고 길쭉한, 흡사 총알처럼 생긴 부도 하나가 서 있습니다. 빗돌에는 ‘이씨평등성부도탑’이라고 적혀 있고 단기 4239년생이며 경기여고를 나왔고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수행하다가 입적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평등성’이라는 여자 신도의 이름은 한암 스님의 옛탑비(탄허 스님 찬) 신도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남대 지장암으로 차를 돌립니다. 북방최초비구니선원인 지장암으로 이르는 길 오른쪽 위 언덕에 아주 어여쁜 부도가 있습니다. 옛 석종 앞에 놓인 부도의 주인은 묘공당(妙空堂) 성진(性眞, 1896~1983) 스님입니다. 성진 스님은 지장암으로 출가해 평생 지장암을 복원하는데 혼을 바친 선승입니다. 부도는 온 몸을 연꽃잎으로 장엄해 마치 연꽃이 켜켜이 잎을 틔워 하늘을 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는 어제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것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상원사와 중대암이 오랜 불사 끝에 사격을 일신했고 지금은 월정사도 단기출가로 세파에 지친 사람들에게 감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만 문수보살의 성지 월정사는 불교의 근원을 따라 새 희망을 길어 올리는 깊고 깊은 법의 우물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제원.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등.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9

열반은 살아서 얻는 것

[원문]
해저연소녹포란(海底燕巢鹿抱卵)
화중주실어전다(火中蛛室魚煎茶)
차가소식수능식(此家消息誰能識)
백운서비월동주(白雲西飛月東走)
–송광사 화엄전

[번역]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 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뉘라서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선해(禪解)]

상식 벗어나는 '격외논리'로 진리의 본모습 설명
무한 에너지의 상징 '문자'에 얽매지 말아야 이해

인간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것은 '자성(自性)'이다. 그런데 인간은 왜 죽음을 앞두고서야 이를 느끼게 되는 것일까? 살아 있을 때는 왜 이러한 깨달음을 일찍 얻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분분한 의견이 있다. 인간은 원래부터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것이 짐승과 다른 이유이다. 인간의 이러한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능력이며 또한 한계(限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진 '무지와 판단' 이 두 가지의 명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불교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자살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마음'의 존재 때문이다. 짐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다. 아니 생각하지도 못한다. 인간이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모색할 수 있는 것도 이 마음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극단'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죽음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노무현 前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은 참으로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던져 주고 있다.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원래 부처님 법에는 생사가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는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에는 생사가 없으므로 내세관(來世觀)도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부처님의 법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이 바로 대승(大乘)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생사가 없으므로 고통과 번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육근(六根)이라고 하는 '안이설비신의(眼耳舌鼻身義)'는 본래 청정하므로 또한 사대(四大) 역시 청정하다. 고로 우리의 몸은 나고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본래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열반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얻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불교를 믿는 중생들은 결코 스스로 목숨은 끊는 어리석은 극단의 선택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송광사다.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에 있는 조계산 자락에 새둥지처럼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로 알려져 있다. 송광(松廣)이라는 이름에는 몇 가지 전설이 있다. 하나는 18명의 큰스님들이 나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 절이라는 뜻이다. '송(松)'은 '十八(木)+公'을 가리키는 글자로 18명의 큰스님을 뜻하고, '광(廣)'은 불법을 널리 펴는 것을 가리켜서 18명의 큰스님들이 나서 불법을 크게 펼 절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보조 국사 지눌스님과 연관된 전설이다. 곧 스님께서 정혜결사를 옮기기 위해 터를 잡으실 때 모후산에서 나무로 깍은 솔개를 날렸더니 지금의 국사전 뒷등에 떨어져 앉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뒷등의 이름을 치락대(솔개가 내려앉은 대)라 불렀다고 한다. 이 전설을 토대로 육당 최남선은 송광의 뜻을 솔갱이(솔개의 사투리)라 하여 송광사를 솔갱이 절이라 풀었다고 하는데 산에 소나무가 많아 '솔메'라 불렀고 그에 유래해서 송광산이라 했으며 산 이름이 절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원래 송광사는 신라 말 혜린(慧璘)선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창건 당시에는 송광산 길상사(吉祥寺)였으며 100여 칸쯤 되는 절로 30, 40명의 스님들이 살 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절이었다. 그 뒤 고려 인종 때 석조(釋照)대사께서 절을 크게 확장하려는 원을 세우고 준비하던 중 타계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후 50여 년 동안 버려지고 폐허화 된 길상사가 중창되고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각광받게 된 것은 불일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정혜결사가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부터이다. 지눌스님은 9년 동안의(명종 27년1197년 ~ 희종 원년) 중창불사로 절의 면모를 일신하고 정혜결사운동에 동참하는 수많은 대중을 지도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였다. 이때부터 송광사가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정유재란, 6.25사변 등 숱한 재난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중창불사로 지금의 위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화엄전에는 유명한 송광사화엄전화엄탱(松廣寺華嚴殿華嚴幀)이 있다.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린 그림으로, <화엄경>의 7처9회(七處九會)의 설법내용을 그린 변상도이다. 이 화엄탱은 기본구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구도상 상 · 하단 모두 법회장면이 거의 대칭을 이루며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짜임새 있는 구도와 더불어 황토색 바탕에 홍색과 녹색 및 금색을 사용하고, 각 회주인 보살형 노사나불의 영락에 고분법을 활용하여 장식함으로써 화면이 밝고 화려해지는 18세기 불화의 경향을 살필 수 있다. 한편 그림 아랫부분에는 보현보살이 대중들에게 비로자나불의 정토인 연화장세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화엄경> 39품 중의 '화장세계품' 내용을 도해한 '연화장세계도'가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그림에 대한 내력은 조선 영조 46년(1770)에 화련을 비롯한 12명의 승려화가들이 무등산 안심사에서 조성하여 이곳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해저연소녹포란 화중주실어전다: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 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다리네.'

선문(禪文)을 이해하려면 우선 불교를 알아야 하고 선(禪)을 이해해야 한다. 불교는 직관적인 종교이다. 석가가 영산(靈山) 설법에서 말없이 꽃을 들자, 제자인 가섭(迦葉)이 그 뜻을 알았다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이심전심(以心傳心)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종지(宗旨)가 바로 불교이다. 이를 알아야만 선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다 밑에는 제비집이 존재 할 수 없다. 하지만 불교의식의 바탕 안에는 분명히 바다 밑에 제비집이 존재한다. 또한 사슴이 알을 품고 불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다린다. 이것은 바로 형상이 없는 격외(格外)의 소식 다름 아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불음(佛音)의 이치가 이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찰이며 깨달음이다.

'차가소식수능식 백운서비월동주: 이 집안 소식을 뉘라서 알랴! /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집안 소식이란 격외의 소식을 말한다. 바다 밑에 제비가 살고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무한의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불교사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신비한 세상이듯이 불가의 뜻 또한 깊다. 그렇다. 자연은 늘 그 신비한 이치 속에 격외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9

반연하는 생각을 쉬어라

[원문]
佛無持犯 心性本空 亦非垢淨諸法 無修無證 無因無果 佛不持戒 佛不犯戒 佛不修善 佛不造惡 佛不精進 佛不懈怠 佛是無作人 但有住着心見 佛卽不許也 佛不是佛 莫作佛解 若不見此義 一切時中 一切處所 皆是不了本心 若不見性 一切時中 擬作無作想 是大罪人 是癡人 落無記空中 昏昏如醉人 不辨好惡 若擬修無作法 先須見性然後 息緣慮.


'달마절로도강(達磨折蘆渡江)도' 김홍도 作.

부처란 지키는 것도 없고 범하는 것도 없으며, 심성이 본래 공하여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므로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으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느니라. 부처는 계율을 지니지도 아니하고 범하지도 아니하며, 선을 닦지도 않고 악을 짓지도 아니하며, 정진을 하지도 아니하며 게으르지도 않으니,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니라. 무엇에라도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라 할 수 없느니라.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가지지 말지니라.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나 본심을 알 수가 없느니라.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큰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무기공(無記空)에 빠지며 술취한 사람처럼 캄캄하여서 좋고 나쁨을 가리지 못하리라. 만일 '무위의 법'(無作法)을 닦으려 하거든 우선 견성한 뒤에 반연하는 생각을 쉴지니라.

[해설]

달마 대사께서는 '한 마음이나 한 작용이나 한 생각이나 한 소견에라도 집착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반야자리에 마음을 두면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없고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혜능 스님께서도 <금강경>에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써라(應無所住而生其心)'는 구절을 듣고 눈을 떴던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마음을 쓰면 그것이 곧 부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다는 생각이 든 것도 실제로 얻은 것이 아니고,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두고 달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처란 심성이 본래 공하여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므로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으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느니라.'

바로 반야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마음을 둔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무엇을 한다는 생각,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상(無相) 무념(無念) 무주(無住) 즉 부처님 자리에 마음을 둔 도인들은 바람이 불면 부는대로, 비가 오면 오는대로, 물이 흘러 가는대로 끄달려 가지 않는 무애행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자리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 자리로, 억겁 전이나 억겁 후나 항상 그 자리이니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선도 악도 끊어진 자리로 돌아간 부처님 경지를 말합니다.

이는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킬 수 없는 반야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을 하지도 아니하며 게으르지도 않으니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마음을 두고 경을 읽으면 모두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마음에 답답한 게 없어지는데, 이것을 모르면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내 마음이 부처인데 닦을 것이 있나 하는 자만심으로 닦지도 않고 스스로 부처라고 망언을 하는 자들을 큰 죄인이라 합니다. 본래가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성품을 보지 못한 이를 부처라 하지 않습니다.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면 언어 이전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본래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하고만 있으면 무기공(無記空: 아무 생각도 없이 멍청한 상태)에 빠지며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무작(無爲)의 법을 닦으려 하면 먼저 자기의 본성을 본 후에 어떤 대상에 대해 일어나는 마음을 쉬어야 하느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유위(有爲)'라고 하고, 형상이 없는 세계를 '무위', 즉 반야의 자리라 이야기 합니다. '만약 무위의 법을 닦으려면 먼저 자기의 본성을 본 후에 어떤 대상에 대해 일어나는 마음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위의 존재는 인연에 의해 잠시 형상으로 느낄 뿐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조단경>에선 일상삼매(一相三昧)와 일행삼매(一行三昧)라는 말로 이를 표현하셨습니다. 즉, '일상삼매'란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를 말하며 '일행삼매'란 하나에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정진함을 말합니다. 과거의 습(習)을 녹이는 정진을 통해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 무념(無念)의 경지에 도달해야 마음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님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도업 스님



화엄학 연구의 대가, 25년 후학지도 마치며 "시원 섭섭하다"
모든 생명체가 갖춘 공덕과 지혜, 망상 버려야 제대로 보여

선지식을 찾아서 도업

경북 경주는 천년 고도(古都)이다. 석굴암, 불국사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처처에 널린 곳이 경주다. 지금도 땅을 파면 곳곳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삽질하기가 두려울 정도라는 지역민의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신라의 수도로 번영을 누려온 곳이다.

동국대는 조계종립 민족사학이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기념시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에서 보이듯 만해 한용운, 박한영 스님 등 선지식들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켰다. 김법린 · 백성욱 박사는 총장으로 동국대의 발전을 이끈 지도자였다. 하지만 오늘의 동국대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찾았다. 경주와 동국대의 만남.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찾는 길은 이런 사실들만으로도 가슴 가득 설레게 했다.

경주시 석장동에 자리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도착했다. 캠퍼스 곳곳에 넘치는 젊음에서 천년 고도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끊이지 않고 있음이 느껴졌다.

6월 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상관에서는 정각원장 도업 스님(불교학부 교수, 부산 화엄법계사 주지)의 퇴임강연회가 열렸다.

도업 스님은 화엄학의 대가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로 스님은 25년간 후학들을 지도했다. 직접 사사받은 제자가 아니어도 화엄학에 관심을 둔 연구자라면 <화엄경사상 연구> 등 화엄과 관련한 스님의 저술과 논문을 접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다.

화엄학 선지식 도업 스님의 퇴임기념 강연 시작을 즈음해 대중들이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서울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 동국대 보광 스님을 비롯해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최규철 동국대 이사 등이 도업 스님의 퇴임강연회를 축하하려고 자리했다. 행사가 열린 백상관 컨벤션홀은 어느새 700여 사부대중으로 가득 찼다.

행사가 시작되고, 내빈의 인사말씀 화환증정 등이 있은 후 도업 스님이 단상에 올랐다. 스님의 첫마디가 궁금했다.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예불을 올리고 있습니다."

25년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수차례 정각원장을 역임했던 스님의 첫마디였다. 아마도 자리한 동국 구성원들에게 매주 화요일 예불 참석을 권하는 한마디, 건학이념을 바로 세우고, 불자로서의 근본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도업 스님의 일갈이리라.

스님은 "예불을 마칠 무렵 한 기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정년퇴임을 앞둔 소감을 묻더라"라며 말을 이었다.

"시원섭섭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시원하고 무엇이 섭섭하냐'고 반문하더군요. '시원한 것은 25년간 짜여진 교과일정에 따라 수업하고, 소임을 맡아 책임을 다하려 얽매였던 생활에서 벗어난 점이 시원하다. 섭섭한 것은 후학들과 함께 한 강의시간이 가장 즐거웠는데 그 시간이 끝났으니 섭섭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도업 스님의 강의시간은 딱딱하지 않기로 정평이 났다. 지루하지 않기로도 유명했다. 화엄학 강의나 경전강독 등 다수의 강좌가 있었지만 매 강좌마다 스님과 학생들은 생각난대로 느낀대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도업 스님은 "학교에서 25년, 승가에서 40여 년을 살다보니 운명이 있더라"라고 말했다.

출가 전 스님이 해인사를 찾았을 때 일이다. 용탑에서 해인사로 건너오는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도업 스님은 그곳에서 한 스님을 마주했다.

'키 작은 스님'으로 기억된 그 스님에게 도업 스님은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키 작은 스님'은 아무 답이 없었다. 도업 스님이 다시 물었다. "스님 저도 출가할 수 있습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키 작은 스님'이 답했다. "참 거룩한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도업 스님은 출가했다.

스님은 "불법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참 즐거웠다"라며 "학교에서 25년 있었던 것도 불법을 만난 인연 덕분, 절에서 신도님들 만난 것도 불법을 만난 인연 덕분"이라고 말했다.

운명이 있다 했는데 화엄학 대가 도업 스님은 어떤 인연으로 화엄학을 공부하게 됐을까?

1976년 스님이 일본 유학길에 올랐을 때다. 교토 불교대로 유학했는데 학교에서는 스님에게 연구계획서를 요구했다. 400자 원고지 6매 분량이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당시 뚜렷한 전공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떠났던 유학길이었죠."

그때 도업 스님은 인환 스님(前 동국대 선학과 교수)을 만났다. 인환 스님이 동경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 건너갈 즈음이었다.

"함께 인환 스님을 만난 무비 스님은 '불교사회복지학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전공인데 한발 늦었죠."

막연했던 스님에게 인환 스님은 "한국 불교는 화엄불교입니다"라고 말했다. 도업 스님은 "화엄을…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었고, 인환 스님은 "균여 스님 저술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요"라고 답했다.

그 후 도업 스님은 균여 스님의 저술을 중심으로 화엄학 연구에 매진했다.

"화엄학을 공부하니 자연히 <화엄경>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화엄을 공부하니 세상이 정말 즐거운 겁니다. 가면 가는대로, 오면 오는 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좋았습니다."

스님은 "선, 정토 등 불교의 여러 분야 가운데 화엄을 만난 것은 굉장한 행운이며 홍복"이라고 찬탄했다.

스님은 <화엄경>의 백미로 여래출현품을 손꼽았다.

"40 · 60 · 80권 <화엄경> 중에 부처님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텐데, 여래출현품 같습니다."

도업 스님은 <화엄경> 여래출현품의 '널리 일체 중생을 돌아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갖췄건만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普觀一切衆生 具有如來智慧德相 但以妄想執着 而不證得)'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공덕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고 놈' 하고 벼르는 그런 놈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공덕을 구족했지만, 조심할 것이 있다"며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은 중생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0권 <화엄경>의 제1장 제1절 제1품이 무엇인고 하니, 세간정안품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세간을 보는 눈에는 우리 같은 중생의 눈(染眼)과 부처의 눈(淨眼)이 있거든요."

도업 스님은 "부처님이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눈으로 보니 모든 사람들은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공덕이 있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위에 골치 아프고 짜증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우리의 잘못된 망상, 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화엄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 좋은 일은 좋고, 안좋은 일도 좋고 세상 처처가 안락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해야 화엄적 세계관을 갖고 마음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도업 스님은 "술을 잘 먹는 사람이 곁에 있어 짜증난다면, '술을 많이 먹는 것은 저 사람의 업이 그럴 뿐'이라고 여겨라. 저 사람의 본성자리는 부처님과 같이 청정무구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자타(自他)의 본성을 살피는 것을 성철 스님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고 말했고, 서울 불광사

도업 스님은…

1944년 충남 공주 출생. 1969년 완규 선사를 은사로 해인사에 입산했다. 1972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 승가학과 1기로 입학했다. 1976년 일본 교토 불교대에 유학해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정각원장, 불교문화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現 화엄법계사 주지, 대각회 · 금정학원 이사. 8월말 정년퇴임 예정이다.

저서로는 <화엄경사상 연구> <불교사상의 이해> <산하대지가 내 몸이다> 등이 있으며, <일본 화엄 원류 제고>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백년명문사학’ 위상 찾자



에 계시던 광덕 스님은 ‘불성생명’이라 표현했다”라며 “‘자기를 바로 보자’는 것은 부처의 눈으로 보자는 말이다. 부처의 눈으로 본다면 지혜와 공덕이 구족함이 바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도업 스님은 “자기(나)는 잡철이 아니라 순금”이라며 “혹시 화가 나거나 미운 마음이 생긴다면 나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잡철이 아니라 순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엄경> 십지품에 ‘육상(六相)이 원융(圓融)하다’라고 했다.

스님은 “육상은 총상(總相)·별상(別相)과 동상(同相)·이상(異相), 성상(成相)·괴상(壞相)이다. 이 여섯 가지가 원융하다는 것은 원만하고 융통스럽다. 아주 조화스럽게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도업 스님은 “<화엄경>에서는 육상이라 했지만 내가 볼때는 만상이 원융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어찌 여섯 가지 모습 뿐이겠습니까? 만가지가 있어 만물이 그대로 조화스럽고 평화스러운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탐심이나 욕심을 일으켜서 자기 분수에 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조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스님은 동국대를 예로 들었다.

“이름은 동국대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첫째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없는 동국대 생각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선생님들이 안계시면 학교 운영이 안됩니다. 교수가 없다면, 학교가 안되겠죠? 또 재단이 있어야겠죠?”

도업 스님은 “동국대 입장에서 보면 학생·직원·교수·재단의 사상(四相)이 원융하다”라며 “이 네 구성원이 자기 직분만,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하면 자연의 질서처럼 평화롭고 조화스럽게 굴러간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충실하다’는 것은 ‘~답게’를 말한다”며 “학생은 학생답고, 직원은 직원답고, 교수는 교수답고, 재단은 재단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인 도업 스님의 당부는 계속됐다.

“동국대는 100년 넘는 명문 사학입니다. 내가 동국대 처음 입학하던 40여년 전만해도 3~4대 명문 사학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스님은 “깨달은 눈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은 자기의 분이 있다. 육상이 원융해야 하듯, 동국대는 네가지 구성원들이 원융해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것을 도업 스님은 화엄의 ‘법계연기’를 빌어 설명했다.

“좁게 보면 나 혼자 사는 것 같지요? 내가 내 밥 먹고 산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계연기’에서 보면 (부처님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만물들은 서로서로 연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10촌만 넘어도 남이라 생각하고, 이북 사람들을 원수라 여기고 있다. 하지만 20대를 올라가면 21여 만명이 나와 피를 나눴고, 30대를 올라가면 21억 만명이 한핏줄”이라며 “화엄의 법계연기 사상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라고 말했다.

도업 스님은 “자기가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은 중생의 눈일 뿐”이라며 “깨달은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다. ‘산하대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한다”라고 당부했다.

“밖에 있는 푸른 나무 한 그루, 꽃 한송이가 모두 나와 한몸으로 관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이 썩으면 풀이 죽습니다. 풀이 죽으면 나무가 죽고, 작은 생명체들이 죽습니다. 결국엔 사람마저 죽습니다.”

스님은 “화엄 법계사상을 온전히 인식하면 환경문제는 물론 남북관계도 수월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생명체, 사람과 자연, 이념과 이상이 하나될 수 있는 이론은 단연 화엄사상”이라는 도업 스님의 설명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스님은 <화엄경> 사구게를 예로 자각(自覺)과 용심(用心)을 강조했다.

“만약 삼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모두 다만 마음으로 지은 것을 알아야 한다(若人慾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스님은 수덕사에 주석하던 덕숭총림 2대방장 벽초 스님의 일화로 법문을 끝냈다.

“벽초 스님은 큰스님으로 알려졌지만 법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이 억지로 법상에 모시면 하시는 말씀이 ‘불법(佛法)이란 심법(心法)인디, 심법이란 용심법(用心法)이여’가 전부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마음법이고, 마음법은 바로 마음 씀씀이에 달렸다는 법문이었지요.”

60권 <화엄경>을 줄줄 읊었던 화엄학자의 법문의 끝은 마음이었다. 25년 교수생활과 40여년 출가생활을 회고한 강연이 끝났다. 스님과 청중들은 강의 주제처럼 ‘산하대지와 한 몸’이 되고, ‘화자와 청자가 한 몸’이 돼있었다.

8월이면 도업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떠난다. 스님은 떠나도 스님의 가르침을 이을 또 다른 선지식이 출현하리라.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7. 고성 보광사 주지 포광 스님

청담 스님과 동문수학한 포광 김형입 스님이 있다. 고성 옥천사 주지, 진주 해인대학 교수를 역임하다가 고성 시립공원에 보광사를 지어 운영하신 분이다. 이 분은 청담 스님보다도 구도의 정신이 더욱 철저하여 계를 받을 때 두 손가락을 불에 태운 분이다.

그런데 잘 아는 신도분의 딸이 관절 결핵에 걸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해 업혀 다니면서 정진하다가 스님과 인연이 되어 가정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중풍이 들어 고성읍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마련하여 은거하고 있었다.

필자가 옥천사에서 대장경을 보고 있을 때 그의 권속들이 와서 몇 번 보고 갔는데, 그 뒤 삼천포 운흥사 주지서리가 되어 가람을 수호하고 있을 때도 국회의원 최석림 씨를 보내 후원해 준 일이 있다. 운흥사에서 3·15선거 전에 대중강연을 하고, 지나가는 스님께 잠자리를 제공하는 초제사를 운영했으며, 거리에 탁발을 나온 스님이라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 항상 <몽산법어(蒙山法語)>를 읽었으며 ‘휴휴암가’를 읊으며 자리에 앉았다.

<몽산법어>는 ‘선의 교과서’로 불리울 만큼 수백 년에 걸쳐 수없이 간행돼 많은 스님들과 재가 선객들이 읽어 온 책. 고려말 나옹 스님이 원나라에 가서 몽산 스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가져온 <몽산법어>에는 꿈속에서의 화두를 잡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간화선 수행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세속의 번뇌와 모든 인연을 끊고 외출과 독서도 삼간 채 일심으로 선수행을 하면 3년이내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선어록이다.

<몽산법어>를 중심으로 일상속의 선수행을 해온 포광 스님은 제자들에게도 생활속에서 좌선

두 손가락 소지하고 수계… 불우한 학생·노인 보살피던 ‘보살’

방공청년단 교육을 받을 때라든지, 이 대통령이 방문해 남산 공원에서 환영사 하는 일을 필자에게 시켜 어쩔 수 없이 환영사를 한 일이 있다. 이 일로 인해 고성 불자들이 좋아하자 보광사에 대비학원을 마련하고 시인 서봉섭 씨와 함께 운영하게 했으니, 스님의 포교정신과 구도정신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교인들이 전단을 뿌리고 돌아다니면 “우리도 전단을 만들어 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교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선전하면 “우리들도 마이크를 들고 선전해야 한다”고 외쳤다.

항상 깜정 깜투에 먹물 두루마기를 입고 걸어 다니셨는데, 적어도 하루에 두 번씩은 가정에 꼭 들른다. 사모님이 혼자 밥을 해 먹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차피 산 속에 들어가도를 닦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난 인연이라도 서운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하시며 옷을 벗고 밥을 지어 공양 대접하는 것을 보면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저런 보살이 어디 있노” 생각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대본산 주지가 어찌 저렇게 될 수 있느냐”하였지만, 그분은 그 나름대로 철학과 신행이 철저해서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고 절에서 나오는 것은 철저히 일전 한 푼도 가정생활에 보태 쓰는 일이 없었다.

넉넉하지는 못해도 사모님께서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었고, 또 스님께서도 일찍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전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학금을 마련하여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주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께는 적어도 한 달에 두 세 번은 공양을 냈다.

새벽에 도량석을 하여 고성읍내에 쩌렁쩌렁 목탁소리가 들려오면, “이것만 가지고도 불교 포교 반 이상을 이루거든. 내가 병이 들어 목탁을 제대로 치지 못하니 어찌 도량석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고성불교는 외롭지 않을 것인데.”

터미널까지 나와서 환송해 주시던 그 모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그 뒤 서울에 와서 얼마쯤 있다가 시흥 해명양로원에 갔더니, 어려서 구두 닦기를 하며 대비학원에 다니며 글을 배우던 학생이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군법사가 되었다가 혜명양로원 법사가 돼 와 있었다.

“포광 스님과 사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나 그 분의 장학금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나와 군법사가 됐다가 도선사와 인연을 맺어 이곳에 파견됐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다. 1년이면 적어도 두 차례씩은 극장을 빌려



삶의 올바른 가치관 바로 세워야 할 때

탐욕보다 올바른 '만족의 경제학' 가져야

연재를 시작하며

'소욕지족(少欲知足)'이란 말이 있다. '적은 것에 만족 한다'는 뜻이다. 원래 이 말은 불교의 선(禪) 사상인 '오유지족(吾唯知足)' 즉 '나, 오직 만족함을 안다'는 문언에서 유래한 사상이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필자는 이제 나이 60고개를 넘어선 자신의 지나온 인생과 정과 요즈음 세상의 변화를 되돌아보며 이 말의 참뜻을 새삼스럽게 되새겨 보게 된다.

최근 세계경제는 대불황의 국면에 빠져 들었다. 이 혼란이 수습되기에는 아마 수년에 걸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본질과 관련하여 우리들 삶속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규명하지 않은 한, 인간 생활과 경제사회는 장래에도 몇 번이든 지금과 같은 우여곡절과 질곡이 반복 될 것이다.

작년 가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붕괴와 함께 나 자신 '만족함을 알다'는 불교사상이 눈에 띄게 되었다. '아직 모자란다. 더욱 더 갖고 싶다'는 탐욕과 집착의 생활방식을 반성하면서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소욕지족 사상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소욕지족 인가 묻는다면, 우선 소욕지족 사상은 녹색성장 시대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대량생산과 소비, 폐기의 확대재생산의 산업화시대는 이미 끝났다. 21세기에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자본주의는 보다 더 커다란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세계경제를 활성화시켜 왔지만, 소득과 부(wealth)의 격차 확대, 지구환경 및 생태의 파괴 등 인간사회에 여러 가지 마이너스(負)의 효과를 초래한 주범이기도 하다.

지금의 미국발 금융시장 파탄으로 인한 세계적 불황이 모두가 '돈, 돈, 돈'하는 국경을 넘어선 시장의 확대와 탐욕 속에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 = 행복'인양 오직 물질적 충만을 추구하며 달려온 결과라고 한다면 과연 지나친 해석일까?

그러나 이제는 녹색성장시대이다. 탐욕이 아닌 소욕지족만이 그 대안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하나는, 향후 21세기의 새로운 경영원리가 단순히 영리추구만의 기업경영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 운영이나 개인의 생활방식까지도 고려한 폭 넓은 의미에서 공존의 '경영윤리' 확립이 급선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신자유주의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도 1960년대 이후 미국 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수출주도 경제성장주의 노선만을 오로지 달려왔다.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속에서 세계 구석구석을 돈돈돈, 돈을 쫓아 필사적이 되어 배금주의를 향해 달려왔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종착점이 바로 오늘의 우리 사회와 가정의 모럴, 도의의 구조적 붕괴라는 결과로 귀착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대처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는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지구환경의 재생과 소득과 부(Wealth)의 격차축소 등을 통하여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며, 그 중추에 두어야 할 것이 소욕지족 사상이다.

소욕지족 사상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지혜와 행동, 팔정도(八正道) 그 자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소욕지족의 사상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 하나가 '자족의 경제학'에 관한 이론적 구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에서 가르쳐오고 있는 '현대경제학'은 '탐욕의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21세기의 녹색성장 시대에는 걸 맞는 내용이 아니다. 더구나 현대경제학의 기본원리는 사리추구(私利追求)와 효율 극대화 위주의 무자비한 자유경쟁의 이념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모럴 붕괴를 초래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탐욕의 경제학'에 대신할 '만족의 경제학'이야말로 21세기의 새로운 경제사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먼저 자기 분수에 넘치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탐욕이란 번뇌와 같은 것이어서 밀바탕이 빠진 항아리요 남을 해치는 칼날이며, 자기를 망치는 비상(砒霜)이기 때문이다. 탐욕을 버리고 적은 것에 만족하면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진다. 그리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도 소욕지족의 지혜를 살리는 길은 경제의 완만한 성장,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Zero)성장 경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그 옛날의 절대빈곤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겠지만, 하지만 그 때보다 오늘이 과연 모든 것이 비례하여 행복스러운가? 물질추구의 관념속에서 물질적으로 충만된 가운데서 불안과 불만의 심각성은 소욕지족, 즉 적은 것에 자족(自足)하는 철학적 가치관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자제의 경제학'은 당연히 물질적 욕망에 치우치지 않고 정신적 만족을 얻기 위해 소득불평등의 개선, 자원 · 에너지의 절약, 자연환경의 보전을 키워드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불교적 사상을 오늘날 한국의 경제학에 확대 적용 한다면 어떨까? 필자는 여기서 '자족의 경제학'과 '탐욕의 경제학'과의 이미지 비교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위의 표>에 요약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된다.

자족의 경제학	탐욕의 경제학
녹색환경 시대	글로벌 성장 시대
불교(유교가미)사상 — 탈성장주의	일신교(가토릭 · 기독교) 사상 — 성장만능주의 (경제성장주의)
비시장적 · 비화폐적 가치의 존중	시장적 · 화폐적 가치의 중시
부(Wealth)의 불평등 억제 — 중산층 사회.	부(Wealth)의 불평등 심화 — 양극화 사회
지구환경의 보전과 자원 · 에너지의 재생 · 절약	지구환경의 오염 · 파괴와 자원 · 에너지의 낭비
중용과 검약	과소비와 사치
시장개입주의 — 복지규모의 확대	시장확대주의 — 정부 역할의 축소
교육에의 안정적 공급(탈시장주의)	교육의 불안정 공급(시장원리주의)
의료서비스의 안정공급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공정경쟁과 공존	과잉경쟁과 약육강식
법질서와 도덕성의 확립	탈법과 도덕성의 문란
자리이타(自利他利)의 조화	사리추구(私利追求) 일변도
물심일여(物心一如)의 절제생활	인간소외(人間疎外)의 탐욕생활
비경제적 정신문화적 정책 중시	경제적 소득 · 자산증대 정책 중시
고용창출 성장방식(중소기업 육성)	고용없는 성장방식(수출대기업 육성)
생활자 주권의 중시	소비자 주권의 중시
사회적 규제의 중시	공적규제의 원칙 자유화
정신적 만족과 실용주의	물질적 탐욕과 명분주의



김옥암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일본 중앙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안동시 경제회생기획단장,
안동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겸 행정경영대학원장,
국제지역학회 부회장,
한일경상학회 부회장,
일본 사가(佐賀)대학 경제학부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허달의 불교와 코칭

① 코치의 辯

"코칭은내면의 잠재력 퍼 올리는 마중물"

필자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명함을 내밀 때 이를 꼼꼼히 들여다 보는 사람들로부터 늘 받게 되는 질문이 있다. "코칭(Coaching)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코치를 하시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럴 때 히딩크 감독처럼 축구를 코칭 한다거나, 김인식 감독처럼 야구를 코칭 한다고 짧게 한 마디로 상대방의 궁금증을 풀어 줄 답을 말해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훗날 세계 최대의 코칭 회사를 설립한 '이토 마모루'라는 일본인 경영자는 어느 때인가 캘리포니아 사랜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골프 워크숍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1주일의 워크숍 기간 중 필드에 나간 것은 불과 2일뿐,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레슨을 받았다. 필드에 나가서도 스코어 카드에 스코어를 기록하지 않고 매 타 샷을 날릴 때마다 코치가 옆에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평가한다면 지금 샷은 1부터 10점까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몸과 움직임에 대한 자각은 몇 점입니까?"

"치는 순간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어느 순간까지 볼을 보고 있었습니까?"

코치는 그가 말한 대답을 적고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무언가 가르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매번 샷을 할 때마다 코치가 와서 "몇 점?" 하고 묻거나, "자신의 이미지와 지금 한 샷의 차이는 어느 정도?"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다른 시각과 감각을 익히게 되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이토 씨가 받은 프로세스가 바로 '코칭'이라는 것이다. 코칭이란 경청과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았으므로, 그 해결 방안은 오래 지속되고 행동력도 외부로부터 주어진 해답에 비해 월등히 높다.

여러분은 아마도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 상수도가 완전히 보급되기 전에는 서울에도 마당에 펌프를 묻고 지하수를 퍼올려 쓰는 집이 많았는데, 쓰다 놓아두면 공기가 새어 들어가 헛 노는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퍼올리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었다. 땅 밑을 흐르는 양질의 지하수가 아무리 풍부해도 한 바가지 물이 없으면 이를 퍼 올릴 방법이 없음에 비유하여, 코칭을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퍼 올리기 위한 마중물로 표현한 것이 참으로 미소를 머금게 한다.

영국의 코칭 창시자이며, 젊은 시절 전영(全英), 전유럽 카 레이싱 챔피언인 죤 휘트모어 경(卿)이 내한했을 때 그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코칭이 스스로의 인식(Self Awareness)을 끌어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이 인식이 책임의식(Responsibility)과 연결되고, 자발적 행동을 유발하게 되며, 자신감을 얻게 되는 선순환(善循環)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카 레이싱의 실전에서 깨닫게 된 자신의 지혜를 기업 경영에 활용해 보자고 마음 먹은 데부터 코칭이라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는 설명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친절하고 끈기 있는 경청(傾聽)과 현명하고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을 돕는 것, 그리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어 행동하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코칭'이라고 하면 별로 틀리지 않는다. 코칭은 상대방의 존재(being)에 다가가 접촉하는 행위이기에 경청 · 질문의 기술에 앞서 상대방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Loving Kindness)이 그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보고 바로 알기', 이것 밖에는 다른 법이 없다는 부처님의 45년 교화과정 역시. 코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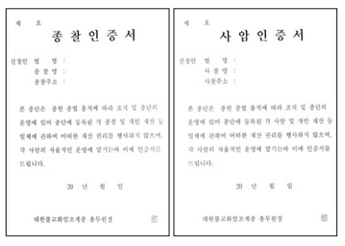
허달

한국코칭센터 고문

SK옥시케미칼 부사장과 고문, 한국화인케미칼 사장과 고문, SK아카데미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인재개발원 지도위원과 한국코칭센터 고문을 맡고 있다.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漢 한 文 글
〈겸용〉불교상용 의식집 (수정판) 안내!
겸용 의식집 5권이면 漢文염불, 우리말 염불, 경전공부까지 다른 책이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귀. 내용소개 - 염불내용 알고 집전하는 의식집
1. 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 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 경전의 내용으로 (한글염불+한문염불)을 부분마다 겸하여 조직을 하므로 독송이나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3. 겸용 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도록 하고 염불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출장시에도 편리하며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염불외의 내용은 가급적 배제 하였습니다.
4. 겸용 의식집은 염불중(운운)을 없게 하고 집전자의 애로를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나 초보자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5. 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 삼청하는 청사를 (2청은-기존염불), (1청은-우리말) 염불로 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므로 별도의 노력 없이도 우리말 염불과 경전공부를 쉽게 숙지할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제 1권 (예경 / 각청편) - 15,000원
제 2권 (천도 / 시식편) - 15,000원
제 3권 (수계 / 방생편) - 13,000원
제 4권 (장의편) - 13,000원
제 5권 (점안편) - 15,000원 [全 5권 71,000원]
◆문의 및 주문전화
054)974-1345 / 011-277-8024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투명한 종단운영과 정통 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 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011-228-781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실패하지 않는 포교!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비의 맞춤 기도법!!
대형사찰에 맞서 살아남을 포교원과 암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소승이 토굴수행 중 이인으로부터 전수받은지 수년여라.
포교임상 5년에 비전으로 남길까 했으나 포교원과 암자에서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전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도법을 행하면
1. 신도가 끊이지 않는다.
2. 재정자립도가 확립된다.
3. 도심포교에서 절대 패하지 않는다.
4. 이 기도법으로 기도하는 불자는 부처님의 가피를 봄도 체험한다.(5년동안 1명실패)
5. 이 기도를 행하는 불자는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나쁜행동을 하는 가족들이 참회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게 된다.
스님들께서 무조건 '기도해봐'라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스님들께서는 불자 개개인의 근기에 맞게 적법한 절차와 법에 따르는 기도법이 있음을 알고 불자들의 가정에 행복을 전파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전에 근기에 맞게 대기설법을 하셨듯이...
◆대상 : 스님과 포교사(별도상담)
※ 각 신행단체 및 개인불자들도 상담해 드립니다.
(후원금 : 10萬)
108일간 접수후 신청하신 수만큼 책자제작 및 전수 예정
상담시간 : 13 - 18시 접수 : 031)388-1311
후원계좌 : 농협 136-12-572481 상담자 : 혜공
방문하실 분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20번지(비산시장 옆)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나의 본래면목이 '이뭣고'



한때 사고암이라 불렸던 영감사는 수행하는 스님이 머물고 있는 듯 사각(史閣)과 달리 정갈했다. 절 마당은 비질 흔적이 또렷했고, 낮은 담 안에는 야생화가 피어 호랑나비를 유혹하고 있었다. 오랜 만에 보는 호랑나비의 자태였다. 나비 중에서도 호랑나비는 가볍지 않고 위엄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영감사 토방에는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산책을 나갔거나 볼 일이 있어 절을 잠시 비운 것 같았다. 대연 거사와 현각 거사는 마루 끝에 걸터앉았다. 햇볕에 달궈진 마루 끝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큰스님이 오도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수행하기 좋게 건물을 복원해 놓았지만 큰스님께서 사실 때는 움막 수준의 토굴이었다고 합니다."

현각 거사는 사고암이 지금처럼 바뀐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대연 거사는 현각 거사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 수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일대사를 마치겠다는 비장한 결의이지 결코 편안한 수행환경은 아닐 것이었다. 천축의 유마 거사나



그림 · 최문정

속가 조카 현각 정진하는 모습에 믿음 '이뭣고' 화두 줘

중국의 달마 대사도 사방 1장(丈) 크기의 차가운 동굴에서 정진했지 지붕이 고래등 같은 호사스런 절을 찾지는 않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영감사 스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혹시 영감사에 혜암 스님이 남긴 일화나 유물이 남아 전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영감사는 20명의 승군이 머물렀던 사찰치고는 터가 좁았다. 터의 규모를 보아서는 20명이 항상 주둔했다기보다는 월정사의 승군들이 교대로 올라와서 사고를 지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대연 거사는 아까부터 눈앞에서 어른거렸던 호랑나비를 찾았다. 문득 호랑나비가 혜암 스님의 혼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호랑나비는 절 입구 너머에 핀 원추리 꽃에 앉아 있었다. 원추리 대공이 길어 쉽게 눈에 띄었다.

그때 대학생인 듯한 남녀가 나타나 대연 거사에게 합장하면서 물었다.

"영감사에 계십니까."

"저도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청년은 디지털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면서 개량한복 차림의 대연 거사를 사고 관리인으로 알았는지 그렇게 묻고 있었다.

"무슨 일로 스님을 찾습니까."

"사각 건물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어서요. 강원대 건축학부 학생입니다."

"현재는 실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건 저희도 압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사고 안의 건물 구조입니다. 실록을 보관했던 건물 내부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각과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고까지 올라온 것을 보니 탐구심이 강한 대학생 같았다. 그러나 대연 거사는 청년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다.

"저도 이곳에 계시는 스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처럼 사고를 알고 싶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스님이 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루에 앉아 기다려보시죠, 뭐."

청년은 여학생이 공연히 헛걸음했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자 머쓱해하며 돌아섰다.

"다음에 다시 와 보겠습니다."

"미리 전화로 연락하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연 거사는 그들이 내려간 뒤에야 옹달샘으로 가 물을 마셨다. 그런 뒤 표주박으로 물을 떠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는 현각 거사에게 건넸다. 현각 거사가 소리 나게 물을 마시고 나서는 말했다.

"저에게 혜암 큰스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대연 거사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각 거사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대연 거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큰스님의 속가 조카이자 제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스님을 사모하는 대연 거사님과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 큰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상좌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좌 분들보다 더하다는 것은 과분한 말씀이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연 거사는 그 인연을 좇아 자신이 지금 오대산에 와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여행은 순례도 아니고 관광도 아닌 그 무엇인 것이었다.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그 무엇이란 인연으로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현각 거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큰스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는 유물이 무엇입니까. 가슴이 설렙니다."

"큰스님의 유물을 보시기 전에 먼저 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각 거사가 먼 산을 응시하며 말했다.

"출가하신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혜암 스님의 속가 어머니가 별세한 때는 1972년이었다. 그러나 혜암 스님은 어머니의 별세 소식에도 속가에 가지 않았다. 다만, 다음해 백양사 가는 길에 속가를 잠깐 들렀다. 그때 어린 현각은 처음으로 혜암 스님을 뵀다. 현각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난 후였다. 현각은 감히 말을 건네지 못하고 속가 토방 밑에서 마루에 위의를 갖추고 앉아 있는 혜암 스님을 우러러 보기만 했다.

현각은 3년 후, 19세 되던 해에 혜암 스님의 속가 동생 태오 스님을 따라서 해인사로 갔다. 그런데 그때 혜암 스님은 해인사에 없었다. 혜암 스님을 넉넉한 수행자로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현각은 자못 실망했다. 혜암 스님은 수좌로서 칠불암 선방에서 정진 중이었던 것이다.

현각이 행자생활을 끝내고 사미계를 받을 무렵에야 혜암 스님은 해인사로 돌아왔다. 현각은 혜암 스님이 머무는 극락전으로 가 스님을 시봉했다. 현각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혜암 스님을 은사로 삼아 사미계를 받았다.

"계 받을 때 특별하게 말씀을 해주신 건 없었고요, 다만 '현각'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는데 그때 저는 저 나름대로 현각이란 법명을 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법명이 마음에 쏙 들었지요. 큰스님도 조카라고 해서 저에게 특별하게 대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큰스님의 제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여겼고,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을 황홀하게 생각했습니다."

현각은 1977년 동안거가 해제되자, 정월에 계를 받은 종묵하고 혜암 스님을 따라서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갔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낸 곳이 상무주암입니다. 낮에는 나무해서 지게질을 하고, 밤에는 참선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정식 공양은 점심뿐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멀건 죽이고, 오후에는 불식(不食)을 했으니까요. 공양 준비하고 올리는 일은 광명화보살님하고 늘 한 두 분의 보살님이 도왔습니다."

현각은 속가에서 12세 때부터 낫질과 지게질을 해보았으므로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다. 속가에서는 권력이나 부(富)가 전부인 양 생각했는데, 암자에서 참선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행복했다.

"큰스님께서는 속가 사람들을 출가시키거나 불심을 심어주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자 저에게 기대하고 참선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978년에는 저의 정진하는 모습에 믿음이 가셨는지 '너는 토굴생활 혼자 해도 되겠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상무주암을 떠난 현각은 해인사를 거쳐 1980년에 서울로 갔다. 사형 무일 스님이 주지로 있는 화곡동 관음정사로 가 승복을 입은 채 전철로 타고 오가며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출가해 학문에 대한 갈증이 컸기 때문이었다. 전철을 이용하여 학원을 다니면서도 화두는 놓지 않았다.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고?'

그런데 어느 날 화두에 대한 알음알이가 생겼다. 현각 나름대로 화두가 풀어져버렸다. 학원에서 배우는 난해한 방정식처럼 해답이 나와 버렸던 것이다. 화두를 수학문제처럼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답이 없어야 화두는 활구(活句)가 되는데, 그 반대가 됐으니 현각의 화두는 사구(死句)나 마찬가지였다.

할 수 없이 현각은 혜암 스님에게 '화두를 드는 재미가 없어져버렸다'고 고백하는 편지를 썼다. 그러자 혜암 스님이 곧 자상한 답장을 보냈는데, 현각에게 다시 준 화두는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이었다.

대연 거사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현각 거사님 큰스님의 유물이란 무엇입니까."

"큰스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한 장입니다."

현각 거사가 주머니 속에서 편지봉투를 꺼냈다. 봉투 속에는 혜암 스님이 현각 거사에게 보냈다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대연 거사는 편지를 빼앗듯이 받아들고서는 단숨에 읽었다.

父母未生前我本來面目 是甚?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나의 본래면목이 이뭣고

心馬跳走暫不停

'화두 드는 재미' 잃은 현각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해

捉來捉來又捉來
如是久久日久深
不捉自來在目前
始到如是境界時
不意自覺本自性
傍人若問心在處
月到天心夜三更
미친 마음 말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뛰어 달아남에 잡아오고 잡아와 또 잡아와서
이 같이 오래오래 날이 깊어지면
잡아채지 않아도 스스로 와 눈앞에 있으리라.
비로소 이 같은 경계에 이르게 될 때
뜻밖에 본자성을 깨닫게 되리라.
마음이 있는 곳을 옆 사람이 묻는다면
달은 한복판에 이르렀고 밤은 삼경이로다.

이 문중에 와서는 알음알이를 쓰지 말라(入此門內莫存知解)

화두는 격외선(格外禪)이라. 분별심(分別心)으로 알려고 떼고 붙이고 하지 말고, 다만 모든 곳을 향하여 의심을 일으켜 들어갈 뿐이다. 자미(滋味)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곳으로 파고 들어가거라.

우선 이만 줄인다.

혜암 스님의 글씨는 또박또박 했다. 편지지가 뚫어질 정도로 눌러 쓴 글씨였다. 현각을 제도하겠다는 스승으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편지지 안에 가득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1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3시 ~ 29일(음 6.8) 3시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태도를 배우려면
봄을 미워 배듯하여
연기가 나더라도 쉬지를 말지어다.
불꽃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혜암 대종사 법어 –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불서광장



신라원측의 유식사상 연구/남무희 지음/민족사 펴냄/1만8000원

원측(613~696) 스님이 살다 간 때는 신라의 격변기였다. 왕족으로 태어나 3세에 출가하고 15세에 당으로 유학을 간 원측 스님은 측천무후의 존경을 받았고 번역 사업에 공을 이루었다. 저자는 이 연구서를 통해 신라와 중국대륙의 격변기를 살면서 독보적인 화쟁적 유식학을 완성한 원측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집중 조명하고 있다. 원측 스님이 주창한 '서명학파 유식사상'의 성립 배경과 과정다른 학파와의 관계 등을 망라했다.



불교의 근본 원리로 보는 반야심경 금강경/김윤수 지음/한산암 펴냄/2만원

'공' 사상을 가르치는 반야부의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심경>과 <금강경>이다. 저자는 이 두 경전을 자세히 풀어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나침반으로 삼기를 바라며 책을 썼다. 그러나 이번 개정판을 내며 좀 더 심화된 설명으로 두 경전의 깊이를 쟀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반야부의 경전이 나오기까지 불교의 성립과 전개 상황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왕초보 불교교리 박사 되다/고명석지음/민족사 펴냄/9500원

책의 이름대로 왕초보를 위한 불교교리 해설이다. 민족사의 왕초보 시리즈는 이미 불교 초심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교과서가 되었다. 교리란 한 종교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이 책은 종교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문을 연다. 연기법 12연기 사법인 사성제 팔정도 등 기본교리부터 않으면 바른 신행을 할 수 없다. 이 책은 대승불교 불교역사 신행 등 분류별로 필수적인 교리들을 상세히 풀이하고 있다.



번뇌를 지닌 채 부처가 된다/석진오 지음/우리출판사 펴냄/1만5000원

부처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중생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중생이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중생은 영원히 중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생이 가지는 번뇌를 다 털지 않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 역설이야말로 부처의 눈을 얻으려는 중생의 부단한 노력을 독려한다.



당신을 위한 맞춤요가/서머필드 코젝 지음/곽미자 옮김/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펴냄/2만5000원

5000년 역사의 아유르베다 의학 체계에 바탕을 둔 개인의 체질에 적합한 아사나(자세)를 다루고 있다. 아유르베다는 인간의 체질을 마음 몸 유형을 나눈다. 이를 도샤라 하는데 각 도샤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음식 환경 생활 양식과 운동에 영향 받는다. 균형을 이룬 도샤는 행복과 편안함을 주지만 불균형적인 도샤는 불편함과 질병을 가져 온다.



불편과의 악수/정묵훈 지음/21문예정신 펴냄/1만원

다양한 형식과 실험정신으로 시를 스는 작가는 시 속에 잠겨든 각양각색의 어조를 통해 격렬한 충동을 분출하면서 통찰의 눈빛을 유지한다. 시인은 현대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에게 삶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끊임없이 묻고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진가를 포획하는 작가의 시선을 따라 가다 보면 근원적인 고독이 보이고 고독을 즐기다 보면 삶의 가치가 느껴진다.

부처님 목소리 들리나요?

홍사성 시인 '한권으로 읽는 아함경' 통해 삶의 지혜 전달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신(天人)이나 용이 아니다. 지나간 수많은 세월을 살펴보니 이런 저런 인연에 얽혀서 방황했지만 이제 번뇌를 끊고 나쁜 버릇을 버려서 삼독 번뇌의 가시를 다 뽑아버리고 나고 죽는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붓다(buddha)'라 이름 하느니라."(잡아함 '인간경')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원형적이며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함부 경전. 홍사성 前불교방송 상무가 현실생활속에서 삶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기 쉽게 정리한 <한권으로 읽는 아함경>을 펴냈다.

작가는 아함부 경전 가운데 생활수행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주옥같은 알맹이들을 간추려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인과응보', '행복과 평화', '자비와 공덕', '올바른 생활', '노력과 정진', '나눔과 선행', '포교와 설법', '반성과 참회', '겸손과 양보, 그리고 인욕', '수행의 길', '마음 닦기', '청정한 삶', '사색과 성찰' 등 주제별로 300 가지 법문을 한 권으로 묶었다. 사변적이고 이론적이며 논증적인 교리보다는 읽어서 이해가 되고 남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전 위주로 선별했다

작가는 "옆에서 얘기하듯 자상하게 들려주는 아함경의 부처님 말씀은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맑은 눈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부처님은 실천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1964년 동국역경원이 설립돼 아함부 경전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아함경>은 부처님 입멸 후 100일 만에 정법의 인멸을 우려한 제자들이 당시 인도 라자가하 칠엽굴에 모여 최초로 결집한 경전. 최근 4부 아함의 팔리어 원전인 니까야(Nikaya)가 번역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권으로 읽는 아함경>의 출간은 쉽고 자상하면서도 삶과 수행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초기경전이 각광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시대사 | 2만5000원

김성우 기자

깨달음 · 열반 강조한 초기경전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의처(依處)를 여의고, 전생(轉生)을 여의고, 대상을 여읜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우다나)

빠알리대장경 쿳다까니까야에 소속된 <우다나(Ud?na)>에 나오는 '열반'에 대한 부처님 법문이다. 깨달음이나 열반은 개념적 사유로 파악될 수 없고 오로지 성자의 지혜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라 '극묘(極妙)'라고 불리고, 유위법적 사유의 근본구조를 초월하므로 '극난견(極難見)'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런 점에서 초기경전 가운데 '깨달음'과 '열반'에 대한 감흥어린 시구들을 그 인연담과 함께 들려주는 <우다나>는 가장 심오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이 <우다나>와 그 주석서인 <우다나의석>을 함께 번역, <우다나, 감흥어린 시구>를 발간했다. 1999년 <쌍윳다니까야>를 출간한 이래 많은 초기경전을 번역한 전 회장은 지난 해 <법구경-담마파다>에 이어 방대한 주석을 곁들인 또 하나의 중요한 초기경전을 한국 불자들에게 소개한 것.

전 회장은 "최상의 행복(至福)에 도달하기 위해 중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다나>만큼 탁월하게 설명한 경전은 없다"면서 "양극단을 여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우다나의 가르침은 생명에 대한 폭력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더욱 피부에 와닿는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우다나-감흥어린 시구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3만

엄마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누구에게나 '엄마'는 근원이다. 엄마의 자궁속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곳은 없다. 모든 인간은 바로 그 자궁에서 나왔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번뇌와 갈등과 투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궁속의 평안을 되찾으려는 노력, 그것은 바로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불성을 깨닫는 것, 끊임없이 자신을 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엄마는 가장 맛 좋은 바나나 같고 맛난 쌀과 같고 벌꿀이나 설탕 같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랄뿐입니다." 틱낫한 스님의 바람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엄마라는 근원에 물길을 대고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분명하게 응시하라는 것이다.

임연태 기자



엄마
틱낫한 지음/이도흠 옮김
아름다운 인연 펴냄|9800원

모든 게 생애 단 한 번 뿐인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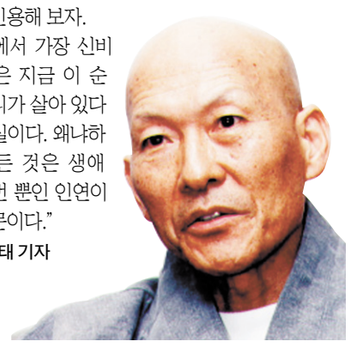


일기일회
법정 스님 지음
문학의 숲 펴냄|1만5000원

법정 스님의 법문집이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철마다 펼친 법문들을 다듬어 묶은 것이다. 법정 스님의 에세이들이 서점가의 장기 베스트셀러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법문집이 나옴으로 스님의 법향이 더욱 진하게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올봄에 한 법문에서부터 2003년의 법문까지 총망라됐다. 세상을 바로보고 바로 사는 길을 열어주는 법정 스님의 법문들은 묵은 전적 속의 진리가 아니라 생활 현장의 실천을 담보하는 활구들이다. 그래서 에세이와는 다른 힘으로 시선을 잡아당긴다. 한 말씀만 인용해 보자.

"삶에서 가장 신비한 일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생애 단 한번 뿐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2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혜국	사유수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승가의범	동주	홍원사
5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6	인과경	현담	선
7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한마음선원
8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9	행복한 출근길	법륜	정토
10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미래를 열어가는 불[火]의 불멸조(不滅鳥)

불멸조는 미륵의 시대(현재)로 미래의 신장불 용화세계의 불새로써 세 방위의 날카로운 칼날이 액운액살을 일시로 소멸함으로서 앞길을 뻥뻥 뚫어주고 열어주는 아주 영험(靈驗)한 길조(吉鳥)입니다.



의장등록번호 제 2008-0052952호
크기 : 높이 22cm×폭 26cm

미륵부처님의 지혜로운 보석을 안착하여 가정의 앞길을 밝혀주는 두배의 영험력으로 최고의 행운을 열어주는 길상으로 알려진 천연 백수정[石英, Quartz : 신의 얼음]을 안착하였으며 순금으로 도금하여 순금의 생체활성파장(生體活成波長)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의 호신불(護身佛)입니다.

삼신일체사상인 천(天), 지(地), 인(人:삼각형,빨강색)의 원력이 함께하여 기도성불,성취되게 하며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이 불멸조는 법당,전안,가정, 사업장, 자동차 등 육해공을 움직이며 다니는 모든 곳에 두시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요즘 많이 떠다니는 영혼들의 액운, 액살, 잡귀 등 등의 조화 부림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로 인하여 가정에는 행복, 건강, 부부금슬(夫婦琴瑟)이 좋아지고 사업장에는 사업번창이 자동차나 움직이는 곳에는 안전과 사고예방을 하는 힘과 원력으로 지켜주는 미래(지금)의 꼭 필요한 불멸조입니다.

(현재 많은 불자들이 영험하다고 스스로 몸으로 느끼고 있으며 신기하다고 함)

◇ 보시금 : 330,000만원

계좌 번호 : 우체국 100941-02-294031 (예금주 : 엄 홍수)

구입 문의 : 핸드폰 010-8674-5351 / 070-7644-8684

안양 불교대학 신입생 및 합창단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인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은 불교대학 신입생 및 합창단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성공양으로 전하며 함께 수행 정진하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과 정	내 용	일 정	자 격	인 원
기초반	기초교리	매주 화요일 오후2시~4시	제한 없음	100명
경전반	금강경.지장경	매주 금요일 오후2시~4시	제한 없음	100명
야간반	기초교리.금강경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제한 없음	100명
합창단	합창연습	매주 목요일 오후2시~4시	만 60세이하여성	99명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접수및문의 :
지장선원 종무소
031) 444-5935



大韓佛教 曹溪宗
地藏禪院 安養佛教大學
財團法人 曹溪宗 安養佛教文化院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

전세계불자를 위한 묵산(默山) 큰스님의 자비의 소리...

금강경 강송 (金剛經 講頌)

KUMKANGGYUNG RECITATION



2009년 88세 원로 큰스님을 모든 중생들의 교화를 위하여 중생제도에 정진수도중에 있으며 2008년 5월 금강경의 노래를 CD로 제작하여 전세계에 보급중에 있습니다.

묵산 큰스님의 금강경의 노래를 듣고 모든 불자님들! 모두가 자성 찾아 성불합시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동 산1 보림선원
San1, Jungyung4-dong, sungbuk-gu, seoul Korea
TEL : 82-02-914-6187

화폭에 구현된 '다선일미' 한화

김창배 화백 6월 18~21일 대구서 전시

"용과 봉을 잘도 그려 둥글고도 아름다워/ 만금을 허비하여 온갖 떡차 만들었네/ 누가 알랴 스스로 풍요로운 참빛깔 참향인 줄/ 한번 물들고 나면 참성품 잃어버리네." (동다송)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일컬어지는 초의 선사와 차를 지극히 사랑했던 추사 김정희는 "차 마시면 일어나고 술 마시면 망한다(飮茶興 飮酒亡)"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차의 정신적인 효용을 강조했다.

특히 초의 선사(1786~1866)는 41세 때 두륜산 대흥사 인근에 일지암을 지어 81세로 입적할 때까지 차와 벗하며 <다신전(茶神傳)>과 <동다송(東茶頌)>을 저술하는 등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사상을 주창하며 조선조 말 쇠퇴기의 차를 되살려 내어 한국 차의 중흥조로 평가받고 있다.

<다신전>에는 찻잎의 채취, 차를 만드는 법, 차의 품질 식별, 차를 보관하는 법, 끓는 물 식별하는 법, 차관을 차잎에 넣는 법 등 차의 전반적인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다신전>에 이어 10년 후 저술된 <동다송>에는 차에 관한 신이한 전설은 물론 우리나라 차가 색향기미(色香氣味)에 있어서 결코 중국차에 뒤지지 않음을 찬탄하는 시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다도(茶道)를 정립한 초의 선사의 명저인 <다신전>과 <동다송>을 그림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책이 나와 화제다. 담원 김창배 화백의 차묵화(茶墨畵) 400여 점이 수록된 이 책은 영어와 일본어로도 번역돼 정통 한국화와 다(茶)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창배 화백은 6월 3~7일 삼성동 코엑스 국제차문화대전 특별전시부스에서 출판기념 전시회도 개최해 호평을 얻었다. 김 화백은 6월 18~2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엑스코 1층에서 열리는 대구세계차문화축제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화백은 "한국 선차(禪茶)의 유구한 전통과 수행전통을 <동다송>과 <다신전>을 통해 그림으로 드러내고 싶었다"면서 "선과 다도가 둘이 아닌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화백은 정보통신부 연하엽서 작가로 세 번 선정돼 '차(茶)가 있는 풍경'을 그리는등 다도(茶道) 풍경을 그리며 우리나라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 온 화가이자, 다인, 작가이다. 근현대 인물화의 대가인 금추 이남호(1908~2001) 선생의 제자인 김 화백은 추계예술대와 예원예술대학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차와 회화, 차 문화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온 그는 화문집 <차 한잔의 풍경> <차 한잔의 인연> <차 한잔의 명상>과 차묵화첩, 차문화 화필기행과 <한국의 달마1, 2>등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미협, 고려대 교육대학원, 부산여대, 군포시청, 김해시청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 (02)736-7445 김성우 기자



김창배 화백과 그의 다묵화 '다선'(위). '차 한잔의 여유'(아래).

다서화와 차도구의 모든 것

이병인 교수 등 '한국의 다서화' '한국의 차도구' 펴내

우리 나라의 다서화(茶書畵)와 차도구에 대한 종합 연구서가 나왔다.

한재다회(寒齋茶會) 지도교수인 이병인 부산대 교수와 한재다회 고문인 이경영 동국대 교수와 이상혁 호서대 교수는 공동으로 <한국의 다서화> <한국의 차도구>(신라문화원刊)를 나란히 펴냈다.



이병인 교수.



<한국의 차도구> <한국의 다서화> 표지.

<한국의 다서화>에는 다서화의 정의와 종류, 특성에 대한 분석 등 기초지식을 설명하고 조선, 근대, 현대의 다서화를 시대별 인물별로 작품과 함께 해설했다. 아울러 저자가 소장한 다서화에 대한 인연담과 사상적 배경, 감상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이병인 교수는 "다서화란 차를 마시는 공간인 다실(茶室)에 거는 글씨(茶書)와 그림(茶畵)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우리 전통 다서화에 대한 고찰과 다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글씨와 그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다서화 작가들에 대한 인물평과 작품 소개를 시도했다.

한편, <한국의 차도구>는 저자가 70년대 후반부터 차를 즐기며 전통가마의 도예가들을 찾아다닌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다관(茶罐)과 찻사발(茶沙鉢)을 중심으로 차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내용, 주요 차도구 도예가들을 소개하고 그동안 애용해온 차도구를 '내 마음의 차도구'란 주제아래 정리했다. (054)774-1950 김성우 기자

'미얀마의 삶 그리고 마음' 특별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8월 30일까지



미얀마의 합(盒).

서울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은 5월 27일~8월 30일 기획전시실에서 '미얀마의 삶 그리고 마음'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에는 미얀마의 불상, 경전, 불단 장식물 등의 각종 불교 미술품과 합(盒), 전통악기 등의 민속품 40여 점이 선보인다. 불교가 생활 그 자체로 발전해 수많은 불교사원이 세워지고 생활용품 곳곳에서 불교를 찾아볼 수 있는 미얀마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권대성 관장은 "박물관은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은 동남아시아의 독특한 불교미술을 알리고자 2007년부터 '불교의 나라 특별전'을 열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현세와 내세의 삶속에서 고통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미얀마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주 금 ·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전시 설명회가 열린다. 관람료는 성인 5000원, 학생 3000원. (02)766-6000 김성우 기자



미얀마 불전도.

사찰음식 초대전 열려

거제 금강사, 6월 14일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는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사찰음식 및 세계 각국 음식 초대전'을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개최한다.

한국 전통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비구니스님들이 직접 만든 60여 가지의 사찰 음식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300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준비한 세계 각국의 음식이 선보이며 테너, 풍물패 초청 음악 공연도 함께 마련된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 모두에게는 전통 사찰 음식이 점심으로 제공되고 세계 각국 음식전에서 음식을 선보인 다문화가족 중 우수작을 선발해 시상식도 개최한다.

금강사 주지 성원스님은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확산과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055)636-8634 김성우 기자

갖가지 도장 매력 발산

수안 스님 전각 작품 모은 '수안인보집'

30여 년 간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자연을 화폭에 담아 선심(禪心)을 전해 온 수안 스님(69 · 문수원 주석)이 그동안 발표한 300여 전각 작품을 모은 인보(印譜; 여러 가지 도장을 찍은 형적을 모은 책)집을 최근 펴냈다.

<수안인보집>(문수원 펴냄)에는 <반야심경> 전각 2질과 경봉 · 서옹 스님 등이 사용한 낙관과 인불(부처님 전각), 선구(禪句) 등을 200여 쪽 분량으로 실었다. 국내 스님이 인보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안 스님은 "시와 글, 그림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전각까지 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라면서 "전각은 예술의 최종 단계로 한국 불교미술사에서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13~26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선화전을 가진 바 있는 수안 스님은 하반기에 독일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윤달 든 해에 소장하시면 좋습니다.

액운을 소멸시켜주는 금동반야심경

금동반야심경을 소장하시면…

황금색은 재앙을 막아주고 기운을 모아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정에 금송아지나 금두꺼비를 소장하는 유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금동 반야심경은 사람의 기를 북돋워 주는 것은 물론 모든 액운을 소멸시켜 주며, 특히 대반야경의 정수만을 가려 낸 경전으로 대학입시 자녀를 둔 가정, 사업번창을 기원하시는 가정, 집안에 삼재가 있으신 불자님 가정에 꼭 필요한 소장품입니다.

- 크기 : 27.5cm×11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170,000원
- 사찰단위 단체주문 환영
- 공료패, 감사패 대용으로 좋습니다.



금동반야심경 팔만대장경판 (국보 제32호) 축소판 ▲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소장하시면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무량삼매와 변재(辨才:이치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분별하는 재주)를 얻으며, 모든 구하는 바를 얻게 되고, 여자가 남자로 나기를 원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일체 중죄와 삼보를 훼손한 죄도 소멸된다.

- 크기 : 지름 10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90,000원

생전예수재의 공덕 (법공양판)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요약해서 수록하여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부 이상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사륙배판, 80페이지
- 정가 2,500원



생전예수재 용품

내용물 :
함합소 · 금강경 · 만관 · 금강경찬
칠마 · 천수다라니 · 돈다라니
소다라니 · 탑다라니 · 개팔천
수생경 · 지전



예수재 행사 장엄등

※ 일반 행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핸드백에 쏘~옥 들어가는!

법공양으로 좋은 한장본 불서

포켓용



◆ 크기 : 10cm×17.7cm

• 관세음보살보문품	90페이지	3,000원	• 천수 · 반야심경	100페이지	3,500원
• 예불독송경	89페이지	3,000원	• 천수 · 관음경	110페이지	3,500원
•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3,000원	• 무상법문집(영가전에)	110페이지	3,500원
•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3,000원	• 천수 · 금강경	166페이지	4,000원
• 천지팔양신주경	94페이지	3,000원	• 금강 · 아미타경	162페이지	4,000원
• 지장보살예찬문	78페이지	3,000원	• 지장보살본원경(상)	163페이지	4,000원
• 금강반야바라밀경	144페이지	3,500원	• 지장보살본원경(하)	175페이지	4,000원
•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3,500원	• 지장참회예문	186페이지	4,000원
•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3,500원	• 관음참회예문	190페이지	4,000원

전권(18권)을 구입하시면 20% 할인해 드립니다.(63,000원→50,000원)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30 밥은 꿈

국수는 역경 속에서 꾸는 꿈

사방을 둘러봐도 무엇을 파는 곳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야외 테라스가 마련된 가게 입구에서 고작 발견한 것은 '타래면'이라고 쓰인 코딱지만 한 간판이다. 호기심이 발동해 가게 안을 성큼 들어서본다. 드문 드문 놓인 테이블이 여유로운 운치를 자아내고 천장 한쪽에는 굵은 전선줄이 실타래마냥 감겨있다. 도회적이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가 유행을 선도하는 압구정의 거리와 잘 들어맞는다. 안팎의 분위기를 조목조목 살펴본 결과, 커피와 간단한 샌드위치 정도를 곁들여 파는 가게임이 분명하다. 쓴 커피라도 한잔 들이킬 요량으로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들여다보는데 이게 웬걸. 메뉴판에는 온통 국수 천지다.



도회적이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의 국수집

"다들 처음에는 커피를 달라고 하죠. 간판도 생략했고, 오픈하면서 그 흔한 전단지도 돌리지 않았어요."

이 불황의 시대에 무슨 똥배짱인가? 하지만 가게 쥔장인 임사장의 전략과 두둑한 배짱이 왠지 얄밉지만은 않다. 시대를 거스르거나 앞서가는 생각의 이면에는 필경 그러한 배경이 있을 터. 이를테면 삶의 굴곡이나 굴하지 않은 소신 같은 거 말이다. 그러한 이야기 한 토막을 들어보고자 쥔장과 마주하고 보니, 가게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풍겨오는 인상이 그야말로 뚝배기다. 팔목에 감긴 굵은 염주알은 아마도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는 듯한데.

"어렸을 때 수덕사가 놀이터와 다름없었죠. 결국엔 원담스님한테 찍혀 유발상좌가 됐고, 그 바람에 법장스님의 사제가 되고 나중엔 또 법장스님의 유발상좌가 되었죠."(웃음)

골목 어귀를 지키다 지나가던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곤 해 유치장 신세를 질 뻔했던 사춘기 시절에 법장스님은 보호자가 되어주곤 했단다. 그렇게 방황하던 청년기에 스님의 경책에 정신을 차려 성인이 되어서는 성실한 사업가로 성공과 부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부인과의 사별과 사업이 부도를 맞은 위기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해 집을 감옥삼아 살던 시절도 있었더란다. 국수는 그러한 인생역경 속에서 재기한 임사장의 다시 꾸는 꿈이다. 그런데 하필 국수를 택한 것일까?

"국수를 워낙에 좋아하거든요. 특히 멸치국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전에 양수리에 가면 멸치국수를 아주 잘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일하다가도 그 집 국수가 생각나면 양수리까지 가곤했죠."

임사장의 남다른 멸치국수 사랑은 장사에도 고스란히 적용돼, 타래면의 모든 국수 국물의 기본은 단연코 멸치다. 그 세세한 노하우까지 밝힐 수는 없으나 대충만 귀띔하자면, 일 년을 폭 묵힌 여주산 멸치에 다시마와 한약재를 첨가한 것이 그 비결이란다. 그의 국수에 대한 애착과 정성은 면발에서 더욱 드러난다.

"남들도 다하는 국수는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데서는 팔지 않는 국수가 뭐가 있을까 궁리하다 모시녹차국수를 개발하게 됐죠. 사실 처음에는 녹차메밀국수를 만들어볼 생각이었는데, 녹차의 쓴맛만 나지 도무지 푸른빛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시골사람들이 모시로 떡을 해먹던 생각이 나서 모시를 섞어보았더니 그제야 푸른빛이 돌면서 맛도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생경한 국수에 낯설어하던 손님도 그 맛을 일단 보면 이후로는 모시녹차국수만 찾는다는 게 그의 자랑이다. "남들과 달라야 성공한다"는 임사장의 사업방침은 음식재료뿐 아니라 그릇과 테이블, 심지어는 국수에 곁들이는 단무지에도 적용된다.

"일단 그릇은 놋그릇을 써요. 테이블도 자작나무로 직접 제작했고, 제가 인공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질색하니까 단무지도 식초랑 설탕만 넣고 직접 담가서 써요. 메밀도 원래 개인농가와 직거래할 생각이었는데, 행여 손님들이 진짜 국내산 메밀인지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봉평의 농협과 직거래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나도 인생역경의 극복과 국수에 대한 사랑과 집념으로 이뤄낸 꿈의 국수 한 젓가락을 맛보련다. 이왕이면 매운 맛을 된통 봐야 인생의 단맛을 더욱 알 것 같기에, 매운 맛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타래범벅이라는 국수를 시켜본다. <계속>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36 소통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남녀 간 '차이점' 알아야 서로 더 깊게 이해

#대화 필요한 여자, 동굴로 숨는 남자

동의보감에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라하여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통한다는 문제는 우리의 육체 건강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흔히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도 하나의 art(여기서의 아트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란 의미로 쓰인다)이기에 본래부터 타고난 남녀 간의 차이점을 알아야 서로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고, 배우고 습득해야만 좀 더 행복하고 진실된 사랑도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남녀는 서로 뇌구조 자체가 다르게 타고났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상대를 바라보면 그 때부터 불행은 시작되고 괴로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감정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를 원망하며 강요하는 것도 무리이고, 남성들이 자신들의 단순하면서도 무미건조한 감정 상태를 납득하지 못하는 여자들을 귀찮아하며 무시하는 것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다툼과 갈등, 고통과 불행이 시작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 중에 하나가 서로 화가 난 케이스다. 일단 여자는 화가 나면 "우리 얘기 좀 해"로 운을 뗀다. 이 말은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이며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남자들은 정말로 할 말이 없어진다.

'내가 뭘 또 잘못한 걸까?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까?' 이런 생각들로 멍해진다. 반면 남자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 채면 "또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하고 말문을 연다. 이 때 여자들의 대부분은 "별일 아냐, 아무 일 없어"라고 단호하게 얘기한다. 그럼 남자들은 정말로 아무 일이 없고 별일 없는지 알아듣고 '휴~~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자들의 별일 없다는 얘기에는 무척 많은 별일이 있고 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자세하고 상냥하게 물어 봐 달라는 함축적인 뜻이 담긴 것이다.

그런데 서로 이런 '싸인'이 맞지 않다보니 이때부터 서로 티격 거리게 되고 급기야 여자들은 더 많은 얘기를 해보라며 꼬치꼬치 따지고 요구하다 안되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더 이상 무엇을 얘기하냐고 소리치다 심하면 폭력적이 되고 안되면 그야말로 혼자서 동굴로 꽁꽁 숨어 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남녀 간의 생리이다.

홧병이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 분들 중에는 바로 이러한 부부간, 또는 연인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더욱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많다. 즉 "내 마음, 나의 상태를 너무 몰라주는 상대"로 인해서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둘 사이에서 느끼므로 그 고통은 더욱 크게 느껴지고, 급기야는 혼자힘으로 해결이 안되니 병원까지 방문하게 되는 케이스들이다.

#갈등 푸는 어렵고도 간단한 방법

그러나 우리가 본래부터 타고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훨씬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고, 무겁고 우울하게만 느껴지던 상대방의 입장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배려가 생겨날 것이다. 다음시간에는 화가 나고 열 받아 미칠 것 같아도 조금만 숨고르기를 하고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 내게도 쌓이는 울화 없이 상대와 시원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계속>



정성근 거사의 **천년초 이야기** 10

변비와 피부 회복에 탁월한 효능

지난 연재에서 천년초를 경험한 8명의 공통적 특징과 경험들을 언급했었다. 혹자는 그럴 것이다. 천년초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냐고…. 그럼 과연 만병을 통치하는 약이 과연 있을까? 필자는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허균 선생님은 동의보감에서 만병을 다스리는 처방을 우리가 주로 먹고 접하는 식품들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물론 의원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뭇 백성들에게 그들이 재배하고 섭취하는 음식들과 주변 산과 들의 효능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처방하려 한 것이라는 큰 뜻으로 집필했다지만 사실 이 연재의 초반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현대인들의 기능이상병(성인병)은 우리 섭생이 잘못된 것이 중요 원인이라 지적했다. 순수한 자연환경에서 자라고 난 식품을 섭취한다면 사실 웬만한 병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필자가 권하고 싶은 것은 가공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섭취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바쁜 도시 생활에서 그렇게 유지하며 먹고 산다는 것은 매우 큰 힘들다. 이상적인 건강식을 선택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필자는 조상님들이 큰 삼이라 불렀던 태삼(太蔘)천년초를 상복하도록 권한다.

한 주부의 사례를 들면, 그는 가정에서 건강식을 모두 갖춰 못 먹지만 천년초는 섭취하는 경우다. 이 주부는 위궤양과 갑상선항진을 앓고 있었고 딸은 변비에 여드름이 심한 상태였다. 이 가정에 스님 한 분이 천년초를 섭취해보라는 권유를 해주셨고 이들은 천년초를 생잎으로 먹기 힘드니 파우치에 담은 형태로 구입을 해서 먹었던 모양이다. 처음 한 달을 꾸준히 먹었는데 한 달이 다 지나기 전에 둘에게 호전 반응이 나타났다. 일명 명현반응 이라고 부르는 증상으로 소변양이 적어지고 손발이 퉁퉁 부었고 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너무 아프면 잠시 천년초 섭취량을 줄여 보라 해서 줄이며 계속 먹었는데 주부는 속이 놀랍도록 편안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으며 딸은 변을 하루 한번 너무 시원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천식을 앓고 있는 가장은 피로감이 확연히 줄었다고 한다. 이 가정의 따님도 역시 필자의 처제처럼 말을 안 해도 꼭꼭 챙겨서 천년초를 먹고 있다고 한다. 천년초를 선물한 지인 중에 변비가 있었던 분이 있나보다. 삼일에서 사일 어떠한 때는 일주일이 넘게 화장실을 못갔던 모양이다. 하루는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선물해주신 천년초 먹으니 하루 한번 무조건 화장실을 보내는군요." 그러면서 매우 밝게 웃는게 아닌가? 천년초의 별명을 '하루 한번 화장실 보내기'라고 지어야겠다는 말을 덧붙여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선물한 나로서도 매우 기뻤던 기억이 있다. 이 분들이 겪은 일부 사례는 유독 변비가 아니다. 이후 피부가 좋아지는 것은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감탄으로 알게될 것이다. 전인적인 정상적 기능의 회복은 무엇으로 얻을 것인가? (02)780-0098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바로 그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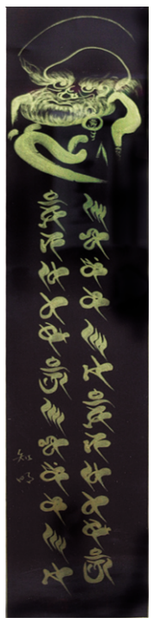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식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종교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청암(靑巖) 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립니다
(5점이상 50% 할인)
부산 051)202-8770
www.달마.kr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현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각사)
02-365-1345
010-9114-4345

불교행사 해드립니다
범음범패, 49재, 천도재, 회심곡, 법고춤, 바라나비춤
상담하시면
성심 성의껏 집전해 드립니다 (작은 암자포교원)
010-8677-378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전통 범패 배우면서 부전 하실 분 모십니다
(45세미만 / 마산)
016-428-6665

큰 법력으로 사물 · 바라 ·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입종 시다림재 및 구병시식, 불상, 불화 점안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공양주 보살 구함
신심 있는 공양주 보살을 모십니다.
(연령: 50대전후, 숙식 제공)
진해
055-552-51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전후 애기와 같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010-4500-6029

좋은 인연 찾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경남 양산시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절에서 한평생 기도하면서 같이 지낼 욕심 없고 마음씨 고운 불심이 지극한 45-55세 미만 보살님.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1-879-2544

문화재를 소장하고있는 법납 30년 조계종 비구승 단시일내 불사가능하니 서울 · 경기근교로 도량을 맡겨주실 귀한인연기다립니다
010-4500-8234

50대 중반 비구승입니다 부전 소임 원합니다
010-5424-3820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비구승)
010-6267-3595

보시를 기다립니다
삼보 귀의 하옵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을 포교하고자 포교원을 조성하였으나 무소유의 시작으로 지장보살님(2.3치)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뜻깊은 대덕스님과 불자님께서 보시를 해주시면 큰공덕으로 기도 정진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010-6577-5955

세수 70세 이상 승납 30년 이상 노스님 무보시로 10분만 모십니다
방부는 현대식으로 일인 일실입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세수 50세이상 승납 10년 이상)
경북 문경시 농암면 쌍룡사
054)541-675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
한국불교태고종 천인사
031)773-7746

버려진 토굴이나, 빈 암자에서 수행정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곳을 알고 계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010-3820-52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 양평 용문)
010-7340-8765

60대 비구가 주석할 사암을 찾음
011-9429-5786

사주학 수강생 모집
"사주공부의 핵심은 음양오행과 육신이다"
초보에서 통변까지 책임지도
정통사주학 완성 저자 직강
- 소수정예반 : 3명이내 또는 1:1 개인지도

종로3가역 1번출구 낙원상가 방면
김현산 역리원
011-9113-8545 / 02)741-8449

정통사주학 완성 (수기본)
"사주학은 쉽게 배워서 쉽게 통변할 줄 알아야 한다"
이책으로 사주학 공부를 완성하세요.
- 저자 : 김현산 - 정가 : 25,000원
- 구입처 : 김현산 역리원

한옥 / 사찰 (寺) 건축 전문
-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일체 고(古)건축 전문 기술자, 기능인들이 완벽한 이론과 경험에 기초하여 책임시공.
- 기초, 토목공사 / 골조공사 / 마감공사의 전문성 차별화된 시공 노-하우

031)581-2120 / 010-6405-2060

(재의식) 학인스님 모집
상단불공, 관음시식, 도량석, 대령, 관욕, 시다림, 안택 外 사물
숙식제공. 수강료 무료
(예불참석, 약간의 정근기도 무보시)
- 모집기간 : 2009년 6월 13일
- 모집인원 : 선착순 면접후 약간 명

논산 관촉사 041)736-5701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 다음카페 : 출가생각(http://cafe.daum.net/beamonk)

단기출가학교 모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1일(수) ~ 7월 15일(수) 15일간
- 대구큰절, 갑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은사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모 십 니 다
명산대찰 대가람 사찰 동참 운영할 분
1. 위 치 : 울산 경주 경계 (부산, 울산, 포항, 경주, 대구에서 1시간 거리)
2. 사찰규모 : 사찰건물 약 350평 대지 2,000평 및 임야
3. 사찰신도 많음
4. 능력과 약간의 재력이 있는 분

010-3300-5737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학(사주명리)수강생 모집
◆ 초급반 : 강의기간 : 9개월(주당 2시간) 수강료 : 20만원
강 사 : 금요반(이선종 선생), 18:30~20:30
토요반(정도형 선생), 11:00~13:00
6월중 개강
◆ 전 문 반 (통변) : 실제 상담기법 등을 체험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강의 기간 및 시간 : 3개월 과정, 매주 월요일 18:30~2시간 수강료 : 월 20만
강의 내용 : 통변론과 용신론 심화과정, 삼대복신론 심화과정, 사주감정 비법 및 실제체험 강의, 적중률 높이는 기술 반복 체험학습수시 수강신청 가능
월간역학교육원 • 한국역학협회 02)2264-0258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CD프로그램 재설치승인 및 교환구입 안내"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 완결판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www.taotemple.net 051)908-868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광혜(지계명)
- 승려번호 : 0108-10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장곡사
- 주 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465-1
- 주 지 : 도영 (김민영)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세명사
  주 소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상1리 769번지
  주 지 : 세명(정운경)
  총 무 : 선허(남미옥)
- 사찰명 : 용천사
  주 소 : 전남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여절 31번지
  주 지 : 선업(윤천수)
  총 무 : 해관(한순주)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대한불교총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잡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이며 설명서대로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1137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증정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iom@hanmail.net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부지 : 3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급양도가 : 2억5천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160평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가액 : 10억 급양도

- 위치 : 서울
- 대지 : 1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급양도가 : 15억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강릉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부지 : 150평
- 전세 : 9천5백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20평
- 가액 : 4억

- 위치 : 인천
- 법당 : 10평
- 요사 : 21평
- 부지 : 60평
- 가액 : 3억9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정관 신도시 (부산시내)
- 총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 2동
- 앞산 뒷산 산세최고
- 차량진입(주차장완비)
- 지하암반수
- 가액: 7억 5천(개인사정으로 급매도)

- 아름다운 지리산 토굴
- 총대지: 1150평(터밭)
- 토굴(현대식): 30평
- 뒷산(30m 암반수)
- 사계절 계곡물 졸졸
  천혜주변경관 및 풍광 최고
- 가액: 2억 2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인접
  토굴 최고 적지
- 법당 : 20평
- 요사 황토방2동
- 부지 : 84평
- 가액 : 2억5천
- 주차가능
  (공부하는스님 최적지)

- 위치 : 부산 바다가
  보이는곳
- 법당 25평 목조건물
- 요사 2동
- 부지 197평
- 가액 : 3억2천
- 주차가능

- 위치 : 부산산세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부지 : 400평
- 가액 : 6억 5천

영주불사 010-9798-1091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 소액 및 고액 다량 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시 소재
- 부지 : 약 100평(종교용지)
- 법당 25평
- 요사 35평
- 가액 : 3억 6천만원
- 특징 : 보물급 탱화가 있는
  도시중심에 위치한 포교도량임

- 위치 : 포항면 신광면 소재
- 부지 : 약 15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채 : 2동 50평
- 가액 : 1억 3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에 위치한 포교
  기도 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사찰 (급)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시내에서 15분
  신행정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472평, 법당 10평
- 요사채 26평, 종각 3평
- 건물 : 흑벽돌
- 기도도량, 경치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011-9402-9306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평수 : 임야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완료
- 가액 : 2억
- 세계최대 와불산이 있고
  소원바위가 있는 곳

010-2554-0347
011-822-0347 주인직접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광명시
- 평수 : 35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에서 20분거리
  대도로변위치 유원지 입구
- 대지133평, 건평70평
  (대웅전 및 요사채)
- 동굴 삼성각, 무허가 건물 40평
- 사찰 마당 뒤 야산 접
  (1000평 이상 쓰고 있음)
- 가액 : 12억

011-286-510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밭 1,000평, 산 3,000평
  대지 90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2.5평
  요사채 60평
- 화장실 3평(외부1), 내부 2개
  주차장 200평
  스님 요사채 25평
- 가액 : 5억 (오셔서 보시고 가액 결정)

010-9219-769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1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서울 이동 관계로

010-3019-2236

사찰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낭성면 화창리
  (낭성–초정사이/청주서20분)
- 면적 : 1,700평(현재–나대지)
- 특징 : 남향,포장도접,관리지역,
  계곡접,경관수려.
- 기타 : 전원택지,기도원부지,
  투자,재테크 가능.
- 평당 : 15만원 / 양도 : 2억5천5백

010-2529-393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 65평, 완벽한 시설
  즉시입주 법회가능
  스님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3천 30만원(월세가능)
  시설비 :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 대지 605평, 건평 130평(4동)
-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 요사채 30평(슬라브 건물)
- 창고 및 화장실 18평)
- 주택 12평(기와건물)
- 가액 : 2억 8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역 근교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도심(빌딩)속포교원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72평, 모든시설 완벽
- 가액 : 1억 8천

010-7188-7723

사찰안내

- 위치 : 충북 영동시내
- 대지 : 57평, 시내 중심 큰길변
- 법당 18평 (벽돌조 단청, 옥상사용가)
- 선원요사 20평
  (벽돌조 심야 보일러)
- 시내 중심지로써 포교위치 최상
- 가액 : 답사후 절충.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스님 상정상 (급) 양도

010-7325-1259

포교당안내

- 위치 : 군포안양지역
-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 2층전체 80평, 방4칸, 화장실2개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1-685-674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5364-0038

전통사찰(급) 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45억(금액조정불가)

010-3683-257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 산호시장 농협 앞
- 2층. 30평. 법당1,방2,주방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001-8476
055)243-3758

별장(토굴)안내

- 위치 : 경기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 2층 건물 1층 50평, 2층20평
- 총 70평 (1층 방 2, 화장실 2,
  대형거실1,주방1)
- 계곡산세 좋음, 사계절 물 흐름
  600m 앞 남한강 앉아서도 보임
- 심야보일러,지하수 및 상수도 겸용
- 조경 좋음, 잔디 앞마당 텃밭
  포함 296평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736-356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9940-9779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2동
  큰도로변 지하철 암사역 3분거리
- 평수 35평, 옥상 35평 약 70평
- 법당, 공양간, 방3
- 가액: 전세: 800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0-3714-363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3억(절충가능)

011-816-9104
011-815-910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4거리
  전철역 옆 인근 재래시장
- 2층 약 30평
- 주방 화장실 목욕탕
  방2, 모든 시설완비
- 보증금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7572-1265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과 경주 사이
- 대지 : 123평,
  사용면적 약 200여평
- 법당 20평, 요사책 40평
- 가액 : 2억

016-436-6579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86평(법당46평), 방3칸,
  공양간,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보살)
- 전세 3,500만원/월세 50만원
  권리금 없음.
- 시설비 및 비품대는
  상의 후결정

010-8011-7444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구 장대동
  금호고속 부근
- 2층 건물 약 40평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37만원
  시설비 500만원
- 역학 보시는 스님 최적지

042)825-3020

사찰(급)안내

- 위치: 수원 화서문 로타리부근
- 대지(면적): 4층 건물중 (2층)
- 건물(시설): 법당, 친견실, 면담실,
  방2, 주방시설 완비
- 법당: 30평
- 특징: 즉시법회가능
  (스님 일신상 문제로 급 양도)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는 최저로 절충

010-3674-525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약목역 앞
- 평수 : 약 45평
  (시설 완비, 공기 청정)
  법당,삼존불,방2,주방,화장실
- 2층건물 중 2층(옥상사용)
- 보증금 1,500만원 / 월10만원
  시설비 1,600만원(약간절충)

054)974-0307
017-217-1919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3분거리
- 전철개통공사 완료
  사정상 급안내
- 상가 3층 중 2층
-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시설 특 A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4000만원 절충가

010-9889-944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평수 270평
- 80년 고사찰
- 법당 22평(공사중)
  요사채 33평(완공)
  산신각, 창고
- 가액: 1억

010-3553-789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옥산동
  대백마트앞 아파트밀집지역
- 시설: 스님친견실, 법당, 공양간
- 법당: 30평
- 특징: 관세음주불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포함 1천만원

※부담없는 금액에 스님이나 보살님의 수행처로 적합
010-3780-6183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당진군
- 대지: 10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영구건물)
  신도실, 창고, 차고, 우물
  (4동 조립건물)
- 석불, 금동불 기타 시설완비
- 가액: 3억원

016-417-4744

임법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5,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3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 기와법당1동, 기와요사채3동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상수도 사용
  창고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국유지: 480평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11억 5천만원

051)862-0108
011-563-1545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조정가능) /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34-854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가격절충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 토지 : 5,800평 전 : 5000여평 대지 : 300여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태백산과 소백산 청양산 줄기가 합치는
  회룡터로써 최고 명당자리 사찰 부처님
  사리탑 조성되있음
- 가액 : 1억 5천만원

054)673-1859
010-2088-1857

팔공산 갓바위 자락

- 위치 : 대구 경산 경계지점
- 교통 아주 편리 4차선 대도로 옆
- 약 400평, 건평70평. 2층 증축 가능
  사찰로 아주 적합
- 양도가 : 6억 5천 절충

011-9571-489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수유동 화계사거리 대로변
- 4층 건물 중 3층 약 40평
- 시설A급,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00-87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해안
  고속도록 발안IC부근
- 대지: 220평
- 1층 요사채 47평, 방 6, 주방1, 거실1, 화장실1
  2층 법당 23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산신당 4평 별도
- 기타 심야전기, 옥외주차장, 약 80평
  옥외 화장실 남,녀 각 1개
- 집기일체 당일 법회 가함. 몸만 오시면 됨
  노령으로 양도코자 함
- 가액: 4억

011-9114-9935

전원주택 ·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텃밭 1개
- 산중턱 황토집, 심야보일러
- 집근처 강이 흐르고 경치가 아주 좋고 , 조경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
- 가액: 3억 3천만원

033)462-9734
016-337-9736

대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1–1번지
- 입지: 일월산 아래 칠성봉 국도와 계곡쪽
- 규모: 대지 2700평, 임야 1만 1천평,
- 건물: 180평
- 가액: 사찰 답사 후 결정 (주지 덕월 직)

054)682-8888
011-538-2211

“불교 공부한 이후 비로소 유학을 알게 됐다”

<36> ‘호법론’의 저자 장상영(張商英) 거사



그림 · 김홍인

불교에 비판적이다가 ‘유마경’ 읽고 삼보에 귀의
‘호법론’ 삼교합일로부터 호법 논한 대표작

북송시기 기라성 같은 수많은 거사들 가운데 소동파 거사와 필적하는 거사가 장상영(1043~1121) 거사다. 거사는 촉주(蜀州; 현 四川省 崇慶)의 신진(新津)사람으로, 자는 천각(天覺), 호는 무진 거사(無盡居士)이다. 어려서부터 매우 뛰어나 하루에 만언(萬言)을 암송했고, 19세에 급제해 신종(神宗)때 왕안석과 함께 ‘신법’을 공모했다.

거사가 불교에 인연을 맺게 된 까닭은 팽제청의 <거사전> 권28에 게재된 거사의 전기에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거사가 처음 통주(通州) 주부(主簿)에 임명받아 하루는 절에서 방대한 대장경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발끈해 “나의 공자(孔子) 성인의 책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구나”라고 말하고는 집에 돌아가 한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침울해 했다. 이에 부인 상(尙)씨가 그 까닭을 묻자 “다만 무불론(無佛論)을 지으려 할 뿐이요”라고 답했다. 상씨는 “이미 부처가 없는데[無佛], 어찌 논이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거사는 그 말이 의심스러웠지만, 그냥 넘어갔다. 후에 다시 그 절에서 <유마경>을 발견하고 읽을 때였다. ‘유마거사의 병은 지대(地大)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또한 지대를 떠난 것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다’라는 구절에 이르자 “오랑캐의 말에도 이러한 것이 있구나!”라고 탄식하며 경전을 빌려 돌아갔다. 부인 상씨가 이를 보고서 “이 경전을 숙독하고 난 후에서나 ‘무불론’을 쓰시지요”라고 권했다. 이후 거사는 점차 깊게 불법을 신앙하기 시작했다.

한편 <불조통기> 권25에도 같은 기사가 보이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불조통기>에서는 이 일을 원풍(元豊) 3년(1080)에 발생한 것이라 하고, <유마경>의 그 구절로부터 대오(大悟)했다고 전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거사는 처음에는 불교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중년에 이르러 그의 부인과 <유마경>에 대한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했음이 짐작된다. 오히려 거사는 불교에 귀의한 이후에 자주 “내가 불교를 공부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유학을 알게 됐다”(<인천보감(人天寶鑑)>)라고 말했다.

신종(神宗)시기에 거사는 왕안석의 추천으로 중앙관직에 오르고, 다시 감찰어사(監察御使)를 맡았다. 원우(元祐) 연간(1086~1093)에 하동(河東)의 제점형옥(提點刑獄)을 맡아 청량산(淸凉山; 五臺山)에서 재계(齋戒)하며 문수보살에게 기도했다.(<불조통기> 권46에는 이 시기를 원우 2년(1087) 7월이라고 함) 이때 거사는 몇 차례 금등광명(金燈光明)이 낮과 같이 환히 비춤과 문수보살이 공중에 화현함을 목도했다고 한다. 이에 거사는 문수보살을 조상(造像)해 산사에 공양하고 <발원문(發願文)>을 찬술했다.

이후, 거사는 동림상총(東林常總), 도솔종열(兜率從悅), 매당조심(晦堂祖心), 대혜종고(大慧宗杲) 등 여러 선사들과 밀접하게 왕래하면서 조사선을 접했고, 진정극문(眞淨克文) 선사에 의해 깨달음을 얻었다. 거사는 선화(宣和) 4년 11월 아침에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표(遺表)를 받아 적게 하고는 세상을 떠났다. “꿈같은 벼슬살이 81년이, 거품처럼 생멸한 것임 누가 알리오. 허공을 치고 부수어 오고 감으로 돌아오니, 쇠로 된 소가 바다로 들어가 소식이 없구나. 베개를 베고 누우니 창문에 부딪는 소리가 우레 같도다.” 입적 후 거사는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거사는 평생 불교와 관련된 수많은 글을 썼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법론>(<대정장> 52권에 수록)이다. 거사의 <호법론>은 당대(唐代) 이사정(李師政) 거사의 <내덕론(內德論)>과 원대(元代) 유밀(劉謐)의 <삼교평심론(三敎平心論)>과 함께 불 · 유 · 도 삼교합일로부터 호법을 논한 대표적인 저작으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거사의 <호법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의할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당시 불교계의 상황에 대한 변론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송대는 유교를 중심으로 치국의 이념으로 삼았지만, 사원의 경제는 유래 없이 번창했다. 그것은 송대에 이르러 상업이 번창해 화폐경제가 발전했고, 그에 따라 사찰의 보시형태가 화폐로 전환됨에 따라 축재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장생고(長生庫)의 경영과 사전(寺田)의 확대, 공덕분사(功德坟寺; 왕공귀족들의 묘지에 짓는 사찰)의 성행 등으로 사원경제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송대 영파(寧波) 천동사(天童寺)의 전답은 3200무(畝; 사방 백 걸음이 1무, 대략 666.5㎡, 약 200평)였고, 임야가 1만8900무였다. 북송의 사전은 민전(民田)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원경제의 비대에 따라 도첩(度牒)의 매매가 성행했고, 승가에 여러 가지 폐단이 출현했다.

대혜종고 선사의 <종문무고(宗門武庫)>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부필(富弼) 거사는 재상에서 물러나 낙양에 머물면서 항상 도를 물었던 화엄수옹(華嚴修顒) 선사를 낙양의 초제사(招提寺)에 주석하도록 청했다. 수옹 선사가 낙양 경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필 거사가 마중을 가려는 중에 마침 <자치통감>을 편찬한 사마광(司馬光)이 찾아와 함께 수옹 선사를 뵈러 갔다. 가던 중 수십 명의 짐꾼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마광이 묻기를, “누구의 짐인가?”라고 하자 짐꾼들은 “초제사에 새로 오시는 선사의 짐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사마광은 돌아가려고 하니, 부필 거사가 “수옹 선사를 뵙고자 하더니, 어째서 먼저 돌아가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사마광은 “저는 이미 선사를 만나 뵈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돌아갔다.

이러한 일화는 당시 사원경제의 비대를 바라보는 사대부들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송대의 불교계를 자세히 묘사한 도융(道融)의 <총림성사>에는 당시 승려들의 타락상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장상영 거사의 <호법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승가에 대한 경책과 함께 변호를 진행하고 있음에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거사는 <호법론>에서는 “정법(正法)이 타락하고 마법(魔法)이 기승을 부림”으로 당시의 불교현상을 진단하고, “오늘의 불교가 비록 1100의 승려 가운데 하나도 능히 고인을 따라갈 자가 없는데, 이것이 어찌 불법의 죄이겠는가? 사람의 죄일 뿐”이라고 해 당시 불교현상을 변호하고 있다. 또한 거사는 “역대로 관찰해보면, 큰 도둑간신과 역적들이 재능이 뛰어나고 박학한 선비들을 이끄는 것이 어찌 선왕(先王)의 죄이겠으며, 경사(經史)의 죄이겠는가? 말법(末法) · 상교(象敎)의 승려 가운데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음은 면할 수 없는 추세이다”라고 논했다. 거사는 당시 불교가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말법시대이기 때문이고, 그 때문에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로 변호했다.

나아가 거사는 이러한 불교의 타락은 단지 불교만의 문제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어찌 불교를 배우는 무리들만이 그러한가? 공자의 시대에도 이미 선비 가운데 군자와 소인이 있었는데, 후세에 유복(儒服)을 입은 자가 모두 공자 · 맹자나 안회(顔回) · 민자건(閔子騫)과 같은 이들 뿐이겠는가! 비록 군자가 됨을 배운다고 해도 어찌 모두 군자일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는 유가에서도 역시 소인배가 있을 수 있으니, 불교의 일부 타락한 승려들만을 보고 지나치게 비판하지 말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또한 거사는 “옛날에 무착(無著)이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도 이미 범성(凡聖)이 함께 있었고, 용과 뱀이 혼잡하고 있었으니, 현재 성인과 점점 멀어져 그 순일(純一)을 구함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해 불교의 타락상에 대한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하고 있음이 보인다.

거사는 또한 불 · 유 · 도 삼교의 관계에 대하여 “유교는 군자(君子)를 이루는 가르침으로 피부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요, 도가의 책들은 날마다 줄이고 또 줄이는 가르침으로 혈맥(血脈)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요, 불교는 바로 근본을 가리켜 지엽을 남기지 않는 가르침으로 골수(骨髓)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 입장은 수대(隋代) 이사겸(李士謙) 거사의 “불교는 태양[日]이고, 도교는 달[月]이며, 유교는 다섯별[五星]이다.”(<불조통기> 권39)라는 입장과 유사하다. 이후 원대 유밀의 <삼교평심론>의 모두에서 “불교로 마음을 다스리고, 도교로 몸을 다스리며 유교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거사의 <호법론>에는 불교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현재 세상에서 그를 정제(整齊)할 사람이 우리들을 제외하고는 또 누가 있겠는가?”라고 사대부 거사들의 책임을 특히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사의 <호법론>은 중국 ‘거사’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호법론>은 결코 장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전개된 논리는 이전의 호법론과는 다른 현실적인 감각이 뚜렷이 살아있다. 더욱이 <호법론>을 찬술하여 유통시킨 시기는 바로 거사가 재상을 역임하던 기간이었기에 이 책의 영향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었고, 또한 역대로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정보 735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3호선 도로변 3층건물중 3층
- 평수 : 법당겸 주방 약 15평, 옥탑방1
- 가액: 보증금800만원 월33만원 시설비 삼존불 등 400만원
- 유동인구많음 역학 보살님도 가능

02)723-3577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북구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1500만원
- 모든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51)361-8511
011-9394-85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불상,탱화제외)

010-4199-0047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 총평수 2000평 등기부지 1200평
- 건물 9동(목조건물)
- 가액: 7억 5천만원 산세수려하고 계곡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한 곳

043)848-5311

사찰 안내
- 위치:마산시 완을동 도심 속 아파트촌
- 법당, 삼존불, 신중탱화, 영가단 완비 입식부엌, 요사채방4, 창고2, 정원
- 평수: 68평(개인주택), 모든 시설 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일체 포함
- 차량으로 10분거리에 농촌집 텃밭 150평 포함

010-3869-1662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
- 문화재 탑 있음
- 요사채 50평, 대웅전, 산신각
- 가액: 전세 4000만원

010-2394-4040 주인직접

임법당(급)안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 아들바위 부근
- 주택2동, 텃밭 조금
- 대지 82평
- 가액 : 8천 7백만원

010-5201-8338

토굴 안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만원

010-4782-2112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20만원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CD 16만 5천원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 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 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 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 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김봉환 합장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목 차)
1부. 신도神道를 닦다
2부. 죽어서 가는 길
3부. 전생과 현생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5부. 기도·수도 체험기

도서출판 대도대한 063)643-7285
가격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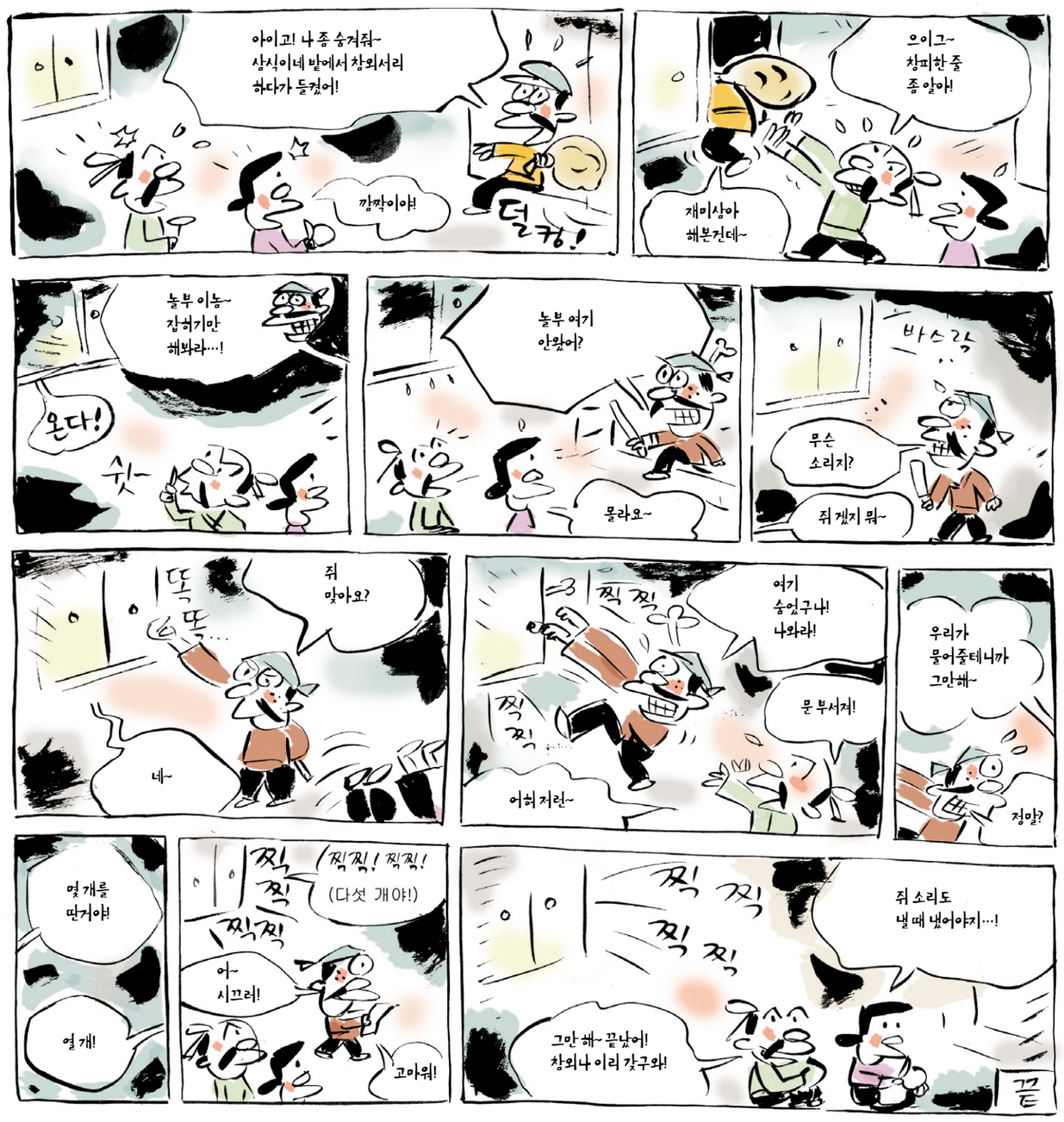
조상신은 어디에서 사는가?
낙태된 **태아신**은 어디에서 사는가?

제가 본 신의 세계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신들의 세계가 이 땅에 함께하며, 사람들의 삶에 무수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서 계속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그런데 사람신, 즉 죽은 사람의 삶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살아서는 만물의 영장을 자처했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 나락으로 떨어져 한낱 동식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도神道를 충실히 닦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신 스승님의 말씀처럼
“엄마 뱃속에서의 열 달은 태어나서의 백 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백 년은 죽음 후의 천 년을 준비함”입니다.
……
죽어서도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는데, 도가 없으니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고 입을 것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
서문을 대신하며 … 저자 해광 하순천

(도서판매처)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리브로 | 서울)골드북닷컴 인천)대한서림 | 대전)대훈서적 | 부산)영광도서 | 광주)충장서림 청주)일선문고 | 포항)포항문고 | 진주)진주문고 | 전주)홍지서림 등

웃음보살 불등거사 〈48〉

구성 : 김흥인



말하는 원앙새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느 나라의 명절에는 부녀자들이 꽃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풍습이 있었다. 가난한 집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트팔라꽃을 얻어 주면 당신의 아내로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는 당신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꽃을 훔치기 위해 궁궐 못에 들어가 원앙새 우는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 못을 지키는 사람이 물었다. "못 가운데 그 누구냐?" 그는 실수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원앙새입니다." 못 지기는 그를 붙잡아 왕에게 갔다. 그가 다시 원앙새 소리를 내자 연못 지기는 말했다. "지금 원앙새 소리를 내어 무엇 하느냐."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다. 죽을 때까지 살생하면서 온갖 악업을 짓다가 임종 때가 가까워서야 비로소 말한다. "나도 지금부터 착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옥졸이 그를 데리고 가서 염라왕에게 넘기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자 하나 이미 때는 늦어 그럴 수가 없다.

옛 판화의 세계

신회 스님이 남방을 참문하다 신회남참(神會南參)



고판화박물관소장 선씨원류(禪氏源流)》 중 신회남참(神會南參)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변상(변相) 27.2×18.0㎝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신회 스님이 조계산에 올라 육조 혜능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어 받는 장면으로 조계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혜능 스님이 바위굴에서 사미인 신회 스님을 제접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택 신회(荷澤 神會) 스님(684~758)은 당나라 양양(襄陽)인으로 속성은 고(高)씨이다. 국창사 호원 법사에게 출가했으나 14세 때 사미의 신분으로 혜능 스님을 찾아가 법을 이어 받은 후, 북종선의 배격에 주력하며 남종선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스님은 개원 20년(732) 정월 15일 활대(滑台) 대운사(大雲寺)의 무차대회(無遮大會)에서, 남종선(南宗禪)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북종선(北宗禪)을 대표하는 숭원 법사(崇遠法師)와 정통 논쟁을 벌인다. 이러한 신회스님의 노력으로 북쪽의 신수와 남쪽의 혜능의 종파적 분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신수의 북종선(北宗禪)과 혜능의 남종선(南宗禪)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게 됐다. "혜능 선사가 신회 스님에게 물었다. '어느 곳에서 왔는가?' '온 곳이 없습니다.' '너는 돌아가지 않겠는가?' '한 곳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너는 너무도 망망하구나.' '몸의 인연이 길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미 이르게 됐습니다만 또한 체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해 동안 조계산에 머물다가 그 후 두루 이름난 고적지를 찾아보고 이어 낙양에서 크게 선법을 행해 명성과 광채를 발휘했다. 이에 앞서 동경과 서경에서는 모두가 신수 스님을 좋아 하기를 마치 맑은 물에 물고기와 바다고기가 깊은 용소(龍沼)에 빠져드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신회 스님이 마음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 육조 대사의 도풍이 그들 점수(漸修)의 도를 싹 쓸어버려서 남북의 두 선종이 비로소 갈라졌다." 이 같은 스님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이후 남종선이 선종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묘하게도 스님은 사후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마조도일(馬祖道一)이나 임제의현(臨濟義玄) 등으로 계승된 남악회양과 청원행사 문하의 선법이, 중국인 자신의 토양에 맞는 '중국선(中國禪)'으로 발전한데 있다. 달마남종의 정계라고 시종일관 강조된 스님의 선법은 종밀(宗密)만이 그 명맥을 유지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옹기

별자리 칭칭 감은 가마터 하늘 위에
초신성 탯줄자락 흰 연기로 연결되고
물레 틀 긴 호흡 따라 또 다른 은하가 돈다

뼈 녹는 불꽃 무늬 천정에 화인 찍는
팽창의 정점에서 내 숨결로 간을 본다

덜 삭힌 머리자락에 동동 뜨는 맑은 별 …

북극성 소인 찍힌 황소자리 고삐 들고
흙빛이 흙빛에 삭는 이 길 넘어선다면
협궤의 불가마 속에서 눈을 뜨는 등신불.

–이승현/제18회 나래시조문학상 수상작





대행 스님

오로지 자기 이 심봉만 불들고 의지하라

오늘 날도 궂고 또 이 도량도 좁은데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면 살얼음을 지나가면서 모닥불을 놓는 것과 같아서 얼음이 빨리 녹아서 내가 빠진단 말입니다. 빠지게 돼 있죠. 그런데도 그 살얼음판을 걸어가면서도 누가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이거를 양쪽 탓을 하고 이것을 간섭하고 이렇게 가다보니깐 자기 갈 길을 못 가고 결국은 때에 따라서는 얼음이 녹아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빌딩에 불이 났으면 나갈 구멍 찾을 생각뿐이지 다른 거는 도대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오직, 오직! 난 이날까지 오직이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상관 안 했습니다. 돈? 몸? 먹고 사는 거? 친척? 뭐 어느 거를 막론해놓고 그 가운데 오직 그거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거는 아마 세세생생에 변치 않을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를 부처님께서 제시했습니다. 제시하기를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니라. 그러하니까 그대로 여여하니라."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헤아리질 못합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하고 영묘하니까 "네 육통 안에서 벗어나서 공기주머니 안을 벗어나야 되느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 그 뜻을 헤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업이 없다든가 고가 없다든가 이런 뜻은 무슨 까닭에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이 평상시에 살아가시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만나고, 가고 오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이렇게 다단하게 바뀝니다.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이 봤으면 그냥 훅 날아가고, 들었으면 훅 날아가고, 또 그것을 듣는다 하더라도 훅훅 그냥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는 언어도 붙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말을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오실 때도 뒷발자국 자체가 그냥 휙휙 가버린 거죠. 하나 떼어놓은 사이에 벌써 하나는 가버리고, 하나 떼어놓은 사이에 가버리고 그렇듯이, 보는 것도 그냥 그것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봐가지고 끝나면 다른 거 봐야 하고, 또 이거 들었으면 다른 거 들어야 하고 이렇게 연방 그러한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상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겠죠. 하지만 근기를 따져서 같은 근기를 모아놓고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상근기로 뛰어넘으려면 이 소릴 듣고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몸이 움죽거리는 것도 없고, 만나는 것도 없는데 무엇을 있다고 하랴? 어떤 거 할 때 내가 움죽거렸다고 하랴?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하랴? 어떤 걸 들었을 때 내가 들었다고 하랴? 이렇기 때문에 고가 붙을 자리가 없어요. 고가 붙을 사이가 없다고요. 자리가 아니라 사이가 없다고요. 보고는 훌떡 가고 듣고는 훌떡 가고, 움죽거리곤 훌떡 가고 만나고 훌떡 가고, 하고 훌떡 가고 이러는데 그 사이에 고가 붙을 사이가 있어야 붙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붙을 자리가 있어야 붙을 거 아닙니까?

고가 붙을 자리가 없어서 고가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것 보고 말들 하고 저것 보고 말들 하고 이것 듣고 말하고, 말을 하되 누가 하지 말랬나요? 하되 하지 않으면서 해라 이거죠. 함이 없이 해라 이겁니다. 왜냐? 이 도리를 알면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함이 없이 사랑하라, 함이 없이 보시하라, 함이 없이 들어라, 함이 없이 책을 봐라, 함이 없이 공부하라. 왜 이런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인간 세상 아닌 인간 세상으로 넘어서서 그 도리를 행하게 되는 거죠. 즉 무(無)의 세계에서 용무를 하면서 즉, 모든 것을 다 앎으로써 세세생생의 이 모든 것을 이끌고가면서, 지금 현재 세상도 버리지 않고 현재 몸도 버리지 않고 현재 생활도 버리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대로 생활을 하게 돼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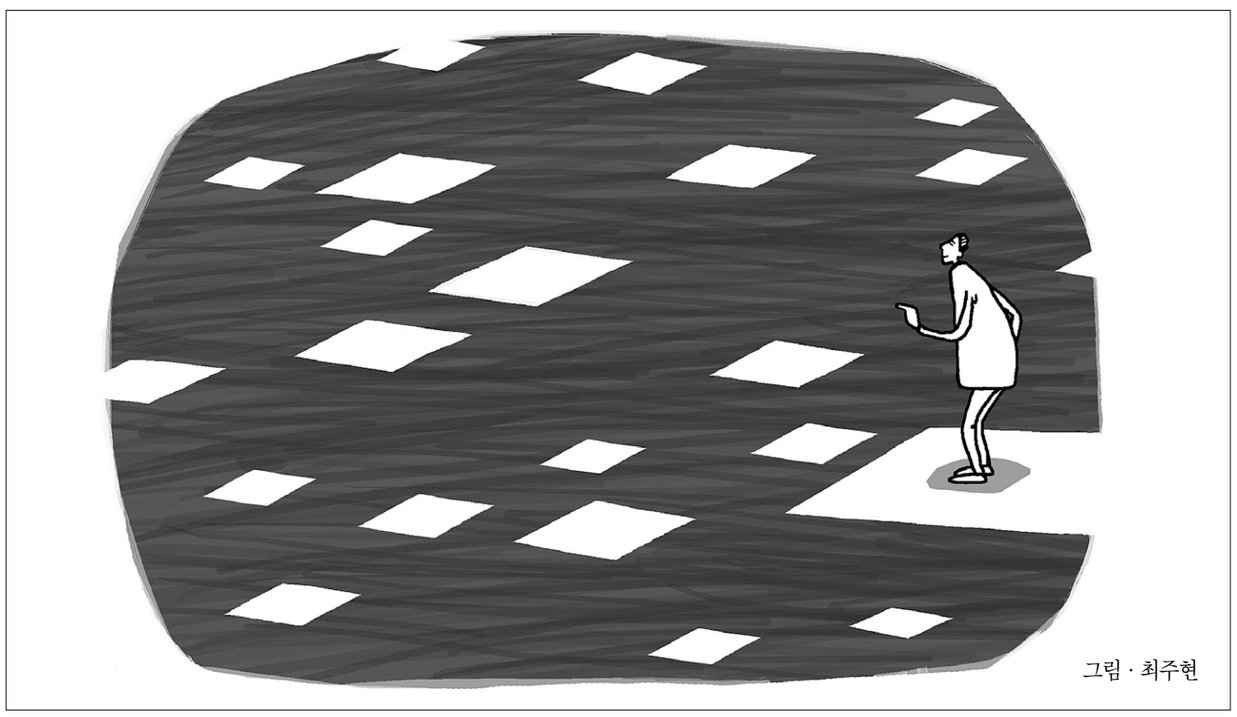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고가 없다' 이러는 거, 그렇게 촐나촐나 화해서 모두 이렇게 물 흘러가듯 뜬구름 흩어지듯 하고 그러는데 무엇을 잡고서 내가 이것이 어떠니 저것이 어떠니 하느냐. 구름을 잡는 거와 같고 물 한 주먹 잡는 거와 같은데 그것을 뭣 때문에 자꾸 붙잡겠다고 애를 쓰느냐. 그러니깐 고에서 허덕인다. 한생각이 능수하고 지혜롭다면 뛰어넘는다. 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화해서 가버리니까요. 자기조차도 몸 안의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면서 공해서 돌아가고, 바깥에서도 공해서 돌아가고, 나와 더불어 같이 모두가 공해서 돌아가는데 거기 병 불을 자리가 어딨으며, 고가 붙을 자리가 어딨으며, 업이 붙을 자리가 어딨으며, 괴로움이 붙을 자리가 어딨으며, 즐거움이 붙을 자리가 어딨겠습니까?

다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탤런트가 영화를 하다가 영화가 막이 내리면 그뿐이듯이 인생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다만 오직 자기 중심, 심봉처를 의지해라. 의지하고 돌아가라. 의지하고 돌아가라. 하도 바람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인생살이가 돌아가니까 가운데 중심, 그걸 쥐고 선 바퀴가 돌아가듯이 심봉을 쥐고서, 심봉은 끄떡도 안 하고 힘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힘을 바로 잡고서 인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선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못나고 잘나고, 여자고 남자고, 낮고 높고, 잘살고 못살고 이걸 떠나서, 오직 내 심봉을 딱 쥐고서 그대로 흘러가듯이 돌아갑니다. 이 심봉을 의지한다면 바퀴가 이탈되지 않으니깐요. 이 심봉이라는 건 반야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주처라고도 할 수 있고, 자아라고도 할 수 있고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부처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름이 다양합니다. 다만 그 의지처만 의지하면서 오직 내가 함이 없이 하면서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한 촐나에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여하게 사는 겁니다. 여여한 삶의 보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리송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아리송하시죠? 한 가질 보면 열 가질 안다고 우리가 현재의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고 사시면서도 왜 아리송합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화해서 촐나촐나 화해서 돌아가는 거를 느끼고 알고 하면서, 왜 그게 아리송하냐 이겁니다. 그 생각 하나만 '아, 이렇구나! 이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탁 놓는다면 그냥 그냥 그대로입니다. 촐나입니다, 그냥!

부처님이 나를 깨치게 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빼앗아 가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업이 많아서 누가 빼앗아 가는 것도 없습니다. 빼앗아 갈 사이가 있어야죠? 그리고 갖다 줄 사이도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대로 그냥 그냥 하는 대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보는 대로 날아가고, 하는 대로 날아가고, 듣는 대로 날아가고, 도무지 내가 했다 내가 안 했다 할 수가 없게끔 되

☞26면으로 계속

128회 부산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신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09년 6월 13일(토) 저녁 9시 ~
2009년 6월 14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 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손목,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꼬리뼈,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부산 금정법당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대구교구종무원 교육원에서는 불교의식 강의를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재가불자님께는 불교기초교리와 함께 강의합니다.

1. 교육기간 – 1년「수시모집」
2. 교육내용
◇ 초급과정 – 사물, 예불편, 불공편 등
불교기초교리(재가불자)
◇ 중급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조전점안, 상단권공, 중단권공, 시식.
•범패 – 거불, 복청게, 헌좌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 등
•작법 –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 등
도량게, 다게 등
◇ 천도재 (49재) 의식을 중점 강의합니다.
3.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 교육장소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설법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629-21)
5. 문의전화 – 053)622-3702(주)
053)621-7521(야)
011-324-5133
(자세한내용은 문의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문화원

스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단돈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엠프
마이크 소리를 "확" 바꿔드립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앰프+마이크,스피커+마이크 등의 교체 및 재 셋팅〕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예약접수기간 : 2009년 6월 ~ 8월 31일까지
(예약순으로 일주일에 법당 2곳만 설치해 드림)
해 당 지 역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일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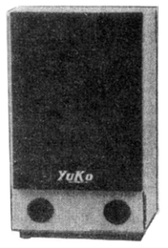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스피커



◇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가 붙을 자리가 없다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buddhanews.com

아는 거를 다 놓고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25면에서 계속

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어려움이 크게 나한테 벌어졌다, 병고가 생겼다, 뭐 어두움이 다가왔다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오던 관습과 집착과 욕심에 의해서 착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묻지 마라. 미래도 생각지 마라. 오늘도 공했다. 공했으니까 찰나찰나 가버리는 것에 착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착을 가지고선 온통 작년에는 어땠느니 올해는 어땠느니, 물론 얘기야 하시겠지마는 함이 없이 얘기하고 속에다가 착을 두고 욕심 두고 그럭하고 하지 말고, 그대로 평범하게 '아, 작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야지 되지 않겠어?' 하고 말을 여여하게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꼭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그 생각입니다. 업도 붙을 자리가 없고 고도 붙을 자리가 없고, 병도 붙을 자리가 없고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는데, 그냥 이 심봉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그랬더니 그 생각으로 붙잡고는, 심봉은 주인공이라는 이름만 부르고 정작 붙드는 거는 그 고를 붙드는 거예요. "심봉을 의지하고선 바퀴는 돌아가라. 여여하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심봉은 이름만 부르고 고를 붙들고 그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놓고 불러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부르는 그것도 말일 뿐이죠. 생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일거수일투족 거기다 의지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감사함도 거기 있고 즐거움도 거기 있고, 같이 붙들고 울 수도 있고 뭐 매사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보배입니다. 보배!

그런데 거기에다가만 그렇게 심중을 굳히고 의지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하고 의지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마음보다도 욕심 찬 마음, 그 탐심, 치심이 더 성하니 될 법이나 합니까. 또 바깥으로 하여튼 간섭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저기 뭐 똥 굴러가는 거를 봐도 저 똥이 어디로 굴러가느냐고 또 야단이에요. 허허 참 내! 아이, 어디로 굴러가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아, 새들도, 저 3층에 새들이 와가지고 뭐 먹을 거를 뿌려주면요, 사람이 안 다니는 데부터 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데는 좀 주춤하고 물러서 있다가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면 와서 다 먹어요. 그렇게 영묘한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지하라는 데는 안 하고, 그냥 남의 일 참견 다 하고 남의 탓은 다 하고. 탓할 사이가 어딨습니까? 지금 빌딩에 불이 나서 자기 살 구멍을 찾아 나가는데 그 순간에 아, 남의 탓을 할 사이가 어딨습니까, 글쎄? 남의 탓 하지 남 참견하지, 그러고는 그 심봉에 의지했으면 '거기에다가 다 넣고, 아들과 부모 모든 게 다 가설이 돼 있으니 거기다 놓고 그저 의지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입으로 망해버려요! 입으로 다 깨트려!

여기다간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주인공!" 하고 이름만 부르고 어떤 때는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요놈의 새끼야, 응? 배울 시기에 배워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펄펄 뛰고 온통 난리가 나니, 외려 그럭하면 따뜻하질 못해서 달아나가요. 자기가 하는 게 어깨에 무겁고 또 그게 뭐가 무거우냐고 야단을 치면 달아나가요, 그냥 다 내려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마음 하나만 그렇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고 가니깐, 그냥 거기에 착을 두지 마라 이겁니다. 한생각이 뛰어나야 내 가정도 뛰어난 살림살이가 되죠.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한 것이 제일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찰나찰나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자리에 뭐가 붙을 자리가 있느냐! 병도 붙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하나 챙겨서 진짜로 믿고 놓지를 못하니 아니, 내가 없는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현실에 그냥 진리를 상황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얘기했는데 그 진리대로 살지 않고 왜곡되게 사니까 진리대로 사시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얼굴도 허옇게 피고 사는 날까진 틀림없이 살 겁니다, 아마! 허허허.

그리고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차원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든 자기 자유니깐요. 이 지구 안에 태어나지 않고 상세계에 태어나든 별성이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자기 자유니깐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알아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춧돌이 있고 또 기둥이 있고 또 그 뭐? 대들보! 대들보가 있어야 하고 서까래가 있어야 하고, 지붕을 올려놔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을 붙여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옛날에는 '내 가죽을 얻었느냐? 또는 살을 얻었느냐? 뼈를 얻었느냐? 정수를 얻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옛날의 선지식들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부터 실천을 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뛰어넘는다면 이거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보면 다 알고 들으면 알고, 그냥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복잡한 것을 때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그 한 가지는 면했으나 또 앞으로 닥쳐올 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는 게 없는 아는 거를 다 놓고 내가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만이 어떠한 게 와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떠한 게 와도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 아마 귀신이 이 세상에서 다 몰려온대도 "허허" 하고 웃을 겁니다. 왜냐? 둘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자기 손가락 하나가 자기 손가락 하나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마음으로만 믿고,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사람은 정성들이는 거를 보기 이전에 무조건 그저 마음을 내가 그쪽으로 주든지, 그쪽의 마음을 내가 가져오든지 해서 고칩니다. 그것을 약을 먹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영계성 . 업보성 · 유전성 · 세균성 · 인과성 이 몸의 의식들 속에 다 끼여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그렇게, 공했다는 거를 알고 그냥 휙휙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냥 거기에 기둥만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모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날아가진 않아요.

그와 같이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폐일언하고 모든 거를 다 접근시켜 놓으면 마음에서 고장난 거 마음으로 고쳐야 하고, 의식에서 고장난 건 마음을 통해서 고쳐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천차만별이 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형성된 것도, 이 차원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사는 그것이 나의 소임입니다. 그건 누구한테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소임을 가지고 영화 탤런트처럼 내가 소임을 받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느냐?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붙을 게 없고 저런 것도 붙을 게 없고, 업도 붙을 게 없고 고도 붙을 게 없고, 병도 붙을 게 없다.' 하는 건전한 생각으로 주인공의 그 줄만 잡고서 모든 거를 거기다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바꾸어서 내가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른다면 그것으로써 인생살이는 족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은 다 모르십니다마는 모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로 믿고 실천을 하라." 하는 거는 내가 모르든 알든 상관이 없이 진짜로 믿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한 소식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니 내가 어떻게 그분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탈인 거예요. 그러니 스무드하게 넘어갈 일도, 집안에서 넘어갈 일도 생각으로 붙들어서 오히려 그것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벌여놓는 겁니다.

그렇게 벌어지면 이게 이렇게 벌어졌으니 어떡하느냐고 또 뛰어옵니다. 내가 볼 때에 어떻겠습니까? 세상에도! 그냥 갈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켜가지곤 또 왔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기가 막혀서 말입니다, '허허, 참 기가 막혀서!' 이럽니다. 혼잣말이죠, '참, 기가 막혀서!' 이럽니다. 그거를 어디다가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저 열심히 관하세요. 그러면 내 관하는 대로, 진실하게 관하면 나도 거기 도와주게 돼 있어. 그러니 진정코 진실하게 관하라." 하고 이렇게 보내놓으면 얼마 안 있어서 "아이고, 스님! 해결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글쎄 이래요. 그래 때로는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당신의 전깃줄이 있으니까 내 전깃줄이 있고, 내 전깃줄이 있으니까 당신의 전깃줄이 있는 거지, 맞붙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지 뭐가 고마워?" 이러죠. "고맙게 생각하려면 당신 주인공한테 고맙게 생각해!" 이러고요. 아이, 이거 정말이지, 나는 그렇게 힘드는 줄 몰랐습니다. 미처 그렇게 힘드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예전에도 내 몸뚱이를, 몸뚱이가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내 이 한 가지만은 그랬습니다. 결정적으로 끝간 데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 세상을 다 주고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겁 안 난다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그럽니다. "돈을 하늘 땅만큼 가져온대도 당신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소용없어. 공덕이 안돼. 당신네들이 돈 가져오는 거 벌어서 먹고 살 양으로 내가 중노릇 하는 줄 알아?" 이럽니다. 그렇게 한다면 죽어야죠. 아니, 죽기 이전에 벌써 저 땅속에 사는 하천세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하천세계로 떨어진들 하나도 겁나는 거 없습니다. 난 생각이 다 있으니까요. 하하하. (대중 박수)

질문하실 분 있다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한 발짝 고정된 게 없이 화해서 돌아가니까 병 붙을 것도 없고, 업 붙을 것도 없고 고 붙을 것도 없다 이랬으니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흥해질 수도 있고, 가정이 아주 한데 떨어져서 일으켜 세울 수도 없는 형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재산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집도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거를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내 극치적으로 이럽니다. 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방편으로 말을 안 해주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깐요. "아주 진실하게 관하면 귀인이 생기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럭하고 그 귀인은 부처님께서 해주게끔 합니다. 하하하.

(다음 호에 계속)

> 과거는 묻지 마라. 미래도 생각지 마라. 오늘도 공했다
>
> 공했으니 찰나찰나 가버리는 것에 착을 두지 마라

※위 법문은 1996년 6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42기 氣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주 수련 만으로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다.
▶ 11주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 수련일자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4:20(11주과정)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개강(지방 수련원)
■ 대구 수련원 : 6월 18일, 20일 / tel : 053-652-2202
■ 부산 수련원 : 6월 13일, 오후 2시 / tel : 051-645-5068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불자 세상보기

홍 민
동국대 북한학과 연구교수

북한의 과장된 자존심 버려야

멀미나는 계절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망연자실 한국사회가 깊은 암울함 속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북녘에서 울린 핵의 진앙이 한반도를 다시 한 번 전율케 하고 있다. 여기에 이어진 크고 작은 북한의 로켓 화력 시위와 선전포고를 방불케 하는 엄포성 언어 도발, 서해에 일촉즉발 감돌고 있는 긴장감, 북한의 '악행'을 둘러싼 외교적 비난, 응징에서 핵무장론까지 무성한 핵 언설들이 들끓고 있다. '핵'이라는 아슬아슬한 물건을 놓고 벌어지는 아찔한 '욕망'들의 과속 질주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현기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핵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는 주술적인 힘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 국제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핵이 '강성대국의 여명'을 알리는 알레고리로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핵실험은 일종의 정치적 제의(祭儀)와도 같다. 북한이 안고 있는 내외부적인 공포를 핵으로 응축하여 사회질서를 재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자신이 지닌 호전성을 극대화하여 약점을 최소화하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제의는 선과 악을 가르고 내부의 순수와 외부의 적을 대비시킴으로써 권력이 의도하는 질서에 대한 강한 집착을 함축한다. 핵이 물리적 힘 이상의 강렬한 정치적 상징과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핵은 남과 북이 서로를 살해할 수 있는 '거대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사실 상대를 적대적으로 타자화하면서 자기강화의 자양분을 얻는 분단체제의 속성상 '핵'은 그런 적대적 타자화를 보다 강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몰아갈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권 유린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 핵을 필두로 동북아시아 전반에 파급될 핵이라는 존재의 대연쇄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핵'이라는 죽음의 우산 속에 삶을 영위한다는 비극적 존재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런 융통성과 지혜를 구사하는 데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핵'의 자위력에 필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체제의 불안한 심리 상태의 상당 부분은 과장된 '자존심'의 표현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상대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외교적 전술이다. 직진성이 강한 외교 어법보다 융통성과 대화 명분을 담은 은유의 수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분석적 차원, 지난 10년간 축적된 화해와 협력의 경험적 차원,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해석해 내는 해석적 차원에서 실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신의 상투를 잡고 늪으로부터 스스로를 끌어 낼 가능성은 많지 않다. 대결에 필요한 연장들을 만지작거리며 냉전시대에나 어울릴법한 낡은 냉전의 대결적 품목들을 다시금 꺼내들기보다는 현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접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재성찰과 전환이 필요하다. 불안스런 타자(북한)의 거취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신뢰할 수 없는 타자로 자리매김할수록 우리 내부의 공포도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멸조의 비난이나 규탄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공감적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북한의 발언을 기만적인 요설들로 치부할 것만은 아니다. 멀미의 어지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과속하는 차를 속도 조절해야 한다. 현기증 나는 과속은 유지한 채 임시방편의 멀미약 처방으로 가라앉힐 일이 아니다. 또한 이런 위기를 정략적으로 소비하려는 방식도 옳지 않다. 그래서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조계종과 '불통'인 정부

'자연공원법'과 '전통사찰보존법' 등이 규정하는 규제들이 사찰의 자유로운 신행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때문에 조계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축물의 증개축을 포함한 각종 불사와 수행환경 개선을 용이하게 하는 법개정을 요구해 왔다. 현 정부는 가급적이면 규제를 풀어 민생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포함한 공원지역에 포함된 사찰과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 재산권 행사를 돌봐주는 차원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우선시 하는 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계종은 공원지역에 포함된 사찰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매우 불편한 규제들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일관되게 정리하여 수행환경과 문화역사의 보존 코드를 함께 살려나가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리적 원칙에 얽매여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가동하지 않는다.

조계종은 다음 달 초에 열리는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종단의 자주권 행사를 위해 종도들의 의지를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과 정부의 관계가 불편해질 조짐인 가운데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5일 청와대가 마련한 종교지도자 오찬에도 불참했다.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정부가 종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과도 불통의 형국을 장기화 한다면 이는 분명한 불행이다. 빠른 시일 안에 서로가 웃을 수 있는 조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북악산 터널 왜 보고만 있나?

사패산 터널의 악몽이 되살아나는가?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 등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북한산과 북악산 구간에 두 개의 터널을 뚫겠다고 밝혔다. 물론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그러나 불교계는 조용하다. 두 공사 구간에는 적지 않은 사찰이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사찰로는 옥천암과 화계사를 들 수 있다.

공사 계획이 발표되고 환경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속출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패산과 천성산의 경우를 되돌아보게 된다.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이 공청회 등의 법적인 절차를 '얼렁뚱땅' 진행할 때까지도 전혀 말이 없다가 현장에 장비가 동원된 뒤에야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결국 시공사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시점에 만나게 되고 갈등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공사를 중단시키지도 못했고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이번 서울 도심 구간 터널 공사의 경우도 현재까지는 불교계가 기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불교계의 자체적인 조사 등 움직임도 없고 환경단체들의 반대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주목하는 것 같지도 않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점이 있다. 사찰의 수행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반대할 일은 확실하게 반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일체중생 은혜 알기에 갚고자 할 뿐…

6월의 테마-보은

지홍 스님
서울 아산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



오전 10시 병원 법당에 도착해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스님께 부탁드릴 내용을 기록하는' 작은 공책이다. 간밤에 다급하게 기도 올린 분들이나 외래로 병원을 찾게 된 법우님들의 사연이 매일매일 적혀 있다. 많은 사연들 중 눈에 쏙 들어온 내용이 있었다.

"스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000 아빠, 000 엄마의 네 살 된 딸인 김00 어린 아이가 간모세포종으로 오늘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이 무사하게 끝나고 앞으로 암이 완치되어 00가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되길 부처님 전에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간을 기증한 이름 모를 아이와 어머니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0 아빠 올림"

네 살짜리 딸아이의 간이식수술을 앞둔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병원 법당의 지도법사로 있게 된 지 올해로 18년째이다. 짧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이렇게 어린 환우들의 병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 깊숙이부터 먹먹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중생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약사여래의 서원을 따라 오늘 간이식수술을 받게 된 00이와 다른 환우들의 완쾌를 위해 사시 기도를 시작해 본다.

하루 유동인구가 3만 여명에 달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서울 내 작은 도시로 불릴 만큼 이용객이 많다. 이에 따라 서관, 동관에 이어 신관 건물이 작년 여름에 신축됐다.

병원 법당도 개신교,가톨릭 등 이웃 종교봉사실과 함께 서관 3층 수술실 옆에 새로 자리를 지정받아 1월에 이전 불사를 거행했다. 약 한 달여간의 내부 공사에 이어 닫집, 수미단을 새로 조성한 후 10여 년 넘게 동관 6층에서 환우들을 보살펴 주신 부처님을 옮겨 모셨다.

서관 지하1층에서 동관 6층으로, 이제 다시 서관 3층으로 병원의 증축에 맞춰 법당의 부처님도 3번이나 모시고 다녀서 송구할 따름이다. 그래도 지난 1년 여간 여러 환우들과 병원 법우님들의 십시일반 덕택에 처음으로 단청불사까지 할 수 있어 부처님께 면목이 선다.

혹자는 묻는다.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보살행으로 지난 18년 동안 한결 같이 병원 법당에서 환우들과 함께 한 것이냐고. 지난 세월을 버티게 한 힘이 무엇이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은혜를 갚는 사람은 능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아홉 살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와 어른 스님들께 배운 대로 내 생명을 있게 한 일체중생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갚고자 걸어가는 길일뿐이다. 내가 왜 생기고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으로서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갚고자 걸어갈 뿐이다. 종합병원 안 수술실 옆의 공기 탁한 법당이라도 나를 있게 한 부처님과 중생에 대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소중한 도량 안에서 그저 감사하고 행복한 수행자일 뿐이다.

統合佛教儀式大典 出刊



총1,2권 2,100 페이지
가격 : 전권 200,000원
크기 : 4×6배판(19×26cm)
본문법화의식대전 / 총1권 : 100,000원

사십구제편		고사편		추천인	
1.입재 불공의식	○화엄시식	1.가정안택의식	中央僧伽大學校 總長	宗 梵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2.삼우제 불공의식	○삼우제시식	2.사무실고사의식	太古叢林 仙巖寺 方丈	釋 慧 草	
3.초재 불공의식	○지장시식	3.자동차고사의식			
4.이재 불공의식	○보현시식	4.선박고사의식			
5.삼재 불공의식	○문수시식	5.삼재살해소의식			
6.사재 불공의식	○미륵시식	**6.태아영가시식**			
7.오재 불공의식	○보문시식				
8.육재 불공의식	○묘음시식				
9.칠재 불공의식	○관음시식				

統合佛教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017-552-7350
계좌번호 : 농 협 803-02-752331 예금주 :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 김묘경

빙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

지난 생애에 맺어진 인연법에 의해 잠재의식(말라식, 아뢰야식)에 원한의 씨앗을 심었다가, 보복을 겪는 행위를 빙의라 한다.

-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겪는 일들
1. 지금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를 아는자는 많다. 그러나
2. 조상 누구가 무엇을 요구한다면서, 천도재를 하면 빙의에서 벗어난다고 말한다.
3. 이러한 말을 들은 관계자들은 순간적으로 믿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다 앞으로 무슨 재앙이 닥쳐온다고 하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
4. 천도재란, 법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이다.

- 아래와 같이 빙의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5.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혜안으로 원귀들을 만난다.
6. 한 두 영가의 작용은 보통 우울증이라 하지만, 영가들의 집단체(5-6위 이상)로 빙의된 사람의 몸 속에 자리하고 있다.
7. 자리 잡고 있는 영가들의 업을 소멸시키게 되는데, 이때 대단한 기도의 힘 즉, 법력이 작용한다. (한 영가당 3-4일 정도 소요됨)
8. 업이 소멸되면, 영가의 에너지가 쭈욱 빠져서 실신한 사람처럼 되며, 이러한 영가를 혜안으로 일일이 확인한다.
9. 진행자의 법력으로 "반야선"을 받아 영가를 태워서 영계로 보낸다. 〈사악취(지옥, 아귀, 축생, 수라)를 벗어나서 천상계의 28천의 권속이 된다〉

※지리산 써레봉 아래 해발 1100고지에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15년간) 수행하면서 영가의 악업을 녹여주고, 제거하여 주면 반야선을 받아 영계로 보내는 수행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영가는 반드시 반야선에 의해서 영계로 가게된다)

** 바라옵나니 이 공덕 널리 퍼져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여지이다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3동 1596-11번지 103호
서진포교원 선운 합장
문의 010-6289-1233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수호천사
대한민국 대표 삼베수의
www.suho-1004.co.kr

MBC BTN 불교 TV YTN 광고방영중
ISO 9001:2000 국제품질인증 획득 〈등록번호 : A2570〉
보성삼베섬유(주)는 27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지정업체〉

올해 기축년(윤년)에는 100% 삼베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십시요!
본사에 수의를 보관해 놓은 회원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보관된 수의를 보내드립니다.

기축년

68만원에 국내 직조 수의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윤년맞이 특별할인 판매

올해 윤년을 맞이해서 보성삼베섬유(주)는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수의를 특별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수의를 장만해두시면 무병장수하고 가내두루 평안하며 자손이 번창한다고 합니다.


[명품 특1호]

2009년 보성삼베섬유(주) 수의품목 및 판매 가격

	정상가격	할인판매가격	할인율	원 사	원 단	제 조
수호천사 2호	~~97만원~~	→ 6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수호천사 5호	~~142만원~~	→ 99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명 품 특	~~218만원~~	→ 148만원	32%	중국	중국	한국
명품 특1호	~~398만원~~	→ 250만원	37%	중국	중국	한국
수호천사특삼베	~~398만원~~	→ 27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 수호천사 삼베수의를 구입하시면 시중에서 따로 구입해야 하는 매장베(멧베)를 추가로 드립니다.

수의 구매고객께 드리는 확정금액 장례서비스 (고객선택) (사후지불 확정금액)

150만원	수시복, 수시포, 베개, 혼백, 수시용품 일체, 향, 양초, 위패, 칠성판, 사진리본, 받침대, 양복(4세트),여상복(5벌), 도우미(2명), 꽃바구니(2개)	기본형
24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4명), 제단장식(1단), 꽃바구니(2개), 양복(4벌), 여상복(7벌), 유골함, 리무진 전국무료	고급형
35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6명), 제단장식(3단), 꽃바구니(2개), 양복(6벌), 여상복(10벌), 유골함, 리무진, 버스 전국무료	최고급형

✻ 보성삼베섬유(주) 수의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수호천사 회원자동가입이 되며 확정된 금액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치러드립니다.
✻ 장례서비스는 기존의 선불제 상조가 아닌 10년 후에도 위 금액으로 장례비 후불제 서비스 입니다.

수호천사는 삼베 재배에서 제조,
장례서비스까지 새로운 개념의
장례토털서비스의 이름 입니다.
27년간 장인정신으로 이어온
수호천사로 여러분의 효(孝)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성삼베섬유(주)
전속모델 방송인 강 부 자

1 투명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원단쯤이야' 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제철에 한몫 크게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정직하게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Q마크 품질보증지정업체)

2 품질이 우수합니다!
전통 기법의 가진 수의를 분리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원단을 아끼지 않아 수의 옷에 여유와 기풍이 느껴 집니다. 100% 면실로 정성스럽게 바느질하고, 일체의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수의 고유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ISO9001국제품질인증)

3 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구입 후 천재지변은 물론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제품 손상이라도 50%까지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고객부담 50%)
보상 교환 서비스는 보성삼베섬유가 공장직영이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4 한번 구입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까지!
보성삼베섬유(주)의 제품을 구입하신 고객님은 철저한 회원관리 시스템으로 수호천사 장례서비스를 20년이 지나도 확정된 금액의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명품 특]

구입상담문의 전국 판매점 모집 문의전화 02-477-8060
1544-6609

보성삼베섬유는 선각종과 함께 합니다

보성삼베섬유(주)
BOSUNGSAMBE.Co., Ltd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6-1
TEL: 02-477-8060 FAX: 02-477-8061
장례서비스문의 1544-6607